[UCI]I804:24011-200000239680

2010년 2월
석사학위논문

현대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침장류 디자인개발 연구 - 조각보를 중심으로

A study for the Application of Modern life style Bedding Design Development- Focusing on the Korean Patchwork and Wrapping of Clothing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나 인 승

현대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침장류 디자인개발 연구 - 조각보를 중심으로

A study for the Application of Modern life style Bedding Design Development- Focusing on the Korean Patchwork and Wrapping of Clothing

2010年　2月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나 인 승

현대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침장류 디자인개발 연구 - 조각보를 중심으로

A study for the Application of Modern life style Bedding Design Development - Focusing on the Korean Patchwork and Wrapping of Clothing

지도교수 한 선 주

이 논문을 디자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9年 11月

조선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디자인학과

나 인 승

나인승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손 영 미 印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진 렬 印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한 선 주 印

2009年 11月

조선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목 차

Abstract

Ⅰ. 서 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 2

Ⅱ. 침구의 역사 ····· 4

1. 동양 ····· 4

2. 서양 ····· 5

3. 혼례용 침구 ····· 6

4. 나라별 침장류 ····· 7

1) 한국 ····· 7

2) 일본 ····· 10

5. 제작기법 ····· 12

1) 자수 ····· 12

2) 누비 ····· 14

3) 바느질 기법 ····· 17

Ⅲ. 침장류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9

1. 사이즈 ····· 19

2. 소재 ····· 21

1) 섬유의 분류 ····· 21

2) 직물의 종류 ····· 33

3. 나라별 직물 ····· 35

1) 한국 ····· 35
2) 중국 ····· 38
3) 일본 ····· 41
4. 트렌드 ····· 45
1) 09 S/S 트렌드 ····· 45
2) 09/10 F/W 트렌드 ····· 48
5. 침구의 품목과 명칭 ····· 51
1) 양실 침구 품목 ····· 51
2) 한실 침구 품목 ····· 55
6. 속통의 종류 ····· 59
1) 충전재 소재 ····· 59
2) 겉감 소재 ····· 63
7. 침장류의 제작 기법 ····· 63

Ⅳ. 조각보의 침장류 활용사례 ····· 66
1. 조각보 ····· 66
2. 조각보를 활용한 침장류 사례 ····· 68

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침장류 분류 ····· 71
1. 용도별 ····· 71
1) 신부용(Wedding) ····· 72
2) 혼례용(예단) ····· 73
3) 아동용(Kids) ····· 74
4) 계절용 ····· 75
5) 웰빙용(Wellbeing) ····· 76
6) 싱글 및 주니어용(Single and Junior) ····· 77

2. 브랜드별 ····· 79
1) 박홍근(Park houng gun) ····· 79
2) 자미온(Jamion) ····· 80
3) 이브자리(Evezary) ····· 81
4) 메종 드 이영희(Maison de Lee young hee) ····· 82
5) 겐조(Kenzo) ····· 83
6) 랄프로렌 홈(Ralphlauren home) ····· 84

Ⅵ. 작품 제작 및 분석 ····· 86
1. 작품 제작 배경 및 방법 ····· 86
2. 작품 및 분석 ····· 88

Ⅶ. 결 론 ····· 115

참고문헌 ····· 118

그림 목차

<그림 1> 누비처네(아기이불), 누비소고 ····· 8
<그림 2> 누비이불, 제주박물관 소장 ····· 8
<그림 3> 겹이불,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 8
<그림 4> 잔누비,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 14
<그림 5> 중누비,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 14
<그림 6> 드문누비,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 14
<그림 7> 오목누비,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 15
<그림 8> 납작누비,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 15
<그림 9> 꽃무늬 누비, www.evezary.co.kr ····· 16
<그림 10> 다이아몬드 누비, www.evezary.co.kr ····· 16
<그림 11> 물결무늬 누비, www.evezary.co.kr ····· 16
<그림 12> 솜이불, 제주박물관 소장 ····· 19
<그림 13> 종이섬유 제조과정, www.evezary.co.kr ····· 26
<그림 14> 양단, www.100.naver.com ····· 36
<그림 15> 모본단, 쌈지사랑 규방공예 연구소 ····· 36
<그림 16> 사색단, 쌈지사랑 규방공예 연구소 ····· 36
<그림 17> 갑사-1, 쌈지사랑 규방공예 연구소 ····· 37
<그림 18> 갑사-2, 쌈지사랑 규방공예 연구소 ····· 37
<그림 19> 진주사, 쌈지사랑 규방공예 연구소 ····· 37
<그림 20> 국사, 쌈지사랑 규방공예 연구소 ····· 38
<그림 21> 숙고사, 쌈지사랑 규방공예 연구소 ····· 38
<그림 22> 생고사, 쌈지사랑 규방공예 연구소 ····· 38
<그림 23> 철직(綴織), 日本の織物 ····· 43
<그림 24> 당직(唐織), 日本の織物 ····· 43
<그림 25> 주진(朱珍), 日本の織物 ····· 43
<그림 26> 축면(縮緬), 日本の織物 ····· 45
<그림 27> 라(羅), 日本の染織 ····· 45
<그림 28> Bed linen, www.ralphlauren.com ····· 51
<그림 29> Bed sheet, www.ralphlauren.com ····· 53
<그림 30> Bed skirt, www.ralphlauren.com ····· 53
<그림 31> Fitted sheet, www.ralphlauren.com ····· 53

<그림 32> Bed spread, www.gmarket.co.kr ····· 53
<그림 33> Bed pad, www.nubizio.co.kr ····· 53
<그림 34> Blanket, 프리티하우스 ····· 54
<그림 35> Throw, www.ralphlauren.com ····· 54
<그림 36> Comforter, www.ralphlauan.com ····· 54
<그림 37> Quilt, www.orvis.com ····· 54
<그림 38> Duvet cover, www.ralphlauren.com ····· 54
<그림 39> 베개, www.gmarket.co.kr ····· 55
<그림 40> 장침, www.evezary.co.kr ····· 55
<그림 41> 사방침, www.evezary.co.kr ····· 55
<그림 42> 안석, www.evezary.co.kr ····· 56
<그림 43> 방석, www.evezary.co.kr ····· 56
<그림 44> 침대커버세트-1, www.evezary.co.kr ····· 56
<그림 45> 침대커버세트-2, www.evezary.co.kr ····· 56
<그림 46> 3점 세트류, www.phghome.co.kr ····· 57
<그림 47> 차렵류, www.ebedding.co.kr ····· 57
<그림 48> 기타, www.ebedding.co.kr ····· 57
<그림 49> 홑이불, www.ebedding.co.kr ····· 58
<그림 50> 누비이불, www.ebedding.co.kr ····· 58
<그림 51> 겹이불, www.evezary.co.kr ····· 58
<그림 52> 예단차렵, www.ebedding.co.kr ····· 58
<그림 53> 요, www.evezary.co.kr ····· 58
<그림 54> 보료, www.evezary.co.kr ····· 58
<그림 55> 침장류 활용사례-1, www.phghome.co.kr ····· 69
<그림 56> 침장류 활용사례-2, www.phghome.co.kr ····· 69
<그림 57> 침장류 활용사례-3, www.jamion.co.kr ····· 69
<그림 58> 침장류 활용사례-4, www.mall,shinsegae.com ····· 70
<그림 59> 침장류 활용사례-5, www.mall,shinsegae.com ····· 70
<그림 60> 침장류 활용사례-6, www.hclass.com ····· 70
<그림 61> 신부용-1, www.evezary.co.kr ····· 72
<그림 62> 신부용-2, www.evezary.co.kr ····· 72
<그림 63> 신부용-3, www.jamion.co.kr ····· 72
<그림 64> 혼례용-1, www.jamion.co.kr ····· 74
<그림 65> 혼례용-2, www.phghome.co.kr ····· 74

<그림 66> 혼례용-3, www.evezary.co.kr ····· 74
<그림 67> 아동용-1, www.ebedding.co.kr ····· 75
<그림 68> 아동용-2, www.evezary.co.kr ····· 75
<그림 69> 아동용-3, www.evezary.co.kr ····· 75
<그림 70> 계절용-1, www.design.co.kr ····· 76
<그림 71> 계절용-2, www.ebedding.co.kr ····· 76
<그림 72> 계절용-3, www.evezary.co.kr ····· 76
<그림 73> 웰빙용-1, www.evezary.co.kr ····· 77
<그림 74> 웰빙용-2, www.evezary.co.kr ····· 77
<그림 75> 웰빙용-3, www.evezary.co.kr ····· 77
<그림 76> 싱글 및 주니어용-1, www.akmall.com ····· 78
<그림 77> 싱글 및 주니어용-2. www.design.co.kr ····· 78
<그림 78> 싱글 및 주니어용-3, www.evezary.co.kr ····· 78
<그림 79> 박홍근-1, www.phghome.co.kr ····· 80
<그림 80> 박홍근-2, www.phghome.co.kr ····· 80
<그림 81> 박홍근-3, www.phghome.co.kr ····· 80
<그림 82> 자미온-1, www.jamion.co.kr ····· 81
<그림 83> 자미온-2, www.jamion.co.kr ····· 81
<그림 84> 자미온-3, www.jamion.co.kr ····· 81
<그림 85> 이브자리-1, www.evezary.co.kr ····· 82
<그림 86> 이브자리-2, www.evezary.co.kr ····· 82
<그림 87> 이브자리-3, www.evezary.co.kr ····· 82
<그림 88> 메종 드 이영희-1, www.leeyounghee.co.kr ····· 83
<그림 89> 메종 드 이영희-2, www.leeyounghee.co.kr ····· 83
<그림 90> 메종 드 이영희-3, www.leeyounghee.co.kr ····· 83
<그림 91> 겐조-1, www.kenzo.com ····· 84
<그림 92> 겐조-2, www.kenzo.com ····· 84
<그림 93> 겐조-3, www.kenzo.com ····· 84
<그림 94> 랄프로렌 홈-1, www.ralphlauren.com ····· 85
<그림 95> 랄프로렌 홈-2, www.ralphlauren.com ····· 85
<그림 96> 랄프로렌 홈-3, www.ralphlauren.com ····· 85

표 목차

[표 1] 아이템별 제품 규격 ····· 20
[표 2] 현대 섬유의 분류 ····· 31
[표 3] 현대 직물의 종류 ····· 33

작품 목차

[작품 1] 침대커버 세트-1 ····· 90
[작품 2] 이불·요 세트-1 ····· 93
[작품 3] 침대커버 세트-2 ····· 96
[작품 4] 침대커버 세트-3 ····· 99
[작품 5] 침대커버 세트-4 ····· 102
[작품 6] 침대커버 세트-5 ····· 105
[작품 7] 침대커버 세트-6 ····· 108
[작품 8] 침대커버 세트-7 ····· 111
[작품 9] 이불·요 세트-2 ····· 114

Abstract

A Study for the Application of Modern life style Bedding Design Development - Focusing on the Korean PatchWork and Wrapping of Clothing

Na, In-Seung
Advisor : Prof. Han, Sun-Ju. Ph.D
Department of Fiber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Chosun Univ

As our income and living standard have been getting higher along with economic growth, the concept of residence has changed and customers who consider their own characters as important wanted to pursue diverse life styles.

In our country which had rapid economic growth in 1970s, as the traditional Ondol houses were substituted by western-style apartment houses, which affected market of marriage articles, western-style bedclothes appeared. Instead of warm bedclothes, decorative bedclothes were preferred and as the concept of its design was expanded, many clothes designers have diverted their attention to bedclothes. Customers with good eyes for design products have had more need for new design of bedclothes.

In designing and developing bedclothes for our new life style we developed new and diverse fabric materials and markets of bedclothes reflect new consumption tendency pursuing higher quality.

In particular, by reinterpreting patch work blankets with Korean images as a motif in a modern sense, this study presented new bedclothes with original design to develop and expand bedclothes markets.

This study aims to speculate new styles of bedclothes with a concept of total design and develop directions which lead them to have more competitiveness. Based on bibliographical data and previous studies on bedclothes with diverse usages and brand bedclothes, this study analysed various kinds of bedclothes. And this study presented a potential of patch work blankets to be applied for bedclothes, which can be naturally harmonized with living space and have creative and original meanings and competitiveness.

This study pursued unique bedclothes by expanding ranges of creative design and intended to give them various colors and designs for artistic and practical meanings. Patch work blankets presented in the study have modern styles with uses of techniques such as embroidery and stitching.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is study has a meaning in that it provided new opportunities to recognize artistic values of bedclothes and to develop new attempts and presented possibilities to expand our attempts of bedclothes and to enhance competitiveness in design of bedclothes.

Ⅰ. 서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웰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주거생활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었고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짐에 따라 침장류 제품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197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대표적으로 전통적인 온돌문화에서 벗어나 서양식 좌식형태로 변화된 아파트의 대중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침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혼수문화로 인한 이불. 요의 제품이 주로 생산되다가 점차 침대에 따른 좌식형태의 제품들이 나오게 된다. 이는 보온성의 역할을 하던 침구의 개념에서 벗어나 장식성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되면서 침구의 두께나 형태, 디자인 등이 변화되었고 1990년대에 이르러 디자인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캘빈클라인, 베르사체, 에트로, 에르메스 등 다양한 외국브랜드의 국내진출로 인해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국민소득의 증대로 경제적 여유와 문화의식의 고조로 인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침장류에서도 수면환경의 중요성과 함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디자인, 실용성, 장식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들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섬유 소재 개발과 섬유 가공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침장류 제품들의 변화를 가져와 침장류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침장류 시장에 있어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독창성을 표현하기 위해 한국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전통의 현대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디자인을 세계화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새로운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침장류 개발이 섬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침장류에 있어서 용도별 종류와 소재, 제작기법등을 분류함으로써 토탈 디자인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된 침장류에 대해 연구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되는 침장류의 발전을 모색하며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조각보 관련 연구가 침장류에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디자인에 전개 시키고 침장류 시장에서 예술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추며 창조적이고 생활공간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확장된 의미로서의 침장류를 탐구하여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침장류를 재조명함으로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고 이에 맞는 침장류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전반적인 침장류 시장의 동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침장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침구의 역사, 종류를 중심으로 문헌 고찰하고, 용도별 침구류에서 브랜드별 침구류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침장류를 분석함으로써 확장된 의미로서의 침장류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또한 인테리어 컬렉션의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는 침장류는 최근 급속하게 고급화, 브랜드화, 명품화 과정을 거치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침장류의 소재, 제작기법, 트렌드 등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침장류의 동·서양의 역사 및 속통의 역사, 바느질 기법과 누비, 자수 등의 변천 과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둘째, 침장류의 사이즈, 시대별·나라별 소재 및 트렌드, 침장류의 품목 및 명칭에 대해 연구하였다.

셋째, 조각보와 퀼트의 개념을 정리하고 조각보와 퀼트를 비교 분석하였다.

넷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침장류를 용도별, 브랜드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위 연구를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분석하여 현대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 예술성과 실용성을 갖추어 확장된 의미로서 침장류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침장류에서도 주거생활에 대한 관념이 변하면서 전통적 소재와 품목 및 제작 방법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전통과 현대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독창적인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과거를 바탕으로 현대로 재해석 되면서 침장류 시장의 새로운 기틀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침장류 발생 이후 침장류의 변천과정 및 전반적인 침장류의 종류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현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침장류를 조명해보고 이를 토대로 참신한 침장류 디자인에 대한 방향을 추구하고자 한다.

Ⅱ. 침구의 역사

1. 동양

전통 침구인 이부자리는 이불(衾)과, 베개를 칭하는 침(枕)을 합쳐서 금침(衾枕)이라고 한다. 백제와 고려, 조선시대의 이불과 베개에 관한 기록을 통해 이 시대의 베개와 이불이 오늘날의 것과 비슷하며 예로부터 금침은 큰 변화 없이 전승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금침의 소재와 장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왕과 권력가들의 특권층을 중심으로 사용된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다. 특히 고려 말 무명이 사용되기 이전까지는 삼, 모시. 명주실 등의 소재로만 천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목화의 재배가 시작됨에 따라 무명직물을 이용한 침구가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사용되게 된다.

디자인에 있어서는 조선시대의 다양한 문헌에서 이불과 베개에 대한 역사적인 내력을 알 수 있는데 궁중용 침구, 특히 왕의 침구는 그 색채와 직물이 극히 호화로웠으며 솜이불, 누비이불, 겹이불, 천의(처네)등으로 다양한 품목이 사용되었다. 누비이불에는 오목누비, 중(中) 누비, 세(細)누비의 3종류가 있고 천의도 솜과 누비의 2종류였다. 색채는 남색, 초록, 분홍, 보라 등 다양하며 궁중 이불은 왕이 거처하는 방이 따뜻하기 때문에 솜을 얇게 두었고 추울 때는 이불 위에 천의를 포개 덮었으며 겨울용으로 도류단(挑榴緞) 가을용으로 명주류 여름용으로 항라(亢羅)와 같은 얇고 까슬까슬한 천이 쓰였다.

왕의 침구가 이처럼 호화롭고 특별했던 데 비해 평민의 것은 자료나 기록에 취급되지 않아 고증하기 어렵다. 침구를 유산이나 가보로 남기는 풍습이 거의 없어 실물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1)]

보통 이불 겉감으로는 양단, 명주, 모본단(模本緞)등을 쓰고 안감은 대개 면을 사용하며 색은 남녀용의 구별을 위해 남성용에는 감색이나 검정 등 침착한 색상에 자주와 홍색으로 배색하고 여성용은 좀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상인 초록 몸판에 다홍과 분홍으로 배색하며 남녀 모두 흰색의 동정을 달았다. 그러나 요즘은 깃이나

1) http://www.encyber.com 두산대백과

동정을 달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전통이불의 경우도 서양과 비슷하게 침구 품목과 소재에 따라 왕과 권세가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차이를 볼 수 있으며 오늘날에는 전통으로서의 침구뿐만이 아니라 안락감, 위생, 보온과 청량감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재료와 모양이 개량화 되어 다양해지고 있다.[2)]

동양에서는 11세기 송대에 우모를 이용한 침장류들이 사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경부터 우모가 충전된 속통침구의 사용을 시작으로 1975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다. 미국이나 유럽지역의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하는데 1990년도에 이르러서는 웰빙 붐과 침구의 고급화 등의 추세로 우모 침구류가 등장하여 이제는 주요 소비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2. 서양

인류의 수면공간은 낙엽과 건초가 깔린 바닥을 시작으로 수렵생활과 더불어 가죽과 털, 깃털을 사용하여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한 수면 환경을 조성했다.

서양은 문명이 발생한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를 시작으로 침대의 개념이 생겨나며 이때부터 린넨 소재의 베드 시트가 만들어졌다. 로마 제국 때는 양모, 깃털, 갈대를 집어넣은 매트리스와 침대가 형태를 갖추었고 1600년대에 비로소 전형적인 서구의 침대형태인 목재 프레임을 시작으로 청동, 은 보석과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침대가 등장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매트리스의 충전재뿐만 아니라 커버류도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데 짚이나 깃털을 넣은 실크 벨벳, 공단 소재에 화려하게 자수가 놓여진 커버가 희소한 고급 품목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화려한 장식과 문양은 중세에 이르기까지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대두되었으면 일반인들에게는 중세 이후에도 린넨을 사용하여 제작한 커버와 시트 사용으로 16세기부터 19세기의 인기 있는 혼수 품목으로 그 가치를 대변했다.[3)]

오늘날에는 합성소재의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소재와 개성 넘치는 디자인이 개

2) 『Retail University(상품교재Ver2)』 , (서울:이브자리 디자인연구소 2009), p.33
3) 위의 책, p.32

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생활양식이 서구화됨에 따라 침대는 전통적인 침구, 즉 이부자리를 대신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다양한 품목과 색상, 문양, 기법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생활양식 뿐 만 아니라 인테리어적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4세기경 북유럽에서는 듀벳(Duvet)[4]으로 된 이불에 깃털을 넣어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영국에서는 헨리 8세 (1491-1547) 때 왕궁에서 사용한 기록이 있다.

세계에서 우모이불이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독일에서 우모(羽毛)[5]이불이 제품산업으로 등장한 것은 150여년 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층은 그 희귀성 때문에 극히 제한되었다. 세계적으로 널리 전파되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20세기에 와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 진행되었던 유럽의 산업혁명을 통해 우모제품의 대량 생산체계와 제품품질의 향상 및 규격화를 위한 제조공정의 기계화가 진행되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듀벳의 충전재로 양모나 우모, 최고급의 거위털을 사용할 뿐 아니라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소재의 기능성 소재까지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3. 혼례용 침구

예단이란 본래 신부가 시댁에 드리는 '비단'에서 유래했다. 옛날에는 비단이 귀했기 때문에 가장 귀한 비단을 신부가 시집가는 집안에 선물로 드려 예를 표했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비단을 보내면 신부가 직접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옷을 곱게 바느질해 다시 보내고 신랑 집에서는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수공비를 신부에게 보냈다고 한다. 예단의 본뜻은 이처럼 가장 귀한 것을 정성을 다해 드린다는데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예단의 의미도 퇴색해져 가고 있다.[6]

그중에서 침장류는 가장 기본적인 품목이다. 특히 장남이 결혼할 때는 시어머니가 시집올 때 해왔던 오래된 이부자리를 새것으로 바꿔드린다는 의미에서 예단으로 보낸다. 예단 세트 구성은 이불과 요 한 벌과 방석2개, 베개2개가 기본으로 여기에 여름이불이나 보료, 누비이불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시부모용 예단이불은 전

4) 듀벳(Duvet) : 속통, 즉 솜을 씌우는 커버
5) 우모 : 수조류 (거위, 오리)의 솜털과 깃털
6) CASA 『꼭 알아야 할 품격 있는 결혼예절 예단』, (서울:시공사 2007), P.6

통적으로 황금바탕에 대추색 띠를 두른 것으로 부귀와 장수, 자손 번성의 뜻을 담고 있다.[7]

본래 명주, 모본단, 삼색단 등의 소재로 만든 명주이불은 이불 호청 역시 명주를 사용하며 세탁이 용이하도록 면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현대에 와서는 솜을 넣고 분리가 가능하도록 지퍼식으로 만들어 요즘 생활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4. 나라별 침장류

고대로부터 인간이 직물을 사용한 자료들은 그들이 자연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의 산물이며 인류문명 발전의 중요한 척도이다. 직물 유물에는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변 국가와의 상호 영향이 뚜렷하게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한 국가의 경제, 정치, 사회풍속, 미적 관념 등을 알 수 있다.[8]

1) 한국

이불(衾)은 잘 때 몸을 덮기 위하여 피륙[9]과 솜 등으로 만든 이부자리로, 핫이불·차렵이불·처네·누비이불·겹이불·홑이불 등이 있다.

핫이불은 솜을 두어서 만든 솜이불을 말하며, 주로 겨울용으로 비단에서 무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감으로 만든다. 재래식에 의하면, 겉을 남자는 흔히 남색 또는 자주색으로 하고 홍색 깃에 흰색 동정을 달았으며, 여자는 연두색에다 홍색깃과 흰색 동정을 달았다.

차렵이불은 차렵으로 된 이불을 말하며, 차렵이란 솜을 얇게 두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크기는 핫이불 정도이나 솜을 얇게 두어 봄·가을에 사용하였는데, 감도 이에 맞게 숙고사·숙인·숙수 등의 얇은 감에 다소 엷은 빛깔의 것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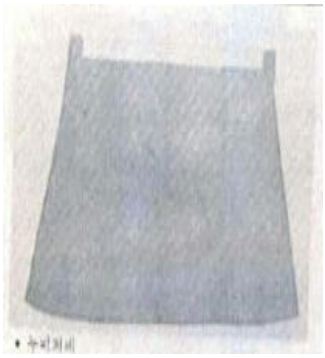
처네는 보통 이불 크기보다는 좀 작고, 안팎 양쪽으로 쓸 수 있도록 안팎을 각자 다른 색으로 하였으며, 솜도 차렵이불과 같이 얇게 두어 이불 속에 안 이불로 쓰기도 하고, 낮잠 자는 데 가볍게 쓰기도 하였으며, 더욱 작게 만들어 어린아이를 업

7) 앞의 책, p.20
8) 『중국 직물의 태동과 역동』, (서울:숙명대학교 정영양자수박물관 2009), p.82
9) 피륙 : 직물의 총칭으로서, 특히 옷감이 될 만한 천으로 아직 끊지 않은 바탕천

을 때 두르기도 하였는데, 주로 명주에 물을 들여 사용하였다. <그림1>

누비이불은 보통 줄이 지게 누벼서 만든 이불을 말하며, 핫이불보다는 약간 작은 치수로 하여 부드러운 비단 ·명주 또는 부드럽고 얇은 무명으로 만들고, 깃 ·동정도 달아 누빈 것이었는데, 차렵이불을 덮을 무렵부터 늦봄까지 사용하였다. <그림2>는 광복이후에 손바느질로 누벼 만들어진 누비이불이다.

겹이불은 안에 솜을 두지 않고 겹으로 꾸민 이불로서 여름용이며, 흔히 생사 또는 모시에 물을 들여 만들었는데, 빛깔은 옥색 ·분홍색 ·연두색 등으로 하고, 구조는 보통 이불과 같았다. <그림3>은 온양 박물관 소장의 모시 겹이불이다.



<그림1>누비처네(아기이불)
출처 : 누비소고

<그림2> 누비 이불
출처 :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그림3> 겹이불
출처 :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홑이불은 안을 두지 않은 겹으로 된 이불로서 여름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고운 천으로 만든다. 홑청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이불이나 요의 안쪽에 대는 홑겹의 천으로 이불의 부속품으로 보기도 한다. 최근에는 겹이불 대신 홑이불을 사용하기도 한다.

요(褥)는 사람이 누울 때나 앉을 때 배기지 않도록 방바닥에 까는 침구(寢具)의 일종으로 속에 솜, 짚, 털 등을 넣는다. 요는 속에 속을 넣고 그 다음 비단을 요 뒤에 대고 요 위를 시친다. 그런데 대체로 여름에는 요 위에 돗자리를 깔거나 천으로 요 홑이불을 시쳐서 더위를 막고, 겨울에는 무명으로 요 홑이불을 시쳐서 쓴다. 이 밖에도 모직담요, 혼방담요, 밍크이불 등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일상용, 혼수용 등으로 다양하게 쓰인다.

베개는 누울 때 머리에 베는 도구로 베개는 중간에 창구멍이 있어 그 곳을 통하여 속을 넣게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용은 좁쌀 ·수수쌀 같은 곡물을 넣고, 어른용은

메밀 깍지 ·왕겨 ·짚 등을 넣어서 사용한다. 베개는 장소에 따라 형태, 크기, 무늬가 다른 것을 사용했는데 목침(木枕)과 죽침(竹枕)은 대개 남자가 기거하는 사랑방에 비치하고 수침(繡枕)과 나전침(螺鈿枕)은 일반용이거나 부녀자용으로 안방용으로 많이 쓰였다. 목침은 여름철에 주로 사용했고 상류사회에서 쓰던 것은 세공이 뛰어난 예술작품이 많았다. 죽침은 청렴을 상징하는 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문인(文人)들이 주로 사용했으며 청량감이 있어 주로 여름철 휴식용으로 즐겼다. 수침은 베겟모 양쪽에 수를 놓아 만든 것으로 수침은 왕실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었다.[10]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 서양식으로 만들어진 베개도 사용되며 옛 것과 형태나 디자인 면에서 거의 비슷한 칩베개 등이 사용된다.

그 밖에도 보료, 침대이불, 모시이불 등이 있다. 옛 것이 변하지 않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옛 것을 바탕으로 생활양식에 맞춰 변하는 경우도 있다.

보료는 진사 벼슬 이상의 가문에서만 사용하던 것으로 안방이나 사랑방 등의 방치레로 항상 깔아두었던 것이다. 보료는 방석이 5개인 '구반석'이라 불리는 전통보료와 숫자를 간소화한 약식 보료가 있다. 전통 보료는 요와 등받이 1개, 크고 작은 팔 걸치개 각 1개, 방석 5개를 포함하는데 요즘에는 요와 등받이 1개, 방석 2개로 구성한 약식보료를 많이 한다. 예전에는 짚을 넣어 딱딱하게 만들었지만 요즘에는 목화솜을 넣고 분리가 가능하도록 지퍼식으로 만들어 요즘 생활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소재는 주로 명주, 수직, 칠색단 등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침대이불은 요즘 50~60대 이상의 부모님들도 침대 생활이 많아져 침대 세트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불, 침대커버, 베개 2개가 세트로 주로 실크, 양단, 폴리에스테르 소재를 사용한다. 어른들의 취향과 인테리어에 맞춰 디자인과 색상을 선택해야하며 손님용을 겸해 한실이불을 한 채 정도 더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모시이불은 보통 한여름 모시 소재로 만든 이불이다. 예로부터 한산모시를 사용하며 천연 염색으로 은은하고 그윽한 색감이 빼어났다. 모시이불은 길이가 작은 것이 보통이었으나 요즘에는 침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200-230cm로 크기가 커진 것이 특징이다. 또 흔히 모시이불하면 홑겹으로 생각하나 요즘에는 몸에 달라붙어 구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에 얇은 솜을 넣어 만들기도 한다. 모시는 안에 시접을 넣으면 솔기가 보이고 두꺼워져 꺽이므로 재봉틀로 눌러 박거나 깨끼바느질을 한다.

---

10) 박지연 「조선시대 침구(寢具)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9-13

2) 일본

일본의 이불은 다다미나 침대 위에 깔아서 사용하는데 크게 사람이 눕기 위한 시키후통(Mattress)과 덮기 위한 카케부통(Duvet)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말로 이불을 '후통(布団)'이라고 하는데 원래 '포단(蒲団)' 이라고 쓰여 포(蒲)[11]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깔개에서 유래되었다. 현재는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하게끔 되어 포단(蒲団)이라고 쓰이며 후통이라고 불리워 진다. 후통뿐만 아니라 후통을 싸는 커버를 덧붙여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불 안에 면(綿), 폴리에스테르등의 화학섬유, 우모(羽毛), 양모(羊毛)등을 채워 넣어 오래 사용하거나 세탁을 하여도 모양이 변하지 않도록 실로 고정하여 사용한다. 면과 화학섬유는 카케부통에도 시키후통에도 모두 사용되어지지만 우모는 주로 카케부통에 양모는 주로 시키후통에 사용되어진다. 같은 재질인 경우 일반적으로 두께가 있는 쪽이 보온의 효과가 높지만 너무 두꺼울 경우 무거운 무게 때문에 압박감을 주거나 형태가 변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추운 계절에는 카케부통을 덮기 전 하다부통(肌布団)이라고 하는 직접 피부에 닿는 가벼운 이불을 병용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더운 계절에는 후통이 두꺼울 경우 더위를 느껴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얇은 카케부통을 사용하거나 카케부통 대신 타올켓트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시키부통은 다다미 위에 깔고 사용하는 것이 전통이였지만 현대에서는 침대위에 직접 깔거나 매트리스를 깐 후 그 위에 매트리스 토퍼대신 시키부통을 까는 경우도 있다. 다다미에 까는 후통은 매일 취침전에 넓게 깐 후 기상 후 다시 접어 수납하는 것이 관습화되어져 있다. 이것을 후통노 아게오로시(布団のあげ-おろし)라고 부른다. 후통을 내리고 올리는 것으로 방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방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후통을 다시 접지 않고 깔아져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을 만넹도코(万年床)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결하고 게으르다는 의미의 대명사로도 쓰인다고 한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햇볕에 이불을 자주 널어 일광 소독을 하는데 현대에 와서는 방의 일조(日照)와 생활시간의 문제, 경관상 문제등으로 인하여 후통

11) 포(蒲) : 참억새로 볏과의 여러해살이풀, 산야에 난다. 억새의 원종으로 줄기 높이는 1.5~2m이며 가을에 황갈색 또는 자갈색 꽃이 피며 줄기와 잎은 지붕을 이는데 쓰인다.

을 햇볕에 널 수 없는 곳도 많아져 이런 경우를 대신하여 후통건조기(布団乾燥機)를 별도로 이용하여 수분을 줄이는 곳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후통을 보관할 때 또는 이사할 때에는 후통 주머니를 뜻하는 후통부쿠로(布団袋)라는 커다란 주머니에 후통을 넣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전 이불보와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손님용 후통이나 계절에 맞지 않는 후통을 보관할 때에는 커다란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수납장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데 전기 청소기로 후통 내부의 공기를 빨아내어 콤팩트로 만들 수 있는 후통 압축주머니가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후통은 크기에 따라 싱글, 더블, 그 사이의 세미더블로 분류되며 침구가 아닌 앉을 때 사용되어지는 자부통(座布団,방석)도 후통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코타츠(こ-たつ)[12]에 덮어 사용되는 것은 침구는 아니지만 코타츠 후통(こ-たつ布団)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후통은 크게 멘 부통(綿布団, 면 후통), 우모 후통(羽毛布団), 하네 후통(羽根布団, 우근 후통), 요우모우 후통(羊毛布団, 양모 후통), 카센 후통(化繊布団, 화학섬유 후통)으로 분류된다.

멘 부통(綿布団, 면 후통)은 일반적으로 진면(眞綿), 목면면(木綿綿)을 중량대비 50%이상 중면(中綿)으로 사용하는 것을 면후통 이라고 부른다. 예로부터 일본의 후통의 소재로 친근하게 사용되었으며 세계 각지에서도 애용되어지고 있다.

우모 후통(羽毛布団)은 물새의 솜털을 중면(中綿)에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중량대비 50%이상인 경우 우모 후통 이라고 부른다. 물새의 가슴부위의 매우 가볍고 보온성, 보습성이 풍부한 재질 덕분에 고급 우모 후통으로 판매되어진다. 우리나라의 우모속통과 같은 것을 말한다. 물새의 종류는 크게 거위, 오리로 나눌 수 있는데 거위가 그 중 고급 품질에 속한다. 우모 후통의 경우 생산지 표시에 유의해야 하는데 99%가 중국산, 1%가 헝가리산을 들어가 있다면 헝가리 산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하네 후통(羽根布団, 우근 후통)은 우모(羽毛)보다 심지가 단단한 물새의 우근(羽根, feather)을 중면(中綿)으로 사용한 것을 우근 후통 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일반적인 우모 후통 보다도 보온성이 떨어지지만 우모와 틀리게 우근은 대량의 채취가

12) 코타츠(こ-たつ) : 각로(脚爐). 일본의 실내 난방 장치의 하나로 나무 틀에 화로를 넣고 그 위에 이불·포대기 등을 씌운 것이다. 이 속에 손·무릎·발을 넣고 몸을 녹이는 용도로 사용한다.

능성 때문에 유통되는 후통 중에서도 이 우근 후통에 한하여 저렴한 가격이 형성되었다. 최근에 일본에는 이 우근 후통을 세토로 한 저렴한 후통 세트가 증가하였고 저렴한 가격으로 쾌적한 우근 후통의 성질을 악용하여 고급 우모 후통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

요우모우 후통(羊毛布団, 양모 후통)은 양모를 중면(中綿)에 사용하여 제작한 후통을 양모 후통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모 후통과 면 후통에서 볼 수 있는 푹신함 즉 유연성에서는 떨어지지만 양모가 가지고 있는 탄력성, 보온성은 뛰어나 카케부통보다는 시키부통으로 매우 뛰어난 후통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카센 후통(化繊布団, 화학섬유 후통)은 화학섬유를 중면(中綿)에 중량대비 50%이상 사용한 것을 카센 후통이라고 부른다. 저가 후통으로써 인기가 있으며 유명한 것으로는 듀퐁사의 Hollofil 과 Quallofil등의 면을 사용한 것이 있다.[13]

5. 제작기법

1) 자수

자수의 역사는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동물의 뼈로 바늘을 만들어 가죽이나 털 등으로 몸을 감싸는 의류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누에를 쳐서 비단을 짰다고 하며 삼국사기를 보면 백제에서는 수놓은 비단 옷을 입었으며 일본에 들어가 자수와 염색의 기술을 전했다고 한다. 그 증거의 하나로 현재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중궁사(中宮寺)의 '천수국만다라수장(天壽國曼陀羅繡帳)'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삼국시대에는 한국전통자수의 생성기라고 볼 수 있다. 통일신라에서는 귀족과 궁중에서 수를 놓은 의류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집안 생활용품까지도 수를 놓아 만들었다. 또한 불교가 성행했으므로 불교자수가 발달하게 된다. 그 영향을 받은 고려시대에도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종교적으로 불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수가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억불숭유정책으로 말미암아 불교문화에서 자수가 화려하게 장식되는 것은 쇠퇴되고 조선시대의 청빈사상이 담긴 유교정신이 자수에도 나타나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서민의 삶을 담은 소박하고 자연스런 생활자수가 널리

13) Wikipedia Japan, http://ja,wikipedia..org

보급되어 왔다. 물론 궁중에서 자수가 의류에 널리 사용되었는데 그 수효를 충족시키지 위하여 수방(繡房)을 두어 자수품을 만들게 했으므로 궁중의 격이 살린 자수가 보존될 수 있었다.

자수실의 재료는 거의 견사라고 볼 수 있고 천연염색을 한 후에 반푼사와 실을 꼬아서 만든 꼰사를 쓰는데 실을 꼬을 때에 실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오른쪽으로 꼰실과 왼쪽으로 꼰실이 있다. 표현효과에 따라 적절히 사용한다. 반푼사는 넓은 면적을 메울 때에 사용하고 꼰사는 실이 규칙적으로 꼬임이 있어 쉽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으므로 세세한 표현을 할 때에 많이 사용한다. 주로 많이 사용했던 기법으로는 점수, 선수(이어놓기수, 이음수), 평수(매끔수), 징금수, 자련수, 자릿수 등이 있다.[14]

자수를 크게 용도별로 나누어 보면 불교자수, 생활자수, 감상용(병풍)자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불교자수의 내용은 수불, 가사. 불방석, 다라니 주머니, 탁의 등 그 종류가 다양하며 기법의 특징은 주로 자련수법으로 작품 연대가 올라갈수록 가는 실을 썼고 내려올수록 굵은 실을 썼다. 생활자수로는 공복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흉배 등의 자수가 있고 감상용 자수로서 병풍 등은 회화성을 지니고 있으며 바탕그림에 따라 산수도, 화조도, 십장생도, 백수전도 등이 있다. 이 같은 변천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전통적 한국자수가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제품이 대량화되면서 전통자수의 시간적 제한성으로 인해 고가의 제품군이나 수공예품에서만 전통자수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대부분 제품을 미싱자수로 제작하여 왔으나 이마저도 컴퓨터 자수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미싱자수는 다양한 문양이나 배치, 칼라의 제약 없이 도안을 표현할 수 있어서 전통자수와 비슷한 깊이감과 화려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전통자수보다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기는 하나같은 도안, 같은 칼라라 해도 제작하는 사람과 주변의 환경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양산체계의 제품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미싱 자수의 단점을 보완하여 컴퓨터 자수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요즘 대부분의 의류나 침장류에서는 컴퓨터 자수를 이용해 제품을 제작하고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도안을 하고 바늘이 지나가는 자리를 지정해 줌으로써 균일하게 자수가 되어져 나오고 한 번에 많은 양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칼라가 최대 9가지로 제약이 되어있고 한 모티브의 최대 사이즈가 정해져 있으며 다

14) 김옥광 「조선시대의 보자기에 나타난 문양 연구」, 한국공예학회 논문집, 1999, p.94

양한 기법 등을 사용할 수 없어 단순하고 깊이감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단점 등을 보완하여 새로운 컴퓨터 자수 기계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다양화 되어 지고 있다.

2) 누비

2겹의 피륙 사이에 솜을 넣고 줄줄이 홈질하는 바느질을 말하는데 피륙의 보강과 보온을 위한 기법으로 몽골[蒙古]의 고비 사막 일대에서 시작되어, BC 200년경 중국과 티베트에서 쓰였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초기의 유물에서 누비옷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치마 ·저고리 ·포(袍) ·바지 ·두의(頭衣) ·신발 ·버선 ·띠 등 옷가지와 침구, 보(褓)에 이르기까지 누비가 다양하게 쓰였다. 이들은 대개 솜이 떨어짐을 막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장식성도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선시대 이전의 누비 실물은 발견된 것이 없어 그 기법이 어떠하였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나, 일본 나라[奈良]시대의 정교한 누비옷 유물이 있음을 보아, 한국에서는 이보다 앞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누비를 해 왔을 것임에 틀림없다.[15]

<그림4> 잔누비
출처 :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그림5> 중누비
출처 :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그림6> 드문누비
출처 :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누비이불에서 나타난 누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종류를 살펴보면 잔누비<그림4>, 중누비<그림5>, 드문누비<그림6>, 오목누비<그림7>, 납작누비<그림8>, 세주누비, 잔족누비가 있다. 이러한 누비의 명칭은 누비의 기법과 형태를 구분하여 이름 지은 것으로 잔누비나 세누비는 거의 같은 종류의 누비로 0.3cm 내외의 간격

15)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으로 솜을 얇게 두어 촘촘히 누빈 방법을 말한다. 세주누비와 잔족누비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7> 오목누비
출처 :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그림8>납작누비
출처 :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또한 천을 누벼서 만든 누비보는 궁중에서나 일반 서민들에게 모두 골고루 사용되었던 보자기인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철이 길고 춥기 때문에 겨울철에 사용한 누비보는 보온을 위한 상보로 많이 보여 진다. 일반인들은 면뿐만 아니라 명주에도 솜을 두어 누비상보와 누비보자기를 제작하였고 누비보 뿐만 아니라 가구의 덮개나 깔개보료도 사용하여 가구나 보석함의 안쪽 바닥에 깔아 물건을 보관하였다.

누비의 기법은 땀의 폭이 가늘고 좁은 것은 0.2cm정도이며 누비의 땀선의 폭은 0.7cm에서 1cm까지이며 땀의 폭이 큰 것은 0.5cm정도이고 땀선의 폭은 5cm에서 7cm정도도 있다. 물론 땀폭과 따선의 폭이 큰 것은 일반 서민들의 것이며 궁중에서는 일정한 규격을 지키고 있다. 서민들의 누비보에는 땀선이 일직선이 아니고 사선도 많으며 만든 이의 정감이 드러나는 재미있고 부드러운 곡선의 묘미를 살린 것들도 있다.

서양복식에서도 누비는 12세기 십자군에 의하여 사라센에서 도입된 후, 널리 애용되었다. 퀼팅(quilting)이라 불리는 서양 누비는 누비무늬를 나타내는 장식성에 주안을 둔 기법으로, 지역과 특성에 따라 잉글리시 퀼팅, 이탈리안 퀼팅, 패치워크 퀼팅 또는 아메리칸 퀼팅 등으로 나눈다. 누비기법은 현대복식에서도 방한에 널리 이용되며, 1970년대 말경에 들어서는 중국 모드의 유행과 함께, 중국식 솜 누비옷 모양의 퀼팅이 패션의 한 모티브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요 몇 년은 패딩파카가 사

랑받고 유행하는 아이템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자동차의 생활화와 난방이 잘되는 요즘은 패딩파카의 중량이 점점 최소화 되어 경량성을 지닌 제품들이 더욱 사랑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누비는 서양의 퀼트와 크게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데 여러 색의 조각천을 이은 천에 솜을 두어 누비는 서양의 일반적인 디자인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고 단색 천이나 단색 조각천에 솜을 두어 주로 누비를 하였고 서양의 퀼트 디자인들은 조각을 기하학적으로 연결하여 솜을 두고 누벼서 단단하면서 다양한 그림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 누비보는 동색천을 누비는 것이 일반적이며 여러 색을 사용하는 조각보와는 구별된다.16)

<그림9> 꽃무늬 누비
http://www.evezary.co.kr

<그림10> 다이아몬드 누비
http://www.evezary.co.kr

<그림11> 물결무늬 누비
http://www.evezary.co.kr

현대에 와서는 주로 침장류에 누비가 많이 사용되어 지고 의류에는 겨울용 의류에 간혹 사용된다. 침장류는 침대커버, 패드, 면 요 커버 등에 주로 누비가 되어 지며 간혹 이불이나 베개커버에도 사용되어 지는데 단순한 패턴보다는 화려한 패턴을 주로 사용하므로 복잡한 패턴도 가능한 자수누비기계를 이용하여 제작한다. 그 밖에 침장류에는 주로 미싱 누비와 컴퓨터 누비를 이용한다. 미싱 누비는 주로 사이즈 맞춤이나 자체제작해서 사용할 때 주로 쓰이며 패턴에 제약을 받지 않고 누비형태를 만들 수 있으나 나오는 수량이 정해져 있어 대량으로 제품을 제작할 때는 부적절하고 컴퓨터 누비에 밀려 미싱 누비를 하는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실정이다. 이에 양산체계에서는 주로 컴퓨터 누비를 이용하는데 기본적인 세누비, 중누비의 패턴은 물론이고 <그림9>는 꽃무늬, <그림10>은 다이아몬드 무늬, <그림11>

16) 김옥광 「조선시대의 보자기에 나타난 문양 연구」, 한국공예학회 논문집, 1999, p.8

은 물결 무늬 등 다양한 패턴들이 일정한 규격안에서 모티브를 이루고 있다. 간단한 누비패턴에서부터 복잡한 누비 패턴까지 침장류의 컨셉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제작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누비할 수 있고 바늘땀, 모티브 등이 균일하므로 상품성을 갖추게 된다.

3) 바느질 기법

바느질 기법에는 시침질, 홈질, 감침질, 쌈솔, 가름솔, 깨끼 등이 있다.

첫 번째로 시침질은 천을 연결할 때 먼저 굵은 실로 바느질을 엉성하게 하여 천을 이어줌으로 본 바느질을 할 때 쉽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실행하는 바느질 기법이다. 또 조각천의 형태를 만들어 줄 때에 얇은 종이를 천안에 넣고 시접을 오므릴 때에 엉성하게 하는 바느질 기법을 말하며 땀의 길이는 2~3cm 정도이다.

두 번째로 홈질은 두 장의 천을 연결할 때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촘촘하게 꿰매는 방법이다. 땀질의 폭이 0.15~0.2cm 정도이다.

세 번째로 감침질은 형태대로 얇은 종이를 천안에 넣고 시접을 오므려서 시침을 뜬 조각들을 실로 감쳐주듯이 겉면에서 연결하는 방법으로 작은 면을 연결할 때에 사용한다. 또 감침질은 한 땀씩 떠야 하므로 바늘에 실을 너무 길게 꿰면 바느질하기에 불편하고 중간에 실이 꼬여 끊어지게 되므로 바느질 할 부분의 3배 정도가 적당하다. 영국의 전통적인 퀼트작업에서도 많이 사용된 기법이다.

네 번째로 쌈솔, 이 기법은 두 장의 천을 연결할 때에 한 장의 천의 시접을 다른 한 장의 천보다 조금 길게하여 시접을 감싸주고 바느질하는 방법으로 다른 기법에 비해 튼튼하며 세탁도 강하다. 또한 조각을 연결한 쌈솔의 선이 나타나므로 아름다운 선, 면이 구성의 미를 자연스럽게 잘 표현하여 준다. 이렇듯 홑겹의 제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얇은 모시천과 얇은 견섬유(갑사)등에 많이 애용되었다.

다섯 번째로 가름솔은 시침질이 된 두 장의 천을 겉끼리 맞대어 놓고 홈질이나 감침질을 한 후에 시접을 갈라 다림질하여 놓거나 손톱으로 눌러서 나누어 놓는 방법을 말한다. 가름솔로 조각천의 시접을 연결한 것은 겹보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에 침장류 제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으로 거의 모든 이불류나 베개류의 바느질에 이 바느질 기법이 사용된다.

여섯 번째로 깨끼가 있는데 얇은 비단, 모시, 노방을 사용하여 만들 때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올이 풀리지 않게 하면서 가는 선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다. 두 겹을 마주 붙여서 5mm밑을 곱게 첫 번째 박음질을 하고 홈질한 부분을 꺽어 접고 1mm밑을 두 번 박음질한다. 박음질한 밑 부분의 여분 시접은 바짝 잘라내고 다시 한 번 접어서 3번째 박음질한다. 총 3번의 박음질을 하게 되므로 가늘게 해야 곱게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접을 자를 때 가늘게 되도록 잘라 주어야 한다. 투명한 옷감에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으로 솔기가 가늘고 튼튼하고 가는 선이 생겨 시원한 느낌을 준다. 주로 여름 모시 이불이나 모시 옷, 상보 등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며 요즈음도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바느질 기법 중의 하나이다.[17]

이 같은 전통적인 바느질 기법이 규방공예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고 전통에 바탕을 둔 현대적인 새로운 상보, 가리개, 러너, 테이블 매트, 컵받침 등의 규방공예 제품들이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어 우리의 미적 양식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며 옛 것에 대한 상징적의미를 갖게 되었다.

17) 이세희 「한국전통 조각보를 응용한 침구 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p.32

Ⅲ. 침장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사이즈

각 문헌을 통해 본 이불의 크기를 관찰 한 결과 시기에 상관없이 가로길이가 약 180cm · 세로길이는 약 210cm정도였다고 한다.[18]

조선시대에 사용된 이불의 실제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유물로는 「사당동 출토 흥곡공파 동래정씨」의 출토 유물 중 솜이불 2점을 들 수 있다. 두툼하게 솜을 둔 이불에는 여러 곳에 실로 솜이 움직이지 않도록 징그어 둔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이불의 크기는 가로 173.5cm · 세로 230cm / 가로 175.5cm · 세로 231cm 두 종류이다. 요즘 예단용으로 판매되는 이불의 크기인 가로 180cm · 세로 220cm와 비교해 볼 때 거의 같은 크기임을 알 수 있다.

<그림12>는 가로 177cm · 세로 213cm로 광복 이후에 만들어진 솜이불이다. 이렇듯 이불의 형태는 궁중용과 민간용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으며 조선시대부터 오늘날 까지 크기와 형태에 큰 변화 없이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12> 솜이불
제주 민속박물관 소장

[규합총서][19]에 다르면 요의 크기는 폭 70cm · 길이 187cm정도가 된다고 하며 요를 만드는데 있어서 길이와 넓이의 비율을 적절히 하여야 아름다운 요를 만들

18) 박지연 「조선시대 침구(寢具)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52
19) 규합총서(閨閤叢書) : 1809년(순조 9년) 빙허각(憑虛閣) 이씨(李氏)가 엮은 생활 경제 백과사전으로 의식주에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 체계화한 책이다.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朝鮮の服裝]에는 요는 대략 폭 90cm · 길이 175cm라고 하였다.

요즘 혼수용 예단이불중 요의 크기가 폭 140cm · 길이 215cm 정도로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크기이며 싱글용 요 커버는 폭 105cm · 길이 200cm이다. 조선시대 요는 현재 싱글용 요 커버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 사용되었던 요는 요즘 혼수용 예단 요와는 달리 일인용의 요를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민간에서 사용된 요의 크기는 시대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궁중에서 사용되던 요는 겉에서 보기에 요잇을 넓게 시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형태에 있어 민간용 요와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20] 그 밖의 양실 침장류의 사이즈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며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표 1>에서와 같이 사이즈를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규격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1> 아이템별 제품 규격

분류	품목	크기	분류	품목	크기
요커버	주니어S	105×185	간이보료세트	요커버	130×210
	S	105×200		장침커버	50×100
	D	125×205		방석커버	60×60
	Q	140×210	인견겹이불		170×210
이불커버	S	160×210	베이비세트	이불	115×145
	D	180×220		요	105×130
	Q	200×230		베개	20×30
차렵이불	S	160×210	전통보료	보료	100×200
	D	180×220		장침	23×62×23
	Q	200×230		사방침	23×23×23
여름이불	S	160×210		등받이	53×53
	D	180×220		방석	60×60

20) 앞의 논문, p.63

스프레드	Q	245×270	베개커버	S	40×60
침대커버	S	100×200		L	50×70
	Q	155×210		2인	50×120
매트리스커버	S	100×200		원	18(지름)×47
	SS	110×200		주니어	30×70
	Q	150×205	한실 요이불	이불	180×220
패드	S	105×210		요	135×210
	SS	115×210		방석커버	60×60
	Q	155×220			

2. 소재

1) 섬유의 분류

섬유(纖維, fiber)는 대단히 길고 가늘며 연하게 굽힐 수 있는 천연 또는 인조의 선상(線狀) 물체를 지칭하는데 직물의 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편물, 로프, 그물, 펠트 등 섬유제품의 원료 및 제지(製紙)의 원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침장류에 사용되는 섬유는 크게 주원료에 따라 천연섬유와 친환경 섬유, 화학 섬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천연섬유(Natual fiber)에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면(Cotton), 마(Linen), 견(Silk), 양모(Wool) 등으로 나뉜다.

친환경 섬유(Eco friendly fiber)에는 기능성을 강조한 콩섬유(Soy fiber), 종이섬유(Paper fiber), 대나무섬유(Bamboo fiber), 텐셀(Tencel), 숯섬유, 은섬유(Silver fiber) 등이 있다.

화학섬유(Chemical fiber)에는 재생섬유(Regenerated fiber)인 레이온(Rayon)과 합성섬유(Synthetic fiber)인 폴리에스테르(Polyester)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섬유를 종류별로 분류해 보았다.

가. 천연섬유

(1) 면 (Cotton)

면(Cotton)은 식물성 섬유로서 목화가 주원료이다.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1/4을 생산하며 미국은 세계 시장의 1/3을 수출하는 등 대부분의 면은 중국과 미국에서 생산된다고 할 수 있다.

면의 내부는 중공(Lumen)이라는 원형질 구멍이 있다. 수분율이 8.5%이며 극한 습도 상태에서 25%까지 상승하며 내열성이 강하고 다리미 온도는 220도로 높은 곳에 위치한다. 또한 내구성, 흡습성, 보온성이 뛰어나며 정전기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 젖으면 산도와 신도가 증가하며 태우면 종이 타는 냄새가 나며 끝에 까만 탄자국을 남긴다. 그리고 구김이 잘 생기는 단점이 있으며 수축이 발생한다. 보통 4% 이내의 수축은 통상적으로 허용된다

면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해도면(Sea island cotton), 이집트면(Egypt cotton), 육지면(upland cotton), 중국면(China cotton), 인도면(India cotton), 오가닉 면(Organic cotton)등이 있다.

해도면(Sea island cotton)은 미국 남부 해안 지대에서 한정적으로 재배되는 부드럽고 광택이 있는 극상 품질의 면이다. 해도면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조지아주・플로리다주 등지에서 재배되며, 솜털이 대단히 길고 섬세하여 120번수 이상의 가는 실을 방적할 수 있어서, 세계 최고급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집트면(Egypt cotton)은 해도면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품질의 고급 면에 속하는데 이집트면은 이집트면・해도면・육지면의 잡종을 개량한 것으로, 아리조나 지방을 중심으로 뉴멕시코・텍사스 지방 등지에서 재배되며, 매우 긴 섬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해도면, 이집트 면 이 두 종류는 생산량이 적고, 미국면의 대부분은 육지면이 차지한다.

육지면(upland cotton)은 단섬유(短纖維)의 것이 많고, 미시시피강 유역의 목화지대를 주산지로 하며, 캘리포니아・아리조나 지방에도 생산된다. 재배 ·수확의 기계화와 종자의 표준화 등으로 인하여 수확량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솜털은 길이 13~33mm 정도로 비교적 섬세하다. 전생산량의 60~70%를 자국에서 소비하고 나머지를 수출하고 있다.

중국면(China cotton)은 보통 국내 수입 원사의 대다수 양을 차지한다.

아시아면(Asia cotton)일찍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재배되었던 재래종으로 인도에서는 옛날부터 재배하였고, 이란·중국·한국·일본 등지에서 집약적인 재배를 하였다. 미국에서는 재배되지 않고 있으며 조숙성으로 고위도 지방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섬유가 짧고 꼬임성이 적어서 방적용으로는 부적당하다. 그래서 카펫, 담요 등 품질이 낮은 섬유를 사용하는 데 쓰고, 특히 양털과 섞어서 쓰는 데 적합하다.

인도면(India cotton)은 품질이 다소 나쁘고 저가 면으로 취급된다. 여러해살이풀 목본으로 인도아라비아·아프리카에서 재배하였고, 가장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인도 이외에서는 재배하지 않는다. 섬유가 거칠고 짧지만, 매우 질긴 것이 특징이다.

오가닉 면(Organic cotton)은 씨앗, 농장의 재배방식, 방적, 염가공까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는 소재이다. 3년간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농 목화를 사용한다. 땀 흡수성이 전체적으로 고르고 매우 우수하며 아토피성 피부염, 민감성 피부 등 피부 트러블을 최소화시켜 주며 습기를 조절해주어 항상 쾌적한 감촉을 가지고 있다.[21]

(2) 마 (Linen)

마(Linen)는 아마줄기를 원료로 한 식물성 섬유로서 아마(Flax), 린넨 이라고도 불린다. 마는 열 전도성이 좋고 수분의 흡수와 발산이 빨라 시원한 느낌을 준다. 주로 여름 제품 소재로 사용되어지며 마섬유 중 가장 고급 직물로 쓰인다.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구김이 많이 생기는 단점이 있다. 마에는 저마(Ramie)와 대마(Hemp)로 크게 나뉜다.

저마(Ramie)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시를 말하는데 저마 줄기를 원료로 한 식물성 섬유로 모시풀은 습기가 많고 기후가 따뜻한 지방에서 성장하며, 한국·중국·일본·필리핀·인도·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삼베보다 섬유가 가늘고 순백색이면서 광택이 많아서 가는 실 방적에 적합하다. 가는 실 방적으로 삼베보다 결이 더 곱다. 세탁 시 약산 중성세제로 손빨래하며 섬유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서 가볍게 주물러 세탁해야 한다.

---

21) 『Retail University(상품교재Ver2)』, (서울:이브자리 디자인연구소 2009), p.5

대마(Hemp)는 삼베라고도 하는데 대마줄기를 원료로 한 식물성섬유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삼베 중 안동포가 유명하다. 대마의 일종이며 섬유가 굵고 뻣뻣하며 강도가 크고 내구성이 좋다. 삼베는 삼 껍질의 안쪽에 있는 인피섬유(靭皮纖維)를 이용하는데, 수분을 빨리 흡수·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다. 또한 견고성과 내구성이 뛰어나 직물용 이외에 로프·그물·타이어 등을 만드는 데도 사용한다. 모시에 비해 조직이 훨씬 거칠고 탄성과 유연성이 부족하며 구김이 많아 관리가 다소 어려울 뿐 아니라 표백 시 강도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3) 견 (Silk)

견(Silk)는 누에고치를 원료한 동물성 섬유로 동양에서는 비단이라고도 부른다. 자연섬유와는 달리 가늘고 길어서, 얇고 성긴 천에서부터 두껍고 치밀한 천, 그리고 정교한 무늬의 천에서부터 커다란 무늬의 천에 이르기까지 천으로서의 조직의 응용성이 풍부하고, 특히 문양 효과면에서 탁월하다. 부드러운 촉감과 높은 광택 때문에 고급직물에 속하며 다른 섬유와 비교해도 좋을 만큼 수분 흡수력이 우수하다. 또한 탄성이 좋아 구김이 덜 가고, 염색성이 좋아 침염(浸染)이나 날염(捺染)에서도 색상이 선명하게 표현된다. 그러나 일광에 약해 황갈색으로 바래기 쉽고, 알칼리에 약하기 때문에 세탁 시 유의해야 한다. 근래에는 견섬유와 비슷한 장섬유(長纖維)인 인견섬유 및 합성섬유가 출현, 견섬유와의 혼방 또는 교직물(交織物)로 많이 대체됨으로써 비교적 싼 값으로 일반에게 공급된다.[22] 주요 용도로는 블라우스, 스카프, 한복 등으로 여성용 고급 옷감, 신사용 넥타이, 드레스, 셔츠, 이불 원단, 기타 장식품 외에도 다양하게 사용된다.

(4) 양모(Wool)

양모(Wool)는 양의 털이 원료인 동물성 섬유이다. 양모는 표피(表皮), 피질부(皮質部), 수질부(髓質部)로 이루어진다. 표피는 양털을 보호하며 광택·탄성·축융성(縮絨性)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섬유 간의 포합성을 크게 하여 방적성을 좋게

22)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한다. 피질부는 표피의 안쪽에 있는데, 양털 섬유의 90%를 차지하며 섬유의 강도와 탄성을 지배한다. 양모는 1년에 한 번 봄에 깎는다. 깎는 방법은 기계깎기가 보통이나, 사육하는 마리 수가 적을 때에는 전모(剪毛) 가위를 가지고 손으로 깎기도 한다. 양모의 생산은 2세 때가 최고이고, 그 이후는 나이를 더해 갈수록 점점 감소한다. 양모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미국, 러시아 등지에서 많이 생산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메리노울이 대부분으로, 품질이 우수한 것이 많고, 주름이 잘 펴지는 초기 탄성률이 좋고 보온성이 뛰어나다. 편안하고 주름이 가지 않으며 땀 흡수와 내구력이 강하다. 곰팡이나 벌레에 약하므로 보관 시 주의해야 한다.[23]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양적으로도 세계 시장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양모의 수요량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나. 친환경 섬유(Eco friendly fiber)

(1) 콩섬유 (Soy fiber)

콩섬유(Soy fiber)은 단백질 재생섬유이다. 19~20 가지 아미노산 함유하고 있는 콩섬유는 동물성 단백질 섬유인 캐시미어, 실크를 대체하여 가볍고 부드러우며 항균 99%, 중성섬유(PH 7.5)로서 피부 트러블을 억제하여 피부트러블(아토피, 민감성 피부, 알레르기)에 효과적이다. 콩섬유의 흡습율은 면과 유사하지만, 수분발산 속도가 면보다 빨라 눅눅해지는 계절에서도 끈적임 없이 보다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즉 통풍성, 도습성(속건)이 우수하여 천연 쿨 맥스로 알려지고 있으며 KATRI(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기준에 의한 자외선 차단 기능도 가지고 있다. 또한 주원료인 콩이 인체의 노화 원인중의 하나인 산화반응을 억제하는 토코페롤, 사포닌과 이소플라본 등 여러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원적외선을 방출하고 음이온을 발생한다. 생산 공정이 환경과 인체에 해를 주지않아 친환경 건강 섬유, 일명 녹색 섬유라고도 하며 부드러운 실크감촉과 우수한 광택, 흡수성, 통기성, 보온성이 탁월하다.

---

23) 앞의 책, p.6

(2) 종이섬유 (Paper fiber)

종이섬유는 말 그대로 종이를 원료로 하여 기존의 방적사나 필라멘트사와는 근본적으로 상의한 '제 3의 섬유' 제조방법에 의해 친환경형 섬유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천연의 생분해 섬유이다. 종이를 이용하여 제작하여 더욱 가볍고 쾌적함을 가지고 있으며 천연섬유(마닐라 마)의 성질을 가진 천연 필라멘트 가공사로서 텍스타일의 표현 영역을 넓혀 새로운 촉감을 느낄 수 있고 종이섬유는 폐기한 경우 토양 중 미생물에 의하여 탄산가스와 물로 분해하는 성질을 가진 천연 생분해 섬유로 친환경 소재이다. 종이섬유는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으로써 적합하게 섬유 중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분석, 검사하여 안정성이 확인된 인증된 것으로 2003년 '에코텍스 규격100(Oeko-Tex Standard100)'중에서도 제일 엄격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종이섬유는 면섬유보다 흡습성 3~5배 우수하고 효과가 흡한 속건의 특징이 있으며 가볍고 쾌적하고 경량성, 통기성, 흡수성이 우수하다. <그림13>에서와 같이 재배, 채섬, 펄프, 초지, 슬리트, 연사 과정으로 종이섬유가 완성되는 제조공정을 보여준다.

(3) 대나무 섬유 (Bamboo fiber)

<그림13> 종이섬유 제조과정
출처 : http://www.evezary.co.kr

대나무 섬유는 대나무를 원료로 하여 펄프가공을 하고 레이온 공법으로 실, 원단을 직조함으로서 제조되어진다. 아시아 권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대나무는 신장기에는 하루에 1m이상도 성장하는 식물로서 한 번 벌초하면 60년간은 재이용할 수 없는 산림에 비해서 2~3년 만에 성장을 반복하기 때문에 벌목하여도 자연 환경

바란스에 거의 영향이 없고 계획적인 육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나무 섬유는 독특한 생분해성 소재로서 미생물과 태양에 의해 토양에서 100% 생분해된다. 어떠한 화학적 첨가물 없이 자연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소재이다.

대나무 섬유에는 'Bamboo kun'이라 불리는 독특한 항균성과 정균제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은 대나무 셀룰로오스 분자 구조에 단단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가공되어져 출시되는 대나무 섬유에도 이 성분이 유지되어 천연 항균성과 탈취성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파장의 자외선을 흡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체에 해를 입게 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대나무의 단면이 다양한 미세 틈과 미세구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대나무 섬유는 우수한 통기성과 물에서 그 물의 3배를 흡수할 수 있는 탁월한 흡수성 그리고 통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24] 또한 대나무는 많은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나무 섬유는 잦은 세탁에도 그 특성이 변하지 않으며 좋지 않은 냄새를 유발시키는 박테리아를 감소시킨다. 이외에도 절연성을 가지고 있어 여름에는 더 시원하고 겨울에는 더 따뜻하게 하는 기능을 하며 냄새를 줄여주는 탈취성과 부드러운 촉감까지 지닌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 섬유이다.

(4) 텐셀 (Tencel)

텐셀의 원료는 주로 유칼립투스 나무를 사용한다. 텐셀은 나무를 철저하게 관리하며 재배하는 농장에서 자란 목재 펄프에서 원료를 추출하여 만들게 되며 대나무 섬유와 마찬가지로 100%생분해가 가능하다. 감각적인 부드러움과 과학적 마찰뿐만 아니라 냉, 열에 대해서도 빠르게 반응하여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재이다. 유럽품질 인증 PEFC와 국제 FSC에서 친환경상을 수상할 만큼 환경에 무해하며 면보다 50% 더 많은 수분을 흡수할 만큼 뛰어난 흡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텐셀의 수분 조절 기능은 쾌적함을 유지시켜 주며 독특한 나노섬유기술이 미세하고 균일하게 배열되어 있어 수분관리에 뛰어난 특성을 보인다. 화학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테리아를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악취를 예방해주어 곰팡이나 진드기의 서식을 막아주어 위생적 기능이 우수하다. 실크 같은 촉감을 가지고 있고 린넨과 같은 시원함과 쾌적함을 가지고 있으며 반

24) 한국 의류 시험 연구원, www.katri.re.kr '자료실'

복 세탁 시 우수한 형태 안정성을 유지하여 뛰어난 내구성도 지니고 있다.

(5) 숯섬유

숯섬유의 원료는 천연의 산물인 숯과 자연광석인 음이온 광적을 미세하게 분쇄한 후 폴리에스테르와 합성하여 마스터 칩을 생산, 이를 녹여 실로 뽑아낸다. 숯 염색이나 후 가공을 통해 생산된 일시적인 효과의 제품과는 차별화된 반영구적인 기능을 유지한다. 1300℃에서 구운 숯은 수많은 벌집모양의 다공 물질로써 냄새, 습기, 유해물질을 흡착하여 물질이 빛에 살균되며 기능이 영구히 반복된다. 숯의 온도는 양모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숯 섬유제품은 항상 적정의 온도를 유지하며 습도 조절 능력이 탁월하여 장시간 사용하여도 보송보송한 느낌을 느낄 수 있으며 포름알데히드, 악취 및 냄새를 제거해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혈액 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을 주는 음이온을 발생시켜 주고 전자파 차단 기능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전자파 발생에 따른 쇼크와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준다.

(6) 은섬유 (Silver fiber)

은사는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순수한 은(銀)을 증착 가공하여 산화, 염화, 황화, 혹은 염색에 의한 변색을 방지하는 구조의 특수 기능사를 사용한 직물로 만들어진다. 은이온이 연속해서 방축되어 반영구적인 항균성을 발휘하여 방충, 정전기 방지, 열 차단이 우수하다. 예로부터 은식기와 약으로 사용되어온 은(銀)은 650여종의 세균을 내성없이 살균시키며 반영구적으로 방출되는 음이온의 살균효과에 의해 몸에서 분비되는 땀이나 노폐물로부터 발생되는 세균의 증식을 막아 방취효과가 뛰어나다. 은이온과 은광택으로 인한 은사를 사용해 방충효과가 탁월해 쾌적한 침실 환경을 만들어 주며 발생한 정전기가 자연적으로 은섬유를 통해 흘러버리기 때문에 정전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먼지나 티끌 또한 제전효과(정전기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에 의해 흡착이 방지되며 쉽게 제거된다. 또한 은섬유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쾌적 섬유이다. 은사는 적외선을 반사하는 기능이 있어 겨울철에는 적외선을 몸 쪽으로 복사시켜 따뜻하게 해주며 여름철에는 태양열을 바깥으로

반사시켜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25)

다. 화학섬유

(1) 재생섬유(Regenerated fiber)

천연 또는 인조의 섬유상 고분자물질을 용해 또는 융해 등에 의하여 균일한 상태로 만들고, 이것을 다시 섬유로 형성한 것이다. 화학섬유를 대별하여 합성섬유와 재생섬유로 나눈다. 섬유는 고분자 화합물이어야 하나, 합성섬유는 저분자 화합물에서 합성하여 섬유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재생섬유는 원래 고분자이지만 전혀 섬유의 형태로 되어 있지 않거나, 섬유 모양으로 되어 있어도 방직에 알맞은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일단 녹여서 섬유로서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재생한 것이다.

화학섬유 중 대표적인 재생섬유는 레이온(Rayon)이다. 주로 목재 또는 무명의 부스러기 등을 화학적으로 적당하게 처리하여 순수한 섬유소로 이루어진 펄프를 만들고 이를 화학적으로 용해하며 다시 섬유상으로 응고시키면 얻어지는 섬유이다. 19세기 후반부터 인공적으로 견사(絹絲)를 만들려고 시도하여, 1892년에 섬유소의 용액(비스코스)으로부터 견사가 아닌 지금의 '비스코스레이온'을 만들었다. 이후 계속하여 구리암모니아법에 의한 구리암모니아레이온·아세트산섬유(아세테이트법 인조견사) 등이 제조되었는데, 이들은 레이온(일명 인조견) 가운데서 가장 우수하다. 누에고치실[繭絲]과 같은 기다란 섬유의 필라멘트와 이를 적당한 길이로 절단해서 방적한 스프 섬유가 있다.

20세기 초 레이온은 값이 싸기 때문에 생사, 양모, 면, 삼[麻] 등의 4대 천연섬유 영역으로 파고들어 천연섬유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천연섬유의 우수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독자성과 실용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의생활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감촉이 유연하고 다소 차가운 감이 있으며 레이온의 큰 결점은 내수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과, 탄성이 적어 의복재료로는 구김살이 생기기 쉽다는 점이다. 그러나 탄성의 결점은 직포(織布)되었을 때 수지가공(樹脂加工)을 함으로써 극복된다. 현재는 면(綿) 또는 순량(純良)한 펄프를 사용하여 중합도가 높은 강력한 레이온이

25) 『Retail University(상품교재Ver2)』, (서울:이브자리 디자인연구소 2009), pp.7-9

제조되어 자동차 타이어의 심지 등에도 이용되고 있다.

또한 레이온은 양모와 비슷하게 권축(捲縮:crimp)[26]성을 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부드럽고 탄력성이 있으며, 감촉이 좋을 뿐 아니라 광택이 은은하고 가볍고 따뜻하며, 염색한 빛깔도 깊이가 있어 염색성이 뛰어나다. 물에 젖으면 강도가 반으로 매우 약해지므로 비누 또는 약 알카리성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하는 것이 좋다.

(2) 합성섬유(synthetic fiber)

인조섬유 중 석유·석탄·공기·물 등을 출발원료로 하여 섬유를 형성하는 일련의 긴 분자를,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섬유로 만든 고분자물질이다.

천연섬유(면,양모,생사 등)·재생섬유(비스코스레이온,구리암모늄레이온 등)는 셀룰로스(섬유소)·단백질 등의 천연고분자로 이루어지며, 아세테이트 섬유는 셀룰로스의 유도체이지만, 합성섬유인 경우에는 저분자물질을 연결하여 사슬 모양으로 이어 소정의 고분자물질로 조립함으로써[重合反應] 만들어진다. 즉, 합성섬유란 합성고분자 섬유라는 뜻이 된다. 합성된 고분자는 용제로 녹이거나 열로 용융하여 가는 구멍으로부터 압출해서 굳히고[紡絲] 감는다. 방사방법에는 용융, 건식(乾式), 습식(濕式)의 세 가지가 있다. 실 모양이 될 수 있는 고분자는 많지만, 그 중에서 염색성, 내구성, 촉감, 내수성, 내추성(耐皺性), 내열성, 강도, 내마모성 등의 여러 성질이 의료용이나 공업용의 목적에 알맞은 것만이 실용적 가치를 가진 합성섬유가 된다. 합성섬유와 플라스틱은 분자구조상 엄격한 구별이 없으며, 합성섬유는 플라스틱이 섬유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 모양이 아닌 분자로 구성되는 플라스틱은 섬유화가 곤란하다.[27]

합성섬유의 대표적인 섬유로 폴리에스테르(Polyester)가 있다. 석유. 고분자 물질로 된 겔 상태의 방사원액(녹은 칩: Dope)을 가느다란 노즐에 뽑아낸 섬유이다(보통 원형 방사구 노즐에서 모양을 바꾸어 섬유 특성을 기능적으로 변형시키기도 한다.) 세탁 후 쉽게 마르고 구김이 잘 가지 않고 세탁 전 주름 회복률이 100%, 세탁 후 95%이며 강도가 강하고 취급 및 관리가 용이하다. 수분이 잘 흡수가 안 되므로 천연섬유와 혼방하여 결점을 보완하기도 한다.

---

26) 권축(捲縮) : 직물에서 실의 꼬임에 의해 직면(織面)에 나타나는 파상(波狀)·입상(粒狀)의 주름.
27)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표 2> 현대 섬유의 분류

종류	대분류	소분류	내용
천연섬유 (Natural fiber)	면(cotton)	해도면 (Seaisland cotton)	미국 남부 해안 지대에서 한정적으로 재배되는 부드럽고 광택이 있는 극상 품질의 면
		이집트면 (Egypt cotton)	해도면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품질의 면
		육지면 (Upland cotton)	단섬유의 것이 많고 재배, 수확의 기계화와 종자의 표준화로 수확량이 증대하고 있다.
		중국면 (China cotton)	국내 수입 원사의 대다수 양을 차지
		인도면 (India cotton)	품질이 다소 나쁘고 저가면 으로 취급되며 섬유가 거칠고 짧지만 질긴 것이 특징
		오가닉 면 (Organic cotton)	3년간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농 목화를 사용한 고급 면
	마(Linen)	아마(Flax)	아마줄기를 원료로 하였고 마섬유 중 가장 고급 직물
		저마(Ramie),모시	삼베보다 섬유가 가늘고 광택이 많아서 실 방적에 적합하다.
		대마(Hemp),삼베	삼베 중 안동포가 유명하며 대마의 일종이며 강도가 크고 내구성이 좋다.
	견(Silk)	부드러운 촉감과 높은 광택으로 고급직물에 속하며 수분흡수력이 웃수하나 땀, 오염에 약하다.	
	양모(Wool)	양털을 말하며 양모 중 메리노(merino)모가 최고의 품질이며 주름이 잘 펴지며 초기 탄성률이 좋고 보온성이 뛰어나다.	
친 환 경 섬유 (Eco friendly fiber)	재생섬유 (Regenerated fiber)	콩섬유 (Soy fiber)	19~20가지 아미노산을 함유한 콩을 원료로 하며 우수한 광택, 흡수성, 통기성, 보온성이 탁월하며 피부트러블에 효과적이다.
		종이섬유 (Paper fiber)	면섬유보다 흡습성이 3~5배 우수하여 흡한 속건의 효과가 있으며 경량성, 통기성 또한 우수하다.

		대나무섬유 (bamboo fiber)	대나무를 원료로 펄프가공 하여 직조되어지며 뛰어난 촉감, 청량감, 높은 내구성, 항균, 소취효과, 자외선차단 기능, 음이온 발생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텐셀(Tencel)	100%원료 생분해가 가능하며 냉, 열에 대해서도 빠르게 반응해 민감성 피부에 도움이 되는 소재이다. 실크 같은 감촉, 뛰어난 내구성 등을 가지고 있다.
	기능성섬유 (Functional fiber)	숯섬유	숯과 음이온 광석을 미세하게 분쇄한 후 폴리에스테르와 합성하여 마스터 칩을 생산, 이를 녹여 실로 뽑아낸다. 악취제거, 음이온 발생, 전자파 차단기능을 가진다.
		은섬유 (Silver fiber)	은사는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순수한 은을 증착 가공하여 만들어지며 은이온이 연속해서 방축되어 반영구적인 항균성으로 방충, 정전기 방지, 열 차단이 우수하다.
		항균 기능성 폴리에스테르	은성분을 함유한 폴리에스테르로 영구적으로 유해한 균의 증식을 억제, 사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해로운 세균과 땀냄새를 제거한다.
		발열 기능성 폴리에스테르	일반 면제품에 비해서 약 2도 정도의 온도가 상승하는 발열기능이 있다. 항균, 소취기능이 우수하다.
화학섬유 (Chemical fiber)	재생섬유 (Regenerated fiber)	레이온(Rayon)	목재펄프나 섬유소로 이루어진 화학섬유로 면이나 마성분과 비슷하고 촉감이 좋으며 광택이 우수하다.
	합성섬유 (Synthetic fiber)	폴리에스테르 (Polyester)	석유, 고분자 물질을 원료료 한 섬유이다. 세탁 후 쉽게 마르고 구김이 가지 않으며 강도가 강하고 취급, 관리가 용이하다.

2) 직물의 종류

침장류에 주로 사용되는 직물은 크게 면직물, 견직물, 합성직물, 혼방직물, 레이온(인견)직물로 나뉘는데 면직물은 크게 광목(Cotton cloth), 시어서커(Seer sucker), 면아사, 옥스퍼드(Oxford), 캔버스(Canvas)로 나뉜다.

견직물은 수직실크(Shantung silk), 새틴(Satin)공단으로 분류되며 마직물은 린넨(Linen), 라미(Ramie,모시), 삼베, 춘포, 추포 등이 있고 합성직물은 타프타(Taffeta), 극세사 등이 있다.

혼방직물에는 T/C(Tetoton/Cotton), CVC, 인조직물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레이온(인견)직물에는 인견 직물이 있다.

위의 직물의 특성은 <표 3>에서 살펴보았다.

<표 3> 현대 직물의 종류

종류	직물명칭	내용
면직물	광목	• 날실과 씨실을 무명실로 하여 짠 순수한 무명천 • 16수 정도의 소면 단사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짠 거친 면직물
	시어서커 (Seer suckr)	• 경사에 장력이나 굵기 또는 꼬임이 다른 2종류의 실을 배열하여 제직, 가공 후 수축의 차이에 따라 경사 방향으로 요철이 나타난 직물 • 원래는 얇은 아마 또는 면직물이었으나 현재는 대개 색사를 사용하여 줄무늬를 만들고 폴리에스테르와 면혼방, 기타 합성 섬유를 사용하기도 한다.
	면아사	• 세 번수 면으로 제직 된 부드럽고 얇은 면직물 • 촉감이 매우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준다.
	옥스퍼드 (Oxford)	• 19세기 말 옥스퍼드, 캠브리지, 예일, 하버드 대학의 이름을 딴 4종류의 셔츠직물 생산으로 시작되었다. • 경사 두 가닥과 위사 한 가닥이 바스켓조직(2×1조직)으로 짜여진 두꺼운 면직물이다.
	캔버스 (Canavas)	• 원래 용도는 항해용 직물이며 라틴어로 Hemp를 뜻하는 Cannabis에서 유래 되었다 • 경사 두 가닥과 위사 두 가닥이 바스켓조직(2×2조직)으로 짜여진 두꺼운 면직물이다.

견직물	수직실크 (Shantung silk)	• 듀포니, 산퉁실크 라고 한다. • 가로 문양의 조방사(slub yarn)로 인해 독특한 표면 효과를 준다.
	새틴(Satin), 공단	• 무늬가 없고 경사가 표면에 많이 나타나는 경주자직 직물 • 부드럽고 광택이 풍부하며 고급스럽다. • 공단 실크를 모방하기 위하여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합성섬유의공단 직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마직물	린넨(Linen)	• 마섬유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정확하게는 아마로 짠 직물
	라미(Ramie, 모시)	• 저마 줄기로부터 생산된 저마 직물 • 모시도 저마의 일종으로 베보다는 곱고 섬세하다.
	삼베	• 대마의 일종으로 안동포가 유명하다.
	춘포	• 모시와 실크를 함께 짠 직물
	추포	• 모시와 베를 함께 짠 직물
합성직물	타프타 (Taffeta)	• 광택이 있는 비단을 의미하며 촘촘한 평직의 단단하고 매끈한 직물 • 오늘날에는 폴리에스테르 혹은 나일론을 사용하여 실크와 같은 직물 효과를 나타낸다.
	극세사	• 폴리에스테르 직물로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보다 얇게 수축 가공한 섬유직물이다. • 극세사로 만든 섬유의 단면은 일반 합성섬유와는 달리 별 모양으로 분할되어 있어 수분을 더 잘 흡수한다.
혼방직물	T/C(Tetoton/Cotton)	• 면40% + 폴리에스테르60% 혼방직물
	CVC	• 폴리에스테르40% + 면60% 혼방직물
	인조	• 비스코스 레이온 섬유와 폴리에스테르 혼방직물 • 인견과 가공과정에서 세탁 후 변색의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레이온50% + 폴리50%를 혼방해서 인조 직물로 생산한다.
레이온직물	인견직물	• 목재펄프나 섬유소 섬유를 원료로 한 비스코스 레이온 섬유100%직물 • 견과 유사한 광택감이 있다 • 인조에 비해 광택이 풍부하고 시원한 느낌이 강하다. • 물에 적시면 강도가 저하되고 수축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 시원한 촉감과 흡습성으로 여름이불의 소재로 많이 사용한

		다. • 인견과 가공과정에서 세탁 후 변색의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레이온 50%와 폴리에스테르 50%를 혼방해서 인조 직물로 생산한다.

3. 나라별 직물

1) 한국

우리나라의 직물의 역사는 현존하는 보자기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조각보는 말 그대로 옷을 지어 입고 남은 천을 조각조각 이어 만든 보자기를 의미한다. 소재 선택에서 때로는 일부로 옷감을 마련해서 자기가 바라는 기능과 색상 즉 자수와 같은 것을 만드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대부분은 자투리 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조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조선사회에서 천이나 옷감은 매우 귀중했기 때문이다.

봄. 가을 소재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국사, 갑사, 은초사, 항라 등이 사용되었으며 가을은 자미사, 명주, 숙고사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여름에는 모시, 삼베 초여름에는 다듬이 한 모시로 흰색이나 푸른색으로 염색을 하여 사용하고, 한여름에는 베나 쟁친모시(다듬이질 하지 않은 모시)를 이용하여 적삼을 즐겨 입었다. 겨울에는 양단과 공단 등의 견직물을 사용하였다. 이 같이 다양한 소재들에서 볼 수 있듯이 현존하는 직물에는 사 (紗), 라(羅)류의 것이 많은데 이것들은 모두 기계직이다. 우리나라에서 기계직 직물이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부터였는데 이때는 국내에서 기계직 직물을 생산했을 뿐 아니라 일본 등지에서 수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현존하는 직물들은 대부분 19세기 후반이나 20세기 초엽에 결친 것들임을 알 수 있다.[28]

28) 이세희 「한국전통 조각보를 응용한 침구 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pp.24-27

(1) 단(緞)

원섬유는 실크이며 전통 소재 중 '단'은 주자직 직물로 오늘날에는 공단(貢緞)과 양단(洋緞)으로 구분되어 사용한다. 이 외에도 법단(法緞), 모본단(模本緞), 운문단(雲文緞), 도류단(桃榴緞), 사색단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이 양단 안에 포함된 직물이다.

공단(貢緞)은 무늬가 없고 경사가 표면에 많이 나타나는 경주자직 직물로서 본래는 두껍고 무늬는 없지만 윤기가 도는 고급 견직물이었으나 요즈음은 여러 가지 인조 섬유로 만들어 사용된다. 부드럽고 광택이 풍부하나 질기지 못한 단점이 있다.

양단(洋緞)은 서양에서 수입된 '단'을 일컫는 명칭으로부터 정착되었고 경주자직 바탕에 위 주자직으로 은실이나 색실을 이용하여 원형, 화초, 학, 문자의 큰 문양을 나타낸 고급 비단이다. 바탕은 주로 씨실과 날실을 같은 색으로 하며, 무늬는 두 색 이상의 실을 서로 꼬아 씨실로 짜는데 금사·은사를 혼용하기도 한다. 양단은 주로 여성의 치마·저고리, 두루마기, 남성의 조끼·마고자 등을 만드는 데 쓰이며, 이불감으로도 쓴다. 양단은 다른 견직물과 마찬가지로 색상이 화려하고 질감이 뛰어나지만, 대량생산이 어려워 가격이 비싸며 관리하기가 까다로운 것이 단점이다. 또한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대부분 합성섬유사와 함께 섞어 사용한다.[29] <그림14>

<그림14> 양단
출처:http://www.100.naver.com

<그림15> 모본단
출처: 쌈지사랑 규방공예 연구소

<그림16> 사색단
출처: 쌈지사랑 규방공예 연구소

29)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무늬에 따라서 비교적 무늬가 큰 모본단<그림15>, 무늬가 작은 법단, 모본단에 비해 더 얇고 무늬가 작은 본단 등으로 나뉘며, 무늬의 색을 달리하여 화려하게 만든 양단으로는 구단, 수단 등이 있고 문양과 원사의 색수에 따라 운문단(구름문), 모본단(모란문), 칠색단(칠색)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통용된다. 법단도 역시 비단의 하나로서 모본단보다 무늬가 작고 두꺼우며 감촉이 매우 부드럽다. 모본단은 모란꽃 무늬를 놓은 비단의 일종으로 본래 중국에서 난 것으로, 짜임이 곱고 윤이 나며 무늬가 아름답다. 운문단은 구름 무늬를 놓은 비단의 일종이며 도류단은 복숭아, 석류, 부처님 손바닥 모양의 직물로서 장수와 다산, 다복 의미한다. 사색단은 뒷면의 색이 4색으로 되어진 양단의 한 종류이다.<그림16>

(2) 사(紗)

우리나라 전통 직물 가운데 가장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고 가벼운 비단이라 하여 얇은 직물로 봄가을과 여름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종류로는 숙고사(熟庫紗), 국사(菊紗), 갑사(甲紗) 등이 있으며 실의 종류와 짜임, 문양에 따라 구분된다.

<그림17> 갑사-1
출처: 쌈지사랑 규방공예 연구소

<그림18> 갑사-2
출처: 쌈지사랑 규방공예 연구소

<그림19> 진주사
출처: 쌈지사랑 규방공예 연구소

갑사(甲紗)는 짜여진 모양이 거북모양과 유사하다고 하여 갑사라고 칭하며 얇고 성 기면서도 밀리지 않아 봄, 여름철 직물로 사용한다. 무늬를 가진 것이 많으며 무늬가 없는 것을 순인(純仁) 혹은 민갑사 무늬가 있는 문갑사로 구분하며 정련의 유무에 따라서 숙갑사와 생수갑사로 구분한다.<그림17, 18>

자미사(紫薇紗)는 비단의 한 종류로서 생명주실을 잿물에 삶아낸 숙사(熟紗)계통

이며 질감이 부드럽고 광택이 적어 은은하고 고상한 멋이 느낄 수 있다. 또 문양이 아름답고, 걸어 다닐 때 은은하게 스치는 소리가 나는 등 운치가 있다.

진주사(眞珠紗)는 바탕은 평직이고 문양은 평직과 사직이 혼합된 형태로 제직하며 국사보다 더 투명한 조직으로 초여름에 쓰는 직물이다.<그림19>

국사(菊紗)의 바탕은 평직이고 문양은 사직으로 숙고사보다 평직의 부분이 적으며 봄·가을에 입는 한복의 옷감으로 쓰는 비단의 한 가지이다.[30]<그림20>

숙고사(熟庫紗)는 명주를 잿물에 삶아 물에 빨아서 희고 부드럽게 만든 뒤 짠 직물로서 부드러우며 섬세해서 봄, 가을 직물로 많이 쓰이고 생고사에 비해 질감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문헌에는 숙고사에 무늬를 많이 넣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주로 원형으로 도안한 수(壽)자 문양과 표주박 무늬 등이 많이 쓰였다고 한다.[31]<그림21>

생고사(生庫紗)는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명주를 그대로 써서 짠 직물로서 빳빳하고 깔깔해 주로 늦봄과 초가을 직물로 사용한다.<그림22>

<그림20> 국사
출처: 쌈지사랑 규방공예 연구소

<그림21> 숙고사
출처: 쌈지사랑 규방공예 연구소

<그림22> 생고사
출처: 쌈지사랑 규방공예 연구소

2) 중국

중국 견직물은 기원전부터 발달하여 기원전 2세기 무렵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며 동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동서의 교류가 진행되어 상류계층에서는 의복, 버선, 장갑 등에 견직물을 사용하였다. 기원전의 견직물은 모두 경

30) 『Retail University(상품교재Ver2)』, (서울:이브자리 디자인연구소), pp.20-21
31) 두산백과사전, http://pagoda.encyber.com

사와 위사에 의해 직조된 직물류로 평직(平織), 부직(浮織), 익직(溺職), 중조직(重組織)등을 사용하였으며 견(絹), 사(紗), 라(羅), 기(綺), 경금(經錦) 등의 종류가 있다. 동한 말기까지도 동서의 직물 교류는 있으나 견직물 무의 속에는 아직 중국 본연의 조형이 그대로 유지된 반면, 서역의 모직물에는 서아시아의 조형이 분리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점차 동서 각지의 직물 제직법 미치 무늬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위진 남북조에서 수대에 이르러서는 동서문화의 융합이 이루어진다. 서역의 영향으로 낙타, 사자, 양, 코끼리, 공작, 멧돼지 등의 진귀한 동물무늬와 포도문, 인동문, 서양 인물상 등의 새로운 무늬가 동아시아의 견직물에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산조 페르시아의 무늬는 동아시아 견직물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연주문 안에 사자, 기러기, 양, 사슴, 공작 등의 새난 동물을 한 마리 혹은 쌍으로 대칭시킨 직물이 유행하였다. 또한 직물생산의 방법에서도 대단한 변화를 초래하는데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경금 기법의 견직물은 서역으로 전파된 후 서아시아의 모직물의 제직법인 위금기법으로 변하여 회귀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7~10세기에 중국은 물론 동서양을 대표하는 이국정취의 위금 직물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는 서역의 모직물과 동아시아 견직물의 만남에 의해서 생겨났으며 동서 문물 교류의 위대한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송의 직물은 세계화를 이룬 이국정취의 당대 직물에 한족 정체성을 강화한 새로운 견직물로 발전하였다. 당대 견직물의 색상은 선명하고 풍려하였으나 송대의 것은 우아하고 부드러웠다. 무늬도 인위적인 당대의 대칭기법에서 벗어나 구로(球路) 무늬와 같은 독특한 기하무늬와 우아한 사생풍의 화조(花鳥)무늬가 잘 조화되어 자연스럽고 세련된 예술품격을 보였다.

요는 거란족이 건립한 나라로 송과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다. 송의 기록에는 요의 궁정에 다량의 견직물을 보낸 자료가 있다. 결과적으로 요의 직물 생산은 송의 방법이 전승되어 직물의 종류는 견, 능, 사, 라, 금, 수, 직금 등으로 동일한 범주 내에 있지만 색상이나 무늬의 사용에서 기마민족의 조형의지가 더하여 좀 더 역동성 있는 형태특성으로 이어 졌다고 할 수 있다.[32]

(1) 모섬유 (毛纖維)

32) 『중국 직물의 태동과 역동』, (서울:숙명대학교 정영양자수박물관 2009), pp.93-94

모섬유(毛纖維)에는 전(氈), 갈(褐), 계(罽), 담(毯)등이 있다.

전(氈)은 서양의 펠트를 말하는데 경사와 위사로 직조한 것이 아니고 모섬유의 축융성을 이용하여 열과 압력에 의해 모섬유의 스케일을 얽히게 하여 섬유로 사용한 것이다. 서아시아 지역의 유목민들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며 중앙아시아에서도 기원전 19세기의 로프노르를 비롯한 유적지등에서 모자, 양말, 의복 등으로 사용된 전이 대량 출토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갈(褐), 계(罽)가 있는데 갈과 계를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계에 비하여 밀도가 거칠고 실의 꼬임이 적은 것을 갈이라 한다.

담(毯)은 모직물의 깔개를 모담(毛毯), 융담(絨毯), 탑등(毾㲪)이라고 부르며 타피스트리 기법이나 첨모직의 방법으로 제직하였다. 타피스트리 방법은 직성(織成)이라고도 하는데 무늬위사가 직물의 전폭을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고 무늬의 필요한 부분에만 위입되어 경사와 엮어지다가 무늬의 경계선에서 다시 되돌려 직조하는 것으로 평직, 위능직, 변화능직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2) 견섬유 (繭纖維)

중국의 견섬유(繭纖維)에는 견(絹), 사(紗), 초(초)기(綺), 능(綾), 라(羅), 금(錦), 단(緞) 등으로 다양한 종류의 견섬유가 사용되었다.

견(絹), 사(紗), 초(초)의 직물 명칭은 시대에 따라 변화된 개념을 갖기도 한다. 고대의 견과 사, 초는 품질이 좋은 여러 겹의 필라멘트 견사에 의해 평직으로 짠 직물을 호칭하였다. 고대에는 평직물 중에서도 경위사의 꼬임이 엇고 밀도가 비교적 치밀하게 제직된 직물을 견이라 하고 밀도가 성글게 짠 얇고 반투명한 견직물을 사라 하였다. 그러나 송대 이후에는 사의 제직법이 바뀌어 외관은 과거의 평직사와 같이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인접한 두 올의 경사를 교차하여 익조직으로 제직한 것을 사라 부르기 시작하였고 성글고 얇은 평직의 견직물을 경초(經초)라는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기(綺), 능(綾)을 살펴보면 능직으로 제직한 직물류는 평직바탕에 능직으로 무늬를 제직한 것을 기, 능직바탕에 능직으로 무늬를 제직한 것을 능이라고 한다. 능직은 조직점이 연속되어서 직물표면에 능선이 생기는데 무늬와 바탕의 능선이 같은 것은 동향릉 이라 하며 능선의 방향이 다른 것은 이향릉 이라고 한다. 능에 관한 기록은 한대(韓代) 문헌에 처음 나타나지만 원래 서아시아 지역에서 시작된 제직법

으로 신강지역에서는 이미 기원전 10세기경의 출토품에서 능직의 모직물이 발굴되었다. 기원전 후의 중앙아시아 유적지에서도 견직물의 기(綺)와 제직방법이 동일한 모직물도 다수 발견되었다.

라(羅)는 2올 이상의 경사를 교차하여 익조직으로 제직된 직물로 마치 새그물과 같이 성글고 반투명한 특징을 보인다. 당대까지는 좌우의 경사가 서로 연속적으로 연결된 복합 익조직의 라직물을 생산하였으나 당 후기부터 2-3올의 경사를 교차한 단순 익조직의 라직물이 등장하여 송대 이후에 널리 유행되었다. 요대에도 라 직물이 많이 나타났는데 사경교라에 인화염 혹은 금박을 한 것이 많다.

금(錦)은 선염한 색사를 사용하여 중조직(重組織)으로 무늬를 제직한 견직물로 조직법에 따라 경금(經錦)과 위금(緯錦)이 있다. 선염한 색사를 2~3중으로 정경하여 경중조직으로 무늬를 짠 것을 경금이라 하는데 평직경금과 능직경금이 있다. 위금(緯錦)은 서아시아에서 시작된 것이며 경금을 90도 회전시켜 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중국에서는 페르시아의 영향으로 남북조시대의 유물에서 처음 발견되며 당대 이후 경금은 점차 사라지고 위금으로 대신하게 된다. 하지만 당대 초기까지도 경금(經錦)은 위금과 함께 지속적으로 생산되었으며 위금은 무늬를 위하여 다중으로 위입된 위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늬의 색이나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고 다채로운 무늬를 나타낼 수 있었다.

단(緞)은 수자직으로 제직된 직물로 평직이나 능직에 비하여 조직점이 흩어져 있어 직물표면에 경사 또는 위사만 나타나기 때문에 광택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직물이다. 일반적으로 바탕은 경수자, 무늬는 위수자로 표현하며 직물의 뒷면에는 반재로 나타나므로 정반수자직이라고도 한다. 수자직은 5매, 7매, 8매 수자직이 있는데 초기에는 5매 수자직에서 비롯되었으며 명, 청대에 이르러 7매, 8매의 수자직으로 변화된다.[33]

3) 일본

일본에서의 직물의 시작은 B.C 300년경으로 농경 문화가 시작된 시기부터라고 하며 조몬(繩文) 시대의 초기의 실로는 야생식물의 표피를 사용하였는데 종류는 닥나무, 등나무 등이다. 이 시대의 실은 수피(樹皮)를 이용한 것이므로 방추차를 사용

33) 『중국 직물의 태동과 역동』, (서울:숙명대학교 정영양자수박물관 2009), pp.90-92

할 정도로 세밀한 것은 아니였다고 한다. 직물을 현물 자체로 볼 수 있는 것이 조몬 시대부터이고 직기에 관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제직 방법은 B.C 3세기경 우리나라에 의해 일본에 전수 되었으며 포직기(布織機)인 일본의 지기(地機)도 우리나라로부터 전해진 것이다. 일본의 고대의 직물은 단색(單色)의 평직이 있을 뿐이고 복잡한 다색(多色)직물은 주로 A.D 300년경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우리나라에 전해진 견(絹)을 소재로 하고 있다.

아스카(飛鳥)시대는 나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로서 일본 예술의 기원이 된 문화로서 대륙과의 교류가 성하여 고급직물은 귀화인(歸化人)에 의해 전수 받았고 경금(經錦)의 기법은 중국 한대(漢代)의 직물에서 볼 수 있는 오래된 기법으로 금(錦)의 오랜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역사는 짧지만 일본 역사상 황금기였던 나라(奈良)시대는 당(唐)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정치, 종교, 건축, 문화, 의복 등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이 시대의 업적 중에서 건축물과 불교미술은 오늘날 까지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화려한 무늬의 비단을 비롯하여 각종 염색이나 직조를 보여주는 유물이 많으며 한국 의복의 형태와 유사한 느낌을 주어 신라에서 가져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궁정 귀족 문화의 꽃이 피었던 헤이안(平安)시대는 대륙과의 국교가 적어져 일본 독자의 문화를 형성하였다. 국교가 적어져 일본으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복식에서는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었고 형식이나 색채미를 강조한 의례복도 발달하였다고 한다.[34]

(1) 철직(綴織)

철직은 7세기경 일본에 들어왔으며 금박바탕에 인동화문(忍冬花文), 연화문(蓮華文)사이에 용(龍)이 짜여져 있는데 철직은 본래 서양의 문직 기법으로 동아시아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중국 당(唐)의 형식을 전수 받은 것이다.

일본에서 철직은 18세기경 제직되기 시작하였는데 제직양식은 보통 경사와 위사의 굵기의 비가 1 : 2 에서 1 : 3 이상으로 한 평조직을 기본으로 한 양식으로 문(紋)과 지(地), 문(紋)과 문(紋)을 각기 다른 색실로 제직하기 때문에 경사방향으로 틈이 생기게 되며 이 틈의 조화가 조직의 특성을 이룬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제직

34) 이화영, 최인려, 남윤자 「일본직물의 문양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논문집, 1998, pp.306-309

과정을 철직이라고 하고 철직은 시간과 인력을 요하는 문직(紋織)으로 된 철직이라 하여 철금(綴錦)이라고 한다. <그림23>

(2) 당직(唐織), 후판(厚板)

중국의 직조법을 배워 일본에서 당직을 제직하기 시작한 것은 원귀연간(元龜年間, 1570~1573)전후이다. 당직은 모모야마(桃山)시대를 거쳐 귀중한 고급품이 되어 무가(武家)에서 애용되었다.

<그림24>의 금지단서형수단동칠현문(金地團犀形收丹桐七賢文)의 당직은 18세기 에도시대의 노(能)극의 의상이다. 당직은 호화로운 의상으로 이용되었으나 일반인들에게 오비(帶, 대)[35]로 사용되었다.

후판은 에도(江戶)시대 오비(帶)에 라(羅), 사(紗)를 사용했지만 일반적으로 후판, 사금(絲錦) 종류가 오비에 쓰였다.

이러한 전통은 메이지(明治)시대에도 이어졌고 후판이라는 명칭은 특정한 직물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는 아니고 바탕이 두꺼운 직물의 총칭이다.

<그림23> 철직(綴織)
출처: 日本の織物 P.68

<그림24> 당직(唐織)
출처: 日本の織物 P.87

<그림25> 주진(朱珍)
출처: 日本の織物 P.83

(3) 주진(朱珍), 축면(縮緬)

주진이 일본에서 직조되기 시작한 때는 무로마치(室町)시대 말로 이는 중국의 것을 모방한 것으로 제직이 본격적으로 발달했던 시기는 에도(江戶)시대 초기이다.

35) 오비(帶) : 여성용 기모노의 허리부분을 감싸는 띠

다섯 장(五枚), 여덟 장(八枚)의 견을 사용하고 부드러운 느낌과 다채로운 색의 문양 때문에 상류계급의 애용품으로 사용되었으나 에도시대 중기부터는 서민층에서도 사용되었다. 메이지시대에는 오비도 많이 이용되어 메이지시대 20년은 주진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25>

고소데(小袖)의 발전에 축면(縮緬)의 수요와 염직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축면의 생산은 에도(江戶)시대부터 시작되어 고소데(小袖)에 많이 사용되었다.

축면(縮緬)은 직조한 비단으로 표면이 요철무늬에 의해 유연성이 풍부하고 염색의 색이 선명하기 때문에 현재에도 각종 염직품(染織品) 중에서 으뜸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림26>

(4) 경금(經錦), 위금(緯錦)

경금(經錦)은 중국의 전통적인 것으로 색사에 경사를 넣은 것을 바탕으로 문양을 짠 문직물인데 미리 정해놓은 색상 수만큼의 경사를 하나로 묶어두고 이것을 한 개의 경사인 것처럼 다루어 정경(整経)해 둔다. 그리고 기본 조직용의 위사와 오른쪽 경사 일조 중에서 위사 각각에 색실로 표시를 해 솟아나온 다른 위사와 서로 꼬아 직조한다.

경금(經錦)은 710년을 기하여 쇠퇴하였고 신구양식(新舊樣式)이 절충되어 오다가 나라시대 말기에 접어들면서 경금은 그 자취를 감추었다.

위금(緯錦)은 중국에서는 당대 초기에 완성된 것으로 이러한 위금(緯錦) 기술이 일본에 전해져 일본의 염직(染織)에 커다란 혁명을 일으켰으며 경금(經錦)에 비하면 훨씬 많은 색상으로 복잡한 문양을 보다 편하게 짤 수가 있으며 경금보다 진보한 기법으로 보여진다. 위금은 8세기 들어와서 나라(奈良)시대 때의 뚜렷하고 긴장된 윤곽선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5) 라(羅), 사(紗)

라(羅)와 사(紗)는 모두 철직(綴織)으로 직목이 성근 문직물로 한대(韓代)이후부터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역사가 깊은 것이다. 일본에서도 7세기의 천수국(天壽國)수장의 태열(台裂)에 이미 라(羅)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

다. <그림27>

사(紗)는 두 개가 한조인 경사가 위를 축으로 하여 서로 얽히는 비교적 간단한 기법이지만 라(羅)는 각각의 경사가 서로 위사와 얽혀 이것을 그물모양으로 직물의 폭만큼 반복해가는 복잡한 직물이다.36)

<그림26> 축면(縮緬)
출처: 日本の織物 P.41

<그림27> 라(羅)
출처: 日本の染織 P.91

4. 트렌드

1) 2009 S/S 트렌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환경에서 인스피레이션을 얻는다. 자연과 인공, 현실과 가상, 현대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 가치 있는 것과 저급해 보이는 것들 간에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가상의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꾸리고 상상과 현실이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들고 있다. 그 안에서 역설적이고 새로운 조합을 통해 미래를 향한 에너지를 표출해낸다. 즉 일상적인 것에서 탈피해 불분명한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을 표현하는 키워드가 바로 모호함이라는 것이다.

소재개발에 있어 천연소재와 신세틱은 친환경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함께 테크놀로지는 오가닉을 콘트롤하고 이국적이고 유서 깊은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기존의 소재들을 새롭게 믹스해 범용화를 유도하는 섬세한 블렌딩과 광택과 매트함간의 미묘한 조합, 2차원 소재로 만들어내는 의류의 3차원적인 움직임이 돋보

36) 이선희 「현대패션에 표현된 일본 정통 이미지 텍스타일의 조형성」,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p.28-31

인다.

가. Theme 1.

① Soft illusion : 환경에 대한 고려로 자연에서 영감을 받지만 경계가 무너지고 세컨드 라이프가 구현되고 있는 요즘 자연은 보다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으로 재해석된다. 현실에 존재하기 보다는 상상속에서 만들어지는 변형되고 예상치 못한 모습의 새로운 자연을 추구한다. 이러한 자연과 인공의 조합은 소프트하고 서정적인 실루엣에 약간의 스포티한 감성을 표현한다.

② Color : 가상현실의 환타지 감성에 자연 이미지가 더해져 새로운 뉘앙스의 일루전을 표현한다. 스포트한 느낌의 블리츠드 네온과 뉴트럴 톤이 함께 쓰여 신선한 하모니를 이루고 다양한 그린톤을 기조로 환타 오렌지, 블루이쉬 퍼플 등이 더해진다. 이러한 컬러들은 반투명한 소재에 사용돼 컬러 레이어링 효과를 보여준다.

③ Fabric : 바람에 날릴 듯 투명한 느낌의 초경량 시폰이나 실크가 두각을 나타낸다. 반투명한 비닐느낌의 소재가 새롭게 제안돼 새로운 레이어링을 전개한다. 스포티한 소재는 신세틱보다는 실크나 타프타 등으로 세련된 룩을 강조하며 반짝거리는 비닐얀을 블랜드하거나 자카드로 사용해 미묘한 광택감을 주거나 세퀸을 사용해 전체를 덮는다. 자연에서 가져온 모티브를 사용하거나 픽셀화해 일루젼의 느낌을 강조하는 디지털 프린팅 기법이 중요하다.

나. Theme 2.

① Poetic Dreamer : 자연의 파괴없이 지속되는 가치에 대한 탐구가 엘레강스의 요소와 결합한다. 플루이드하고 자연스러운 실루엣과 현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웰빙과 로하스의 감성이 어우러진다. 엘레강스를 그대로 표현하기 보다는 소재 자체에서 내추럴함이 느껴지는 외관과 고급스러운 광택감을 통해 조금 건조하게 제안한다.

② Color : 삶의 균형과 아름다운 마인드를 여성스러운 섬세함과 부드러움으로 재창조하는 테마로 염색 가공하기 전 직물느낌의 그레이, 베이지를 베이스로 오프화이트, 에크루 등의 차분하고 중성적인 톤이 기본이다. 여기에 여성스러운 느낌,

조개류의 속살에서의 살먼, 모브 그레이 등이 더해지고 민트, 스모키블루 등이 콤비네이션을 이룬다.

③ Fabric : 실크터치의 코튼, 샤틴, 실크 블랜딩, 실켓 저지등 부드럽고 플루이드한 소재로 내추럴한 드레이프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움직임이 강조되는 이번 시즌에는 흐르는 듯한 소재감이 중요해 빛이 반사된 느낌이나 명암이 있는 텍스쳐의 프린팅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표현된다. 편안한 느낌의 부드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프트한 형태감이 느껴지는 오간자의 사용이 두드러지며 자연 감성을 살린 러프한 짜임새의 린넨 블렌딩이 제안된다.

다. Theme 3.

① Timeless Origin : 에스닉 인스피레이션은 과거와 현재, 자연과 도시의 결합을 보여준다. 고대 그리스 자연의 엄격함을 도시적으로 해석해 거칠하면서도 시크하게 표현된다. 웅장함을 지닌 고대문명,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된 이국적인 유물들에서 영감을 얻어 풍부하고 신비스러운 감각을 자아낸다. 원시적이면서도 세련되고 거칠지만 고급스러운 이중성을 내포하는 새로운 꾸띄르를 표방한다.

② Color : 거대한 원시문화와 이국적인 여성스러움이 모던한 센슈얼리즘으로 새롭게 제안된다. 웅장한 고대 유적지에서 대리석, 화강암톤에서 얼스, 머드에 이르기까지의 컬러 베리에이션을 기조로 이국적 감성의 컬러를 포인트로 하는 무게감이 있는 톤들이 전개된다.

③ Fabric : 고급스럽고 내추럴한 실크나 실키한 외관의 샤틴, 시폰, 타프타와 거친 듯 세련된 외관의 린넨, 코튼, 대나무의 식물성 소재들이 제안된다. 니트위에 메탈릭 코팅을 하거나 루렉스 얀을 활용해 리치하고 장식적인 맛을 가미한다. 자카드, 비즈자수, 보석, 메탈 장식들은 숭고한 보석 같은 직물을 표현하며 장식과 치장이 중요시 된다. 아프리카, 이집트, 시리아 등 고대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에스닉 모티브들은 좀 더 추상적인 감각으로 승화시킨다.

라. Theme 4.

① Innovation : 새로운 것을 자꾸 생산해내기 보다는 버려진 것들을 재활용하고

재사용함으로써 기존에 찾아볼 수 없었던 색다름과 크리에이티브의 키를 찾아내는 데 주목하고 있다. 가치있는 것과 쓸모없는 것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면서 새로운 심미안을 찾아낸다. 주변의 모든 것은 재료가 되고 인스피레이션이 된다. 모든 도시적 라이프스타일이 한데 융합되며 예술적으로 표현된다.

② Color : 어번 감성의 새로운 창조성을 캔이나 도시의 사인 광고판, 인쇄물 등을 이용해 표현하는 이번 시즌 테마는 버려진 폐품에서도 새로운 심미안을 발휘한다. 리프레쉬된 인쇄컬러와 비비드한 톤이 어우러져 아티스틱한 감성으로 발현된다. 블리치드 퍼플, 옐로우, 그린, 블루와 함께 네온핑크, 스칼렛, 옐로우, 그린이 팝업 컬러로 제안되고 페이디드 네이비, 딥 바이올렛으로 시크함을 더한다.

③ Fabric : 종이 질감의 코튼과 큐프라와 린넨 믹스와 같은 내추럴 소재와 대조되는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합성섬유들이 사용된다. 오가닉 소재들과 버려진 패트병에서 추출한 폴리에스테르 등 친환경 소재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경량성, 코팅 직물과 같은 테크니컬한 외관의 직물들은 소프티한 스타일을 위해 필요하다. 핸드메이드 방식의 패치워크, 결함, 아플리케이션, 팬시한 장식들은 리사이클링 감각을 표현한다. 퍼즐문양의 그래픽, 패치워크 감각의 여러 문양의 믹스, 기존 클래식한 문양의 우회, 다양한 곳에서 영감을 받은 그래픽들이 서로 믹스되거나 재해석된다.[37]

2) 2009/10 F/W 트렌드

비관적인 경제상황으로 인해 낙관주의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다. 주변으로부터 추억의 흔적과 따뜻함을 느끼며 심신의 안정을 찾고, 감성의 여행으로부터 영감과 용기를 얻어 평화로운 미래를 꿈꾼다.

가. Theme 1.

① The Warmth of Nature : 자연 그 자체의 향유를 가치롭게 여기며 그 따스한 생명력으로부터 마음의 평안과 치유를 얻는다. 번잡스러운 느낌을 자제하고, 편안하고 심플하면서도 따뜻함을 추구한다. 자연의 따스함을 로맨틱하게 표현하여 풍부

37)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FIN), http://www.dgtia.or.kr 2009,5

하고 안정감있는 감성을 추구한다.

② Color : 나무 본연의 색상을 중심으로 내추럴 모던함을 표현하고 미디엄 브라운, 내추럴 브라운의 아늑하고 따스한 느낌의 칼라로 제안하며 파스텔 컬러로 내추럴함에 로맨틱을 추구하여 친밀감을 더한다.

③ Fabric : 내추럴한 자연 모티브 패턴과 추억을 자극하는 레터링, 부드럽고 서정적인 기하학 패턴을 표현하며 내추럴한 나무결, 부드러운 텍스쳐가 살아있는 직물, 가죽, 패브릭의 소재들을 제안하여 내추럴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해석하고 따뜻하고 심플하게 풀어낸다. 내추럴 톤의 배색이 모던한 배치로 제시되거나 빈티지한 요소가 엘레강스한 느낌으로 재해석 된다.

나. Theme 2.

① Mystic Romance : 부드러운 선율이 흐르는 몽환적인 공간으로부터 로맨틱한 여행을 시작하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으며 초현실적인 환타지를 표방하여 신비로운 빛을 머금은 로망스에서 영감을 얻고 흐르는 듯한 신비로운 감각을 자아낸다. 파우더를 뿌린 듯 뽀얀 질감, 흐르는 듯 과장된 형태감 그리고 숨어있는 빛의 반짝임이 신비롭고 로맨틱하게 연출된다.

② Color : 초현실적인 환타지 감성에 로맨틱한 감성이 더해져 부드럽고 페일한 컬러로 몽환적인 느낌을 표현한다. 파우더리한 화이트 계열이 함께 쓰여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으며 크리스탈처럼 빛의 반짝임이 로맨틱한 효과를 보여준다.

③ fabric : 흐르는 듯 곡선미가 살아있는 형태가 두각을 나타내며 장식적인 디테일이 살아있는 소재가 새롭게 제안돼 새로움을 전개시키고 은은한 페이즐리 문양과 작고 부드러운 플라워 패턴이 제안된다. 파우더리한 표면감과 빛을 머금은 크리스탈 같이 곱고 부드러운 질감의 패브릭과 가죽이 사용된다.

다. Theme 3.

① Ethnic City : 문화적인 추억과 모더니티의 결합. 에스닉한 풍취의 패턴이 대지의 컬러와 조합되어 모던아트적인 느낌으로 연출된다. 이국적인 곳으로의 여행에

서 얻어지는 두근거리는 새로운 경험들을 감각적으로 풀어내며 이국적인 실루엣에 약간의 유니버셜한 감성을 표현한다.

② Color : 샌드베이지, 모카, 브라운, 미네랄, 쿠퍼 등 대지(땅)의 컬러가 배리에이션되어 스타일리쉬한 패턴과 컬러감을 돋보이게 만드는 모던함을 추구한다. 차분하고 따스하며 아늑한 느낌을 표현한다. 빛의 반짝임을 느낄 수 있는 크리스탈의 느낌을 포인트로 하여 대지의 컬러와 콤비네이션을 이룬다.

③ fabric : 이국적인 감성과 수공예적 디테일이 조합되어 예술성을 강조하고 모던하게 다듬어진 에스닉 패턴들이 쉬크한 도시감성으로 제시된다. 오밀조밀한 짜임의 패브릭과 컬러 크리스탈, 금속, 패턴유리 등의 소재를 사용하고 모던하게 정리된 에스닉 패턴, 그래픽적으로 해석된 아프리카의 문양,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유니버셜하게 재조합한 패턴들이 제안된다.

라. Theme 4.

① Minimal Poetry : 미니멀리즘에 시적인 감성이 조화되어 미래적인 차가움을 낙관적인 따뜻함으로 순화시킨다. 즉 시적인 미니멀리즘을 표방하여 미래적인 모던한 감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도시적인 미니멀리즘에 유연성을 가미한 형태로 차갑지 않게 온화하고 서정적으로 연출된다.

② Color : 따뜻한 아이보리를 기본으로 웜 그레이와 웜 블랙의 차분하고 중성적인 톤의 느낌과 그레이 섞인 파스텔컬러와의 조합으로 레이어링 효과를 보여 주어 미래적인 감성을 표현한다.

③ fabric : 기하학적이나 부담스럽지 않고 조화로운 패턴을 제안하고 예술적인 맛을 가미한 수채화의 이미지를 강조하여 번짐 기법을 표현한다. 기하학적인 오리가미 형태를 사용하여 유기적인 곡선과 각이 살아있는 형태가 돋보이게 어우러진 조형의 느낌을 연출한다. 하이글로시한 광택과 온화한 미래적인 패브릭패턴이 강조된다.[38]

38) http://www.ifp.co.kr, 2009,9

5. 침구의 품목과 명칭

1) 양실 침구 품목

① 국외 - [Bed linen Set]

Pillowcase(베개커버) + Flat sheet(플랫시트) + Duvet cover(이불커버)

② 국내 - [침대커버 set]

이불커버(홑/누비) + 베개커버2 + 침대커버

[매트리스커버 Set]

이불커버(홑/누비) + 베개커버2 + 매트리스커버

가. 베개 커버류

① Bed linen : 시트, 베개 커버, 듀벳 커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로서 다양한 소재의 직물을 사용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침구용 직물은 면을 사용한다.

② European Sham : 장식적인 Pillow cover(베개커버)이며 베개 뒤쪽에 두어 장식용으로 사용하며 크기는26″× 26″를 기본으로 한다.

<그림28>Bed linen

출처:www.ralphlauen.com

③ Pillow sham : 베개(Pillow)를 위한 장식적인 품목으로 보통은 베개 뒤에 위치하고 보통 코딩(cording), 러플(ruffle), 장식(trim)으로 디자인한다.

④ Cushion : 쿠션, 방석을 지칭하며 쿠션은 실용적인 목적도 있으나 장식용이나 등받이용으로 사용한다. 보통 30cm×30cm, 40cm×40cm, 50cm×50cm의 사이즈를 기본으로 한다.

⑤ Pillowcase : 베개닛, 베개 속통 커버를 말한다.

<그림28> 은 Bed linen 중 European Sham, Pillow sham, Cushion을 통틀어 보여준다.

나. 베드 커버류

① Bed sheet(베드시트) : 매트리스를 덮는 커버로 사용되며, flat sheet[39]와 fitted sheet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전통적인 색은 백색이지만 오늘날에는 다양한 색과 패턴으로 디자인한다. 일반적으로는 평직의 면, 린넨, 면과 폴리에스테르 혼방소재를 사용하며 특별히 실크, 레이온, 대나무 섬유나 겨울용으로는 flanel(플란넬)[40]sheet를 사용하기도 하며 품질은 소재의 번수, 직물 밀도에 따라 좌우되며 일반적으로 높은 번수와 부드러운 직물이 선호된다.<그림29>

② Bed skirt (Bed Ruffle, 침대커버) : 매트리스 아랫부분을 가려주는 용도로 사용되며 박스 스프링과 다리를 덮기 위한 장식적인 천으로 더스터(Duster) 혹은 더스트 러플(Dust Ruffle)이라고도 한다.<그림30>

③ Fitted sheet(매트리스커버) : 매트리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매트리스 커버로 매트리스 모양대로 각을 잡아서 박음질 되어있는 시트이다. 홑겹일 경우 매트리스 위에 패드를 깔거나 커버 상판을 누벼서 사용하기도 한다.<그림31>

④ Bed spread(스프레드) : 바닥까지 닿은 침대 커버 형태로서 침대 전체를 가릴 수 잇는 크기의 직물이다. 베드 스프레드를 사용할 경우는 Bed Skirt(베드스커트)를 사용하지 않는다.<그림32>

⑤ Bed pad(패드) : 솜을 얇게 넣어서 누빈 침대용 요와 같은 형태로 원래는 매트리스 시트를 싸기 전에 매트리스 위에 깔아서 이용하는 것으로 각 모서리에 고

39) flat sheet : 심플한 정사각 형태의 넓은 직물

40) flanel(플란넬) : 중세(中細) 굵기의 메리노 방모사를 사용해서 평직 또는 능직으로 직조하여 양면이나 한면을 기모(起毛)가공한다. 플라노·넬(융)이라고도 한다.

무 밴드를 달아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사용한다.<그림33>

<그림29> Bed sheet
출처:www.ralphlauen.com

<그림30> Bed skirt
출처:www.ralphlauen.com

<그림31> Fitted sheet
출처:www.ralphlauen.com

<그림32> Bed spread
출처:www.gmarket.co.kr

<그림33> Bed pad
출처:www.nubizio.co.kr

다. 담요 및 이불류

① Blanket(담요) : 담요를 말하며 시트와 함께 이불 대용으로 사용한다. 양모, 면 또는 인조섬유나 그 외 혼방사를 사용한 능직 또는 평직의 기모직물을 이용한다.<그림34>

② Throw : 침대 아랫부분에 걸쳐 놓는 연출용으로 털, 니트, 면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다.<그림35>

③ Comforter(차렵) : 일반적으로 넓은 정사각 형태이며 오리털, 울, 실크와 같은 천연이나 합성 소재의 충전재를 넣고 퀼팅한 누비형태의 두꺼운 차렵이불로 세탁시 이불 속(솜)까지 세탁한다. 때로는 duvet이나 blanket형태로서 매트리스 패드로

뿐만 아니라 수면 동안 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그림36>

④ Quilt(누비이불) : 솜, 털, 깃털 등을 넣어 만든 차렵이불처럼 얇은 솜으로 누빈 이불이다. 퀼트라고 지칭하며 전형적으로 bed skirt, pillow sham, pillow를 포함하여 세트 구성하기도 한다.<그림37>

⑤ Duvet cover(이불커버) : 속통(듀벳, duvet)을 넣을 수 있는 이불 커버이다. 속통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커버를 씌워 세탁이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100% 순면이 많이 사용되지만 패션상품으로서 다른 아이템과 코디네이트 되도록 같은 패턴이나 디테일, 원단, 칼라 등을 사용하여 디자인을 매치하며 폴리에스테르, 실크, 레이온, 울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다. 안쪽의 몸에 닿는 부분은 면을 사용하는데 주로 순면이나 CVC등을 사용하고 주로 아래쪽으로 지퍼나 버튼, 끈으로 여미게 구성되어 진다.<그림38>

<그림34> Blanket
출처: 프리티하우스

<그림35> Throw
출처:www.ralphlauen.com

<그림36> Comforter
출처:www.ralphlauen.com

<그림37> Quilt
출처: www.orvis.com

<그림38> Duvet cover
출처:www.ralphlauen.com

2)한실 침구 품목

① 개량 이불, 요 - 난지 및 호청부분이 몸판과 동일하게 구성되며 주로 양단을 사용한다.

② 전통 이불, 요 - 흰 호청을 사용한 전통 방식의 제품으로 요즘은 별도로 개발하지 않으며 요청 시 맞춤으로 주로 제작 되어 진다.

③ 간이보료 세트 - 보료 + 장침 + 방석2

④ 전통보료 세트 - 보료 + 등받이 +장침 +단침 +방석5

가. 베개 및 방석류

① 베개 : 주로 작은 조각 천에 색실로 수를 놓은 베갯모로 양쪽을 장식한다. 네모난 것과 둥근 것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남자가 둥근 것, 여자가 각진 것을 사용했으나 오늘날은 차이를 두지 않고 사용한다. 베개의 속 재료로 수수, 좁쌀, 조, 메밀껍질, 말린 국화꽃등을 넣어 사용하며 최근에는 친환경, 기능성 바이어 칩 등 새로운 소재를 넣어 사용하기도 한다.<그림39>

② 장침 : 베개의 하나로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팔꿈치를 괴는데 쓰이며 모양이 사방침과 같으나 가로가 더 길다.<그림40>

<그림39> 베개

출처:www.gmarket.co.kr

<그림40> 장침

출처: www.evezary.co.kr

<그림41> 사방침

출처: www.evezary.co.kr

③ 사방침 : 팔꿈치를 괴고 비스듬히 기대어 앉을 수 있는 네모난 베개이고 동일한 여섯 면으로 구성된다.<그림41>

④ 안석 : 벽에 세워 놓고 앉을 때 몸을 기대는 방석이다.<그림42>

⑤ 방석 : 바닥에 앉을 때 밑에 까는 것으로 네모지거나 둥근형태가 있다.<그림43>

<그림42> 안석

출처: www.evezary.co.kr

<그림43> 방석

출처: www.evezary.co.kr

나. 침대커버 세트

보통 한실 웨딩이라 불리워지며 양실의 품목에 한실의 소재를 주로 사용한 동양적인 이미지를 가진 혼수 및 예단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입식 생활로 바뀐 현대에 맞춰 개발된 개량형 한실 침구이다. <그림44, 45>에서와 같이 이불커버, 침대커버, 베개 2개를 기본으로 하며 이불솜을 넣고 뺄 때 용이하도록 지퍼 처리 해주며 이불끈도 달아준다.

<그림44> 침대커버세트-1

출처: www.evezary.co.kr

<그림45> 침대커버세트-2

출처: www.evezary.co.kr

다. 단품류

① 3점 세트류(면/인견) : 혼수 및 예단용의 이불, 패드, 베개커버의 세트 구성이다. 면에 줄누비가 되어있는 소재나 땀이 나도 몽에 달라붙지 않아 청량감을 주는 인견 자카드, <그림46>의 인견 지지미 소재와 면 리플 등 여러 소재를 사용한다.

② 차렵류 : 보통 폴리에스테르 솜을 앞, 뒤 직물사이에 넣고 누벼서 여민 이불이다. 세탁 시 이불 속까지 세탁할 수 있어 사용이 용이하며 봄, 가을의 간절기에 주로 사용한다. 간혹 한실 소재도 사용하나 주로 패턴이 있는 원단이나 자수 처리하여 제작한다.<그림47>은 면 소재를 사용한 차렵이불이다.

③ 단품류 : 3점 세트와 마찬가지로 인견 자카드, 인견 지지미, 리플 등의 소재를 사용하며 단품이불, 단품패드 등의 품목을 지칭한다.

④ 기타 : 후염류, 계절제품(여름 상품 및 극세사 류)등이 있다. <그림48>은 제품을 만든 뒤 염색하는 후염류 제품으로 피그먼트 패드이다.

<그림46> 3점 세트류

출처:www.phghome.co.kr

<그림47> 차렵류

출처: www.ebedding.co.kr

<그림48> 기타

출처:www.ebedding.co.kr

라. 요, 이불류

① 홑이불 : 누비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볍게 쓰기 좋으나 세탁 후 다림질이 필요하며 자수를 할 경우에는 원단 뒤에 부직포 또는 솜을 대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그림49>와 같이 솜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퍼처리 해준다.

② 누비이불 : 홑겹 제품보다 형태 견고성이 우수하다. 독특한 느낌은 좋으나 사

용 시 무거운 단점이 있다. 자수 작업 시에는 원단 뒤에 누비용 솜을 대고 함께 작업한다.<그림50>

③ 겹이불 : 솜을 두지 않고 두 개의 천을 겉과 안을 맞대어 여민 이불 형태이다. 주로 여름용으로 쓰이며 솜을 넣어 사용하지 않으므로 지퍼처리 하지 않는다. <그림51>은 난지가 인견으로 되어진 겹이불이다.

<그림49> 홑이불
출처: www.ebedding.co.kr

<그림50> 누비이불
출처: www.ebedding.co.kr

<그림51> 겹이불
출처: www.evezary.co.kr

④ 예단 차렵 : 40수 트윌 면, 60수 샤틴 면, 공단, 화학섬유, 양단 등의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솜을 앞, 뒤 직물 사이에 넣고 여민 이불이다. <그림52>는 광택이 우수한 공단 소재를 사용한 차렵이불이다.

⑤ 요 : 취침 시 바닥에 깔아 사용하는 침구로서 주로 한실이불과 같이 쓰여 세트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그림53>

⑥ 보료 : 자리에 늘 깔아두는 두툼하게 만든 요를 말한다. <그림54>의 전통보료와 간이 보료로 나뉜다.

<그림52> 예단 차렵
출처: www.ebedding.co.kr

<그림53> 요
출처: www.evezary.co.kr

<그림54> 보료
출처: www.evezary.co.kr

6. 속통의 종류

1) 충전제(Filling) 소재

충전재 소재로는 크게 천연 섬유, 친환경섬유, 기능성 섬유로 나뉜다.

천연섬유는 우모, 양모, 명주, 목화 등으로 예전부터 주로 사용해 오던 종류가 많고 친환경 섬유로는 최근 새롭게 개발되어 각광을 받고 있는 콩섬유, 옥수수(인지오)섬유 등이 있으며 기능성 섬유로는 가격 면에서 천연섬유보다 저렴하면서 항균, 방충 등의 기능을 가진 항균 폴리에스테르, 극세사, 중공사 등이 있다.

가. 견(Silk) 속통

견 속통은 동물성 천연솜이다. 견 속통은 천연의 흡습효과를 지닌다고 할 만큼 흡습성이 뛰어나며 자연스럽게 몸을 감싸는 부드러움이 특징이다. 또한 외부의 차가운 열이 잘 전도되지 않아 보온성이 우수하며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 피부세포를 활성화 시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 피부 친화적 속통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품질이 좋은 누에고치는 직물로 사용하고 나방이 생기거나 불량인 누에고치는 솜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견 속통은 흔히 명주솜이라고 불리는데 원사가 희고 결이 깨끗한 것이 좋은 명주솜이며 부드럽고 윤기가 난다. 견 속통은 속통 중 고급 속통에 속한다.

나. 양모(Wool) 속통

① 양모 속통의 특성

양모 속통은 양털을 이용하여 만드는 동물성 천연 솜으로 독특한 권축(크림프)[41]으로 면, 명주, 화학 섬유에 비해 흡습성, 발습성이 탁월하여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섬유 사이에 60%이상의 공기를 함유하고 있어서 이 공기로 찬공기

41) 권축(crimp) : 직물에서 실의 꼬임에 의해 직면(織面)에 나타나는 파상(波狀)·입상(粒狀)의 주름.

의 전달을 막아주는 단열 작용을 하여 겨울에 따뜻하며 여름에는 섬유 사이 공기층이 열을 차단해 쾌적하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양모 솜은 불꽃을 제거하면 자연 소화하는 천연 난연성의 특징이 있으며 양모 속통은 드라이 크리닝이 원칙이지만 현재는 워셔블 양모 솜이 활성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양모 제품에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울마크가 부여되는데 울마크는 Wool 100% 함유 제품만 해당되며 울마크블렌드는 Wool 50% 이상 함유 제품만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울 블렌드는 Wool 30-50% 함유 제품만 해당된다.

② 양모 속통의 가공

양모 속통은 워셔블 가공, 방충 가공, 항균·방취가공 등을 하는데 워셔블 가공은 양모섬유 표면의 스케일(비늘)을 제거하는 가공으로 솜의 뭉침을 방지하고 물세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공이며 방충 가공은 좀이나 벌레에 의해 상하지 않도록 양모 염색체에 방충제를 녹여 섬유에 흡수시키는 가공이다. 또한 항균, 방취가공은 항균과 양모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는 가공이다.

양모 속통의 가공 방법은 사용 중 습기를 흡수해 그대로 두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햇빛 건조를 해야 하며 울 표면을 스케일로 되어 있어 이불 커버로 양모 섬유가 빠져 나오기 쉬운 성질이 있으므로 원단에 울 프루프 가공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다. 우모(羽毛) 속통

① 우모(羽毛) 속통의 특성

우모(羽毛) 속통은 수조류(거위, 오리)의 솜털과 깃털을 사용해 만들어진 속통을 말하는데 다운 볼은 가볍고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가볍고 따뜻하여 보온성이 우수하여 속통뿐만 아니라 의류에도 많이 사용된다. 다운의 특성으로 가볍고 적은 양으로도 큰 부피를 얻을 수 있어 가볍다. 수분을 흡수하고 투습성이 우수해 수면 중 땀에 의한 열을 느끼지 못하여 흡습성과 통기성이 매우 우수하다. 드레이프성을 가지고 있어 몸을 감싸 뒤척임을 해도 침구안의 따뜻한 공기를 뺏기지 않고 냉기의 유입도 방지한다. 탄력성이 풍부하고 회복률이 높아 잘 가라앉지 않으면서 외부의 온도, 습도 변화에 따라 수축, 팽창, 흡습, 방습하는 고유 특징으로 보온을 유지

한다.

우모는 머쉰피크(Machine-pick), 핸드피크(Hand-pick), 라이프피크(Life-pick)로 나뉜다. 털의 채취기간, 채취한 후의 보관상태, 가공 여부에 따라 질적 차이를 보여주는데 품질, 가격적인 면에서 보면 라이프피크가 최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머쉰피크(Machine-pick)는 식용의 오리나 거위에서 기계로 채취하는 방법이고 핸드피크(Hand-pick)는 다운볼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사람의 손으로 채취하는 방법이며 라이프피크(Life-pick) : 일정기간 이상 사육된 수조에서 생긴 그대로의 것을 채위하는 방법이다.

추운 지방의 폴란드, 헝가리산 수조 털이 매우 우수하며 세계에서 가장 고급 우모는 북극해 아이슬란드의 영하 50도 이하의 북극지방에서 서식하는 아이더 덕의 가슴 부분(다운)이라고 한다.

가격의 차이에 따라 feather(깃털)와 down(솜털)의 비율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데 고가로 판매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feather 함율이 10%이내의 것이다.

② 우모(羽毛) 속통의 관리 방법

우모 냄새는 사용하면서도 자연히 없어지지만 지속 시에는 이불을 접어 중간의 공기를 빼고 새로운 공기를 넣어서 건조시킨다. 우모이불은 우모의 빠짐을 방지하기 위한 다운프루프 가공이 필수적이고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며 자주 세탁하면 노화가 빨리 진행되므로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탁 가능한 경우에는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라. 목화 속통

흔히 목화솜이라고 불리는 목화속통은 식물성 천연 솜이다. 면 섬유 특성의 중공과 천연꼬임으로 인해 섬유 사이에 공기층을 무수히 형성하여 우수한 보온성을 지니며 흡습성이 뛰어나 습기를 잘 흡수해서 정전기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부피감과 탄력성이 뛰어난데 천연 꼬임으로 인해 부피감이 있고 적당한 딱딱함과 탄성을 지닌다. 수분과 압력으로 가라앉아도 햇빛 건조를 시켜주면 다시 부피감이 살아나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고 피부 친화적인 천연 섬유로서 알레르기 체질에 효과적이다. 유기농 면이 사용되면 특히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색상은 아이보리에서 어두운 노랑색까지 다양하고 목화의 단점인 무게감등을 보완하기 위해 혼합용(면+폴리) 솜을 혼방 생산하기도 한다.

목화 속통은 햇볕에 말리면 면의 중공이 살아나 벌키성[42]이 생기며 일광 건조하여 관리하는데 일광건조만으로도 습기제거나 소독이 가능하다.

마. 옥수수(인지오 Ingeo) 속통

옥수수(Ingio)속통은 옥수수를 발효하여 글루코스(glucose)[43]과정을 통해 폴리젖산(PLA) 수지로 만들어 옥수수 섬유 속통이 되는 것이다. 옥수수 속통은 전분65% 함유되어 있다.

옥수수 소통은 항균성을 가지고 있어 항 알레르기 작용을 한다. 집먼지 진드기를 차단하고 박테리아 서식 억제시키는 작용을 한다. 우수한 쾌적함을 가지고 있는데 공기 통기성과 수분 전달성이 뛰어나며 드레이프성이 좋고 촉감이 실크와 유사하다. 기본 인지오 베개속은 인지오50% +폴리에스테르 50%로 이루어 진다.

바. 기능성 폴리에스테르 속통

대표적인 이불 속통으로 폴리에스테르가 사용되지만 현재는 다양한 기능을 부여한 기능성 폴리에스테르가 부각되고 있다. 햇빛에 자주 건조시키며 소재에 따라 세탁이 가능한 것도 있으므로 세탁 표시에 따라 손질하도록 해야 한다.

폴리에스테르 속통에는 다중공 폴리에스테르 속통, 저데니아 속통, 고 기능성 속통, 극세사 속통, 듀폰 컴포맥스 속통 등이 있다.

다중공 폴리에스테르 속통은 듀폰 홀로필(4중공), 퀼로필(7중공), 홀로우 파이버(7중공)으로 그 명칭이 다양하며 원상 회복률이 우수하고 경량감, 벌키성, 보온성, 수분전달력이 우수하다.

저데니아 속통은 일반 폴리에스테르와 극세사의 중간적 단계로서 벌키성과 보온성이 우수하며 음이온, 은나노, 항균, 항취 가공을 부여하기도 한다.

---

42) 벌키성 : 외견상의 부피, 공간을 차지하는 크기의 정도를 나타내며 함기성(含氣性)이 풍부하고 탄성이 뛰어난 점을 의미한다.

43) 글루코스(glucose) : 즉 포도당(葡萄糖)을 말하며 알데하이드 기를 가지는 당의 일종으로 사슬 모양보다는 육각고리형 모양으로 흔히 존재한다.

고기능성 속통은 온도를 조절하고 보온성을 강조한 기능성 소재로 Thinsulate, Outlast, PCM소재, Comforel 등이 있고 항 박테리아, 항 알러지, 항 정전기 소재로는 Amicor pure, X-static, 탄소섬유, microfiber 등이 있다.

극세사 속통은 충전재 사용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경량, 보온성과 벌키성이 우수하며 탁월한 통기성과 보온성을 유지한다.

듀폰 컴포맥스 속통은 공기 함유율이 높고 공기 중의 상태로 수분을 흡수, 방출하여 쾌적하고 보온성이 뛰어나며 가볍다.

2) 겉감(Cover) 소재

충전재를 씌우는 겉감 소재로는 면, T/C, 폴리에스테르(기능), 극세사 등 다양한 소재들이 사용된다. 우모(羽毛)의 경우 down-proof[44]가공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 소재로는 마이크로 모달[45], 마이크로 바티스트면, 퍼칼면, 텐셀, 라이오셀 등이 있고 기능성 소재로는 진드기 방지 기능의 극세사와 항균 가공을 사용하여 제작되어지며 기능성 가공 소재는 음이온 가공(오염된 공기 속의 양이온을 중화하는 특징, 쾌적함, 상쾌함 유지), 항균가공, 알로에 베라 가공(자작나무 추출), 비타민 E 가공, 호호바 오일 가공, peach-skin가공[46](부드러운 촉감)등 다양한 방법들도 가공되어진 소재들을 사용한다.

7. 침장류의 제작방법

침장류의 제작 방법은 박음질을 기본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접 1.5cm~2cm를 기본으로 하고 완성 전 오버록 처리는 기본으로 해야 한다. 이불커버는 홑이불과 누비이불로 나뉘는데 홑이불은 앞면에 시접이 없는 경우 안쪽의 모양이 깨끗하므로 앞면과 뒷면만 놓고 박음질한다. 앞면에 시접이 조금 있어 지저분해 보일 경우 앞면과 뒷면 사이에 T.C를 넣고 제작한다. 누비이불은 누비가 되어

44) down proof 가공 : 면 원단을 압착으로 인해 원단 사이의 틈새를 메워주는 것이다. 면 원단은 코팅을 하지 않으며 코팅을 하는 원단은 침낭에 사용되는 나일론을 코팅한다.

45) 마이크로 모달 : 오스트리아에서 자란 너도 밤나무로 만들어진 100% 천연소재로 가볍고 부드럽다.

46) peach-skin 가공 : 초극세 섬유를 사용한 고밀도 직물에 박기모 처리를 하여 부드러운 촉감을 부여하는 가공.

있는 이불을 말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계절 사용할 수 있도록 단면퀼팅을 사이에 넣고 뒷면에 지퍼처리를 하여 솜을 넣어서 쓸 수 있도록 제작한다. 이불솜을 넣어 쓸 경우를 생각하여 이불끈을 정해진 위치에 14개 달아주고 뒷면에 지퍼 위치는 밑에서 20cm를 기준으로 하여 이불을 덮었을때 발쪽으로 지퍼가 위치하도록 제작하고 오버록 처리가 된 후 뒤집을 때 뒷면 원단이 앞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0.5cm 정도로 완성 스티치 즉 박음질해 마무리 해준다. 한실 이불·요의 경우 보통 속포함으로 속통작업이 되어져서 나가기 때문에 간혹 단면퀼팅으로 제작되어지기도 하나 보통 홑이불로 제작한다. 이불끈은 동일하게 들어간다.

베개 커버는 보통 날개처리가 되지 않는 베개와 5~7cm로 날개처리가 되는 베개로 나뉘어 지는데 제작방법은 홑베개, 누비베개, 한실에서 사용되는 칩베개(사각, 원형베개)로 이불커버와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제작되어지고 오버록 처리 후 뒤집어 정해진 간격으로 스티치 한다. 칩베개는 속 베개와 베개닛으로 나뉘어 지는데 옛 것은 속의 재료가 메밀껍질, 살구 씨, 말린 국화꽃, 벼 껍질 등을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 등이 들어갔으나 요즘은 위생상의 문제로 인하여 항균 칩을 주로 사용한다. 속 베개는 칩을 꺼내 세탁하기 용이하도록 지퍼 처리하여 제작하고 베개닛도 손바느질로 여며주기도 하나 지퍼처리된 것들도 있다. 제작방법 및 형태 등이 거의 변하지 않고 예전 베개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침대커버는 몸판은 홑겹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누비처리 되어 보온성과 뒤틀림을 방지하였고 침대 다리부분으로 내려오는 스커트는 누빔 스커트와 주름으로 장식한 프릴스커트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침대 몸판에 파이핑 테이프로 파이핑 줄을 감싸 몸판에 부착한 뒤 스커트 부분을 딧 붙여준다. 침대 머리 부분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15cm정도를 머릿단으로 제작하고 침대 매트리스에 사용할 때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킬 수 있도록 뒷면 정해진 위치에 고무밴드를 달아 준다. 주름 스커트는 자연스런 주름을 잡기도 하고 간격을 정하여 맞주름을 잡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주름스커트일 경우 원단 한 쪽을 얇게 말아 박아 마무리 한 뒤 몸판에 주름이 잡혀진 스커트를 위에 놓아 박음질하고 누비 스커트일 경우 미적인 부분도 감안하고 외곽에 솜이 그대로 보이는 것도 보완하기 위해 랍바 처리해 준다. 보통 7cm가 기본적인 사이즈이나 제품의 디자인에 따라 줄이거나 넓힐 수 있다. 침대 스커트 랍바는 우선 뒷면 밑단 부분에서 1cm를 떼고 박음질한 후 앞부분으로 넘겨 일정하게 접은 후 반듯하게 박음질 하고 모서리 부분은 꼭

지점에 맞게 삼각형으로 접어 박음질하여 완성한다. 누비 스커트일 경우 앞면 스커트와 옆면 스커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 다리가 보여 미관상 안 좋을 수 있으니 속 스커트를 덧대어 처리해준다. 침대커버도 역시 각자의 부분들이 합쳐져서 완성되면 올이 풀리지 않도록 오버록으로 처리하여 깨끗하게 마무리한다.

침대커버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매트리스 커버는 침대 프레임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다리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보이게 매트리스만을 씌우는 방식이다. 제작방법은 누비 몸판이나 홑 몸판에 매트리스 세로부분을 덮는 프릴 밑단에 1.5~2cm정도 안에 고무 밴드를 넣어 매트리스 안쪽에서 프릴이 모아지도록 밴드처리해서 몸판과 같이 박음질해주고 매트리스 커버가 움직이지 않도록 침대커버와 동일하게 정해진 위치에 사면 밴드를 부착해준다.

마지막으로 패드는 침대커버나 매트리스커버 위에 까는 것이다. 앞면은 면,양단 뒷면은 T.C로 누비는 침대커버와 달리 앞면, 뒷면을 다 면으로 누비고 랍바[47]는 이불의 소재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두께는 보통 4~7cm정도를 기본으로 하며 디자인에 따라 조금씩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 침대 커버의 랍바와 달리 앞뒷면이 동일한 사이즈로 박음질 되어야 하기 때문에 4cm 랍바를 예로 들면 뒷면 테두리에서 3cm 떼고 박음질한 뒤 앞면으로 넘기고 뒷면에서 박음질하면서 표시된 부분에 맞게 일정하게 접어 앞면과 뒷면의 랍바가 같이 박음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7) 랍바 : 침대커버나 패드의 외곽 테두리를 마무리하는 방법을 말하는 제작기법 명칭으로 흔히 알고 있는 바이어스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나 바이어스는 사선으로 재단하는 것이고 랍바는 직선으로 재단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감싸는 것을 의미한다.

Ⅳ. 조각보의 침장류 활용사례

1. 조각보

한국은 유교를 숭상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 속에서 가능한 바느질을 이용한 생활용품이 발달하였으며 지리적으로 추운 기후에 속하며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는 높아 협소한 생활공간이 보자기의 발달과 연관이 깊다. 즉 주거공간이 협소함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자리를 적게 차지하는 물건이 가재도구로서 바람직했다. 보자기는 개폐에 따라 용적의 신축이 자유롭다는 특징 때문에 널리 사용된 것이고 좀 더 발달된 단계의 조각보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48] 또한 물건을 싸고 덮어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쓰이기도 하였으며 민간의 신앙적 측면에서 수를 놓거나 조각 천들을 하나하나 이어 붙여 복을 비는 마음을 표현하였고 직물이 재화로서의 가치를 가졌던 폐쇄된 사회의 여성들은 작은 조각천 이라도 아끼는 생활습관으로 조각보 문화를 생성해 나가며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갔고 조각보를 조형적으로 구성함으로서 노동과 예술이 합쳐진 활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49]

이러한 바느질을 이용한 생활용품이 서양에서도 발달하였으며 조각보와 같이 조각천을 아끼고자 하는 의도에서 발생배경이 유사한 패치워크를 들 수 있다.

패치워크는 11~12세기경 원정 갔던 십자군에 의해 군기 등의 형태로 동방의 기법이 유럽에 전파되었고 유럽에 전해진 패치워크는 14세기 중에는 중요한 장식예술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50]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활과 밀접하게 발달해 온 바느질은 그 나라의 생활방식에 맞게 조각보와 패치워크로 정착하였으며 이를 통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51]

---

48) 박장희 「조선 조각보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예학회 논문집, 1999, p.74
49) 김선영 「조각보를 중심으로 본 전통 보자기 미의 현대 재해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4-5
50) 유보리 「서양 전통 패치워크 문양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5
51) 이정수.송명견 「바느질기법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디자인포럼21논문집, 2001, pp.40-41

보자기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생활용품으로서 천으로 만든 것이 주종을 이루나 밥상이나 목판을 덮는 식지보(食紙褓)와 같은 경우 기름종이를 재료로 하고 형태는 주로 사각형의 형태로 만들어 사용되었다. 보자기의 현대 명칭이 언제부터 표준어로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명칭이 자주 변천해 온 것은 사실이다.

보자기의 명칭은 표준말인 보자기 외에 복, 보, 보자 등으로 불리워 왔고 각 지방의 방언 명칭까지 더하면 매우 다양하다.[52]

조각보는 생활 속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한 상용보(常用褓)의 일종인데 현재 남아있는 조각보 가운데는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이 반 수 이상이다. 현존하는 조각보의 직물에는 사(紗), 라(羅)류의 것이 많은데 이것들은 모두 기계직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기계직 직물이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이며 국내에서 기계직 직물을 생산했을 뿐 아니라 일본 등지에서 수입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현존하는 조각보들의 대부분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엽에 걸쳐 제작된 것들임을 알 수 있다.[53] 현대에 와서도 규방 공예라 하여 제작되어지는 조각보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예부터 내려오는 면 구성, 분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재현하여 제작되어지기도 하며 옛 보자기를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되어 손바느질 뿐만 아니라 재봉틀과 손바느질을 적절히 혼합하여 제작되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다.

조각보에 주로 사용된 색채는 자연계의 기본 색상인 적(赤), 청(靑), 황(黃), 백(白), 흑(黑)을 중심으로 청·적색과 엷은 파스텔조의 색상들이 주색을 이루고 있다. 청·적의 사용은 혼례용 조각보에서 두드러지는데 여기서 청·적은 기본 오색에 속하는 청색과 적색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붉다는 개념에 포함되는 적(赤)·홍(紅)·주(朱)·황색(黃色) 등을 포함하는 적색이며 청(靑)·록(綠)·남(藍) 등 넓은 의미에서의 청색을 일컫는 것이다. 그리고 조각보에 지배적인 중채도의 파스텔조 색상들은 기본 오색의 의미를 지니면서 매우 은은한 분위기를 보여 강렬한 원색에서와는 다른 미적 감각을 느끼게 한다.[54] 이렇게 이어져 온 오방색을 기본으로 하여 웰빙 열풍으로 더욱 각광 받고 있는 천연 염색에서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칼라들을 물론 염색 기술의 발달로 인한 더 많은 칼라들을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52) 김선영 「조각보를 중심으로 본 전통 보자기 미의 현대 재해석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3
53) 허동화 『옛 보자기』, (서울:한국자수박물관 출판부), pp.274-275
54) 박장희 「조선 조각보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예학회 논문집, 1999, p.74

조각보 제작에 있어 그 선택의 폭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각보에 주로 사용된 직물은 사(紗), 라(羅), 단(緞), 명주(明紬)와 같은 견직물과 모시이며 드물게 사(紗)종류와 모시가 이어진 것도 있으나 대부분 같은 종류끼리 조합되어 조각보를 이루고 있다. 현재 확인된 사, 라 종류로는 은초사, 생고사, 갑사, 자미사, 숙고사. 진주사, 항라 등이 있는데 자미사. 숙고사 등은 사 종류로는 두터운 편에 속하며 항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 종류는 무늬를 넣어 직조한 것이다.

단(緞)종류로는 대부분이 양단과 모본단, 공단이며 명주와 함께 쓰이기도 하며 단 종류와 명주로 만든 조각보는 겨울철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보온을 위해 대개 겹보로 되어 있고 안감으로는 같은 종류의 천을 주로 사용하였다.[55] 현대에 와서도 생고사, 갑사, 양단, 모본단 등이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으나 합성섬유가 혼합된 인조섬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실용적으로 사용되는 조각보의 소품들은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합성섬유가 함유된 양단 이라든지 노방, 공단 등이 사용되어 지기도 한다.

조각보는 일정하고 계산된 규칙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투리 천을 모아 잇기 위해 조각들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삼각형, 사각형, 원형, 마름모형 등의 구성형태를 볼 수 있다.

2. 조각보를 활용한 침장류 사례

조각보를 모티브로 하여 침장류에 활용한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한실 분야에서 디자인의 포인트는 주로 자수와 누비로 표현하는데 자수, 누비의 모티브와 칼라만으로 변화를 주는 디자인은 한계점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조각보를 디자인에 활용하는 것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조각보를 모티브로 한 제품들은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가 됨은 물론 디자인의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조각보를 모티브로 디자인 하는 것은 디자인에 맞게 도식화 하는 과정과 낱장으로 재단하는 과정이 아닌 대량으로 재단하는 공정상의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조각의 모양과 디자인에 따른 바느질 방법의 차이점으로 인한 제작 공정의 어려움들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디자인의 차별화를 가져오지 못

55) 앞의 책, p.275

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대량으로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브랜드의 제품들은 이런 공정상의 문제점과 가격을 결정하는 원가구조로 인해 소재 사용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들어 실제 조각보를 모티브로 한 침장류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보통 전통 한복매장에서는 혼수 고객을 중심으로 고급스러운 소재를 주로 사용하여 수공예 위주의 침장류를 소량생산하거나 고객 개인의 취향에 맞춰 침장류를 맞춤으로 제작한다. 브랜드의 침장류들 역시 디자인 부분에서 차별화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조각보를 활용한 침장류의 개발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간혹 브랜드 자체의 생산라인에서 직접 제작하기도 하나 보통 생산업체에 디자인을 주어 제작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점점 더 많은 제품들이 생산되어 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요즘 출시된 조각보를 활용한 침장류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림55>침장류 활용사례-1
http://www.phghome.co.kr

<그림56>침장류 활용사례-2
http://www.phghome.co.kr

<그림57>침장류 활용사례-3
http://www.jamion.co.kr

<그림55>는 이불 가운데 몸판부분을 전체 조각으로 연결하여 배치하였다. 연핑크 칼라를 바탕으로 골드, 그린, 진핑크 칼라를 연결하여 전통적인 조각보 느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하였고 화려한 문양의 띠자수를 놓아 포인트를 주었다. 조각을 연결한 후 연결부분을 손누빔으로 처리하여 볼륨감이 살아나게 함은 물론 사계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실용성을 강조한 제품이다. <그림56>은 전통 조각보 형식 중 단색과 조각보의 비율이 맞게 배치하여 규칙적인 형태감을 볼 수 있고 단정한 느낌을 준다. 조각을 연결한 후 조각과 조각 사이에 자수를 놓아 포인트

를 주었고 머릿단과 몸판 중앙부분에 조각과 자수를 연결한 라인을 배치하였다. 황금색과 그린색을 이불과 요에 적절하게 매치하여 고풍스러운 느낌이 들게 한다. <그림57>은 마치 여러 개의 상보가 한 폭에 있는 것처럼 보여 아기자기 한 느낌을 들게 한다. 공통적으로 가운데 부분은 칼라가 다른 원단에 자수를 화려하게 놓아 단조로움을 피했으며 자수를 기준으로 테두리를 하나하나 완성한 듯한 디자인으로 이불의 외곽 테두리는 옛 이불의 호청 느낌을 살려 화이트로 처리하였다.

<그림58>침장류 활용사례-4
http://www.mall.shinsegae.com

<그림59>침장류 활용사례-5
http://www.mall.shinsegae.com

<그림60>침장류 활용사례-6
http://www.hclassic.com

<그림58>은 전통 한복매장에서 제작한 침장류로서 수직실크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고 색동을 얇은 띠로 연결하여 몸판 테두리에 사방으로 배치하고 가운데 부분은 자수를 한 폭의 그림처럼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액자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 표현하였다. <그림59>는 삼각형의 형태를 규칙적으로 이어가는 조각보의 형태를 나누는 면적에 변화를 주어 활동적인 느낌으로 제작하였다. 삼각형으로 연결된 부분은 손 스티치로 한 번 더 바느질해 포인트를 줌으로써 수공예의 느낌을 더욱 강조하고 다양한 칼라를 사용하여 조각보의 화려한 패턴을 강조하였다. <그림60>은 색이 고운 명주를 사용하여 화려한 색채감을 강조하였다. 외곽의 테두리로 마감하는 것을 생략하였다. 전통적인 모티브지만 면적을 크게 구분하여 나눔으로서 현대적인 느낌이 들게 하였고 바이올렛과 레드, 골드, 아이보리를 적절히 배치하여 화려하지만 산만해 보이지 않게 침장류를 제작하였다.

Ⅴ.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침장류 분류

일반적으로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이란 개인이나 가족의 가치관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생활양식, 행동양식, 사고양식 등 생활의 모든 측면의 문화적·심리적 차이를 전체적으로 이르는 말이다.[56] 이런 라이프스타일의 관점에 맞춰서 침장류를 분류하자면 품목이나 침장류의 스타일로 분류해야 하는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 결혼, 임신, 이사 등 일생의 라이프스타일이라는 큰 맥락에서 침장류를 분류해 보고자 한다. 침장류는 의류하고는 달라서 유행이나 트렌드에 맞춰 자주 구입하기 보다는 결혼 즉 혼수, 이사, 독립, 계절, 건강 등 특별한 계기로 인해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할 때 신혼집을 새로 꾸미는 것, 시부모님께 예단으로 드리는 것, 아기가 태어났을 때, 새로운 아파트나 주택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 침장류를 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침장류는 의류처럼 트렌드나 유행에 맞춰 자주 구입하는 품목이 아니므로 그 때의 상황에 맞춰 디자인과 칼라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주로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게 된다. 또한 최근 들어 명품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춰 디자이너의 아이덴티티를 볼 수 있는 디자이너브랜드의 제품들은 기존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경쟁력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침장류를 신부용(Wedding), 혼례용, 아동용(Kids), 계절용, 웰빙용(Wellbeing), 싱글 및 주니어용(Single and Junior)의 용도별로 분류하고 박홍근(Park houng gun), 자미온(Jamion), 이브자리(Evezary), 메종 드 이영희(Maison de Lee young hee), 겐조(Kenzo), 랄프로렌 홈(Ralphlauren home)의 브랜드별로 분류하였다.

1. 용도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침장류는 개인의 취향과 인테리어 컨셉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플라워 프린트 나염 제품에서부터 장식적 요소가 배제된 모던한 느낌

56) http://100.naver.com, naver백과사전

의 침장류, 복잡한 문양의 디자인과 화려한 텍스츄어로 우아하고 아름다움을 강조한 침장류, 레이스나 프릴을 장식하는 로맨틱한 침장류, 그리고 단순한 문양이 주를 이루어 심플함을 가지는 침장류까지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볼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침장류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용도별로 분류하여 용도에 따라 제품의 디자인과 컨셉이 달라지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신부용(Wedding)

예단의 기본 세트중 신부용 혼수에 해당되는 침장류를 말한다. 주로 웨딩의 의미를 담아 공단. 폴리자카드 같은 광택이 나는 소재와 신부의 순결함을 의미하는 화이트나 핑크 칼라의 이불이 주를 이루는데 최근에는 혼수의 의미가 달라지면서 심플하고 모던한 이미지나 화사하고 감각적인 플라워 이미지, 클래식한 이미지의 명품 침장류 등을 각자의 개성에 맞게 선택하고 실용적인 측면도 고려하면서 제품 선택이 폭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림61>신부용-1
http://www.evezary.co.kr

<그림62>신부용-2
http://www.evezary.co.kr

<그림63>신부용-3
http://www.jamion.co.kr

<그림61>은 나비 자수 패턴 모티브를 사용하여 클래식한 느낌을 살리고 혼방실크의 실키한 광택감 위에 표현한 조화가 화이트의 순수함, 깨끗한 이미지와 스와로브스키의 화려한 보석과 매치되어 고급스러운 멋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제품이다. 감각적이며 고급스러움을 강조하였다. <그림62>는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화려함을 표현하였다. 폴리 공단을 사용하여 광택감이 우수하며 자수

디자인에 큐빅원석을 그대로 얹어서 특별한 신부의 느낌을 살렸고 이불의 난지부분은 오뜨꾸뛰르 컨셉으로 디자인되어 뒷면에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첨가함으로 제품을 돋보이게 디자인하였다.

<그림63>은 사랑스러운 러플 장식과 모던 플라워의 자수 모티브를 사용하여 화이트의 실키한 광택감 위에 표현된 이미지가 큐트하면서 엘레강스한 느낌을 전해주어 전형적인 신부이불의 느낌을 가지게 한다.

2) 혼례용(예단)

조선시대 민간용 침구에 관한 문헌 내용에 따르면 침장류의 대부분은 혼수사치(婚需奢侈)의 문제 중 하나로 침구사치(寢具奢侈)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것은 침구가 혼례 예물 중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혼수의 사치가 침구의 사치와도 큰 연관성을 갖는다 할 수 있다. 이렇듯 사치와 관련된 침장에 대한 사치도 규제의 대상이었으나 중국에서 수입된 비단, 즉 고급소재를 사용해 침구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풍습이 계급의 상하를 막론하고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57] 이불은 직사각형의 바탕천에 보색이 되는 직물을 가로로 이어 붙여 깃을 만들고 몸이 닿는 안쪽을 흰색의 홑이불(홑청)을 감싸는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불, 요가 주로 이용되었으나 현대에 서양식 좌식형태로 변화되면서 침대에 맞는 형태가 이불, 요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소재나 색상이 다양하게 변화하긴 했으나 형태나 모습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64>는 봄·가을에 입는 한복의 옷감으로 쓰는 비단의 한 가지인 국사를 사용하였고 전통적인 모티브의 꽃 패턴을 띠자수로 이용하여 옛스러운 느낌을 살려 한국적인 느낌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65>는 침대 베드 스프레드 형식으로 전통적인 이불,요의 형태에서 벗어나 현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고 있다. 양단을 사용하여 물세탁을 가능하게 하여 제품 사용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 모란꽃을 현대적으로 패턴화하여 자유롭게 배치하였고 화이트와 블루의 조화로 다소 무거울 수 있는 혼례용 침장류의 분위기를 산뜻하게 만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림66>은 머릿단의 다섯 가지 색동 조각들과 고상한 패치자수가 어우러져 단아하면서도 화려한 컬러감을 볼 수 있다. 부귀와 화목을 상징하는 모란꽃이 이불 전체에 자수

57) 박지연 「조선 시대 침구(寢具)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20-26

되어 있으며 노리개의 매치로 포인트를 주어 전통적인 느낌을 살리고 침대커버 형태로 제작하여 현대식 생활 패턴에 맞는 침장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림64>혼례용-1
http://www.jamion.co.kr

<그림65>혼례용-2
http://www.phghome.co.kr

<그림66>혼례용-3
http://www.evezary.co.kr

3) 아동용(Kids)

아동용 침장류는 아이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침구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패턴들이 주를 이루고 칼라도 핑크색계열이나 하늘색 계열, 노란색 계열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소재도 거의 대부분이 순면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능성을 추가하여 항균, 방취 가공한 원단에서부터 집먼지 진드기, 알러지 방지 기능을 하는 원단까지 친환경의 다양한 소재들이 주로 사용된다. 아동용 침장류는 자체의 브랜드로 출시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시장성이 그리 크지 않아 대부분이 브랜드에 편입되어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그림67>은 40수 평직원단을 사용한 핸드메이트 아플리케피치 디자인으로 손으로 패치작업을 하여, 정성이 들어간 아동용 침구로, 여아용으로 제작되었다. 슈즈와 핸드백 등 캐릭터가 있는 제품으로 아기자기하면서도 산뜻한 컬러가 특징이다.<그림68>은 '냉장고 나라 코코몽' 캐릭터 제품으로 이불과 베개 앞의 블루 바닥이 청바지의 진느낌을 주며 코코몽과 친구들이 귀여운 패치느낌의 전면에 표현된 제품이다. 뒷면 역시 깔끔한 느낌의 스트라이프 원단을 사용하여 산뜻한 느낌이 든다. 블루컬러는 집중력을 키워주는 색으로 산만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면60수샤틴 소재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감촉과 고급스러운 광택감이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그림69>는 히트 캐릭터인 호박씨로서 하트와 레이스, 샹드리에를 표현한 패턴이 사랑스럽고 발랄한 느낌을 주며, 누비이불에 손누비를 하여 포근함을 주는 제품으로 베개컷을 별도로 프린트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앞과 뒤 양면사용 가능하게 제작되었고 이불과 베개에 레이스를 넣은 프릴을 사용하여 여아용의 느낌을 충분히 강조하였다.

<그림67>아동용-1
http://www.ebedding.co.kr

<그림68>아동용-2
http://www.evezary.co.kr

<그림69>아동용-3
http://www.evezary.co.kr

4) 계절용

사계절 중 여름제품을 보통 계절용 침장류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겨울용 소재도 따로 제작되고 있다. 여름에는 좀 더 시원한,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게 제작되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여름용으로는 보통 모시, 인견, 아사, 리플 라미 등으로 제작된 이불들이 주로 애용되는데 이는 몸에 달라붙지 않아 쾌적함과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여기에 맞는 제품들도 아주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겨울용으로는 대표적으로 극세사를 들 수 있고 일부분이지만 니트류, 퍼(털), 벨벳 등도 사용되고 있다. 예단에 포함되기도 하는 계절용 침장류는 자수나 소재의 차별화로 동양의 느낌이 나게 하는 한실류 제품들이 있고 꽃무늬 나염이나 서양적인 모티브를 사용한 현대적인 느낌의 제품들도 있다.

<그림70>의 모시 침구는 섬유작가 이성순 씨의 작품이다. 통기성이 좋고 습기의 흡수와 발산이 빠른 모시 침구는 까슬까슬하고 시원한 촉감이 더운 여름 체감온도

를 낮춰준다. 꽃무늬 자수나 조각보를 덧댄 전통 스타일보다는 조형성을 강조한 현대적인 디자인을 강조하였고 모시의 본래 빛깔 위에 검은색 직선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점이 돋보인다. <그림71>은 극세사를 소재로 한 제품으로 기존의 밋밋한 패턴과 솔리드 제품과는 차별화된 트랜디한 제품으로 감각적인 컬러를 사용하였고 인테리어적 효과와 실용성을 높인 차렵이불이다. 가볍고 따뜻한 극세사 소재는 흡수성과 발산, 건조성이 뛰어나 물세탁이 용이한 실용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72>는 클래식하면서 모던한 모티브에 부드러운 색상으로 우아함을 느끼게 하는 패턴 디자인이 동양적인 고급스러움을 표현해주며 피부에 닿는 느낌이 시원하고 깔깔한 터치감이 좋은 인견소재를 줄누비로 곱게 누벼 청량감을 주는 제품이다.

<그림70>계절용-1
http://www.design.co.kr

<그림71>계절용-2
http://www.ebedding.co.kr

<그림72>계절용-3
http://www.evezary.co.kr

5) 웰빙용(Wellbeing)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침구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소재도 대나무 섬유, 유기농면, 텐셀, 종이섬유, 숯섬유, 천연염색된 섬유 등으로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대기오염, 환경오염 등으로 아토피나 피부질환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침장류의 디자인에 국한되었던 부분이 소재에 대한 관심으로 번져가면서 일반 제품과 차별화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그림73>은 부드러운 감촉과 고급스러운 천연소재의 오가닉실크 제품으로 앞면은 오가닉 실크, 뒷면은 오가닉 면의 매치로 우아한 깃털자수가 돋보이는 웨딩, 혼수 상품으로 적당하며 고급스러운 오가닉으로 자연의 순수함을 느낄 수 있고 유기

농 실크, 면은 3년간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 생산된 면화로서 아토피피부염 및 민감한 피부의 트러블을 최소화시킨다. 이불 뒷지, 베개 뒷지는 오가닉 면을 사용하여 실용성을 높였다. <그림74>는 아이보리 종이섬유에 그린실크의 배색으로 싱그러움을 표현하였으며, 올리브 나뭇잎 모티브가 다정함과 건강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로하스 제품이다. 마닐라마를 원료로 만든 종이섬유를 사용한 친환경 소재로, 우수한 통기성과 흡습성과 보온성이 뛰어나 기능성과 고급스러움을 겸비하였고 이불 뒷지, 베개 뒷지는 60수 샤틴을 사용하여 실용성을 높였다. <그림75>는 자연스러운 붓터치와 바람이 부는듯한 내츄럴 패턴이 편안함을 주는 세련된 패턴을 보여주며 전장디자인으로 연폭선이 눈에 띄지 않게 마치 한 장의 그림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천연의 기능성 소재인 텐셀을 사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수면에 도움을 주는 웰빙 제품이다. 텐셀은 100%의 나무 펄프로부터 온 천연원료를 사용한 소재로 부드러운 촉감과 뛰어난 흡수성, 수분조절 기능이 탁월하여 환경친화적인 소재이다.

<그림73>웰빙용-1
http://www.evezary.co.kr

<그림74>웰빙용-2
http://www.evezary.co.kr

<그림75>웰빙용-3
http://www.evezar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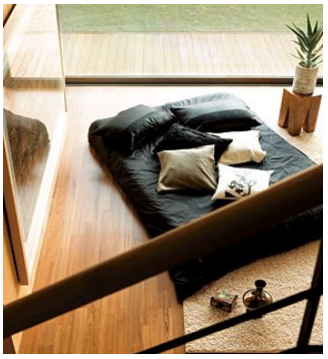
6) 싱글 및 주니어용(Single and Junior)

모던하고 심플한 체크나 스트라이프, 도트, 잔잔한 꽃이나 무지원단이 주로 사용되며 싱글족이나 주니어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컨셉이 제안되고 다채로운 제품들이 서로 조화롭게 믹스매치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코디상품들이 선호되며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독특한 상품들도 있다. 혼자서

침대를 사용하다보니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침대커버 보다는 매트리스커버가 선호된다.

<그림76>싱글 및 주니어용-1
http://www.akmall.com

<그림77>싱글 및 주니어용-3
http://www.design.co.kr



<그림78>싱글 및 주니어용-2
http://www.evezary.co.kr

<그림76>은 기하학적인 간지패턴의 가로 스트라이프 디자인으로 세련된 느낌을 주며 차분한 그레이컬러에 그린, 오렌지 컬러를 사용하여 중성적이며 생동감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뒷면에는 오렌지 컬러로 매치하여 화사함이 돋보인다. <그림77>은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가며 피어있는 꽃과 새, 날아다니는 잠자리가 한폭의 그림을 연상시키며 여러가지 컬러의 보더 패턴 매치는 세련되면서도 고혹적인 느낌을 가지게 한다. 10대의 여학생부터 30대의 싱글여성까지 소녀적인 감성을 느끼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적절한 제품으로 면60수 샤틴 소재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감촉과 고급스러운 광택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림78>은 크게 멋 부리지 않아도 언제나 기본 이상의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랙이다.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블랙 침구는 카리스마 넘치는 품위와 우아함을 표현한다. 또한 블랙은 믹스 매치하는 컬러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뀔 수 있는데 화이트 컬러의 침구와 만나 모던함을, 베이지나 카키색, 원목 소재와 만나 모던 내추럴 스타일이 연출되었다. 화이트나 블랙의 단색 침구 세트를 기본으로 마련해두면 쿠션, 베드 스프레드, 퀼트 등 침구 액세서리의 컬러와 스타일에 따라 새로운 분위기로 바꿀 수 있다.

2. 브랜드별

우리나라에는 내셔널 브랜드 즉 국내브랜드를 말하는데 박홍근침장, 자미온, 이브자리, 아이리스, 님프만 등이 있고 엘르파리, 레노마, 파코라반, 에스쁘리 등 해외의 브랜드인데 로열티를 지불하고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라이센스 브랜드가 있다. 그리고 해외 브랜드를 완제품 그대로 수입해서 판매하는 직수입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에는 랄프로렌 홈, 에트로, 페리, 베르사체 홈, 겐조등 다양한 디자이너의 명품브랜드들이 있다. 이 중에서 디자인을 강조하고 침장류 제작을 우리나라에서 주로 제작하여 경쟁력이 높은 국내브랜드와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는 디자이너 브랜드 즉 직수입 브랜드의 브랜드 컨셉과 특성에 맞는 침장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박홍근 (park houng gun)

우리나라 최초의 홈패션 디자이너인 박홍근에 의해 1979년에 (주)박홍근홈패션이 설립되었다. 침구에 패션과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침실을 단순히 수면을 취하는 장소가 아니라 편안하고 아름다운 생활공간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박홍근 브랜드는 세계화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시작한지 30년을 맞이하고 있다. 2004년에는 한국 패션 브랜드 홈패션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현재 박홍근, 크레이브, 블루마린 등의 7가지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58] 백화점 매장을 비롯하여 대리점,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은 한실, 양실을 주 품목으로 하여 고급스러움을 추구하고 있다.

<그림79>는 밀도가 높은 타프타 소재에 플라워 자수를 매치시켜 모던하고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제품으로 이불커버에는 자수와 함께 난지 부분에 핀턱 가공으로 디테일을 살렸으며 베드스프레드와 이불의 끝 부분에는 핑크컬러로 후염처리된 자카드 소재를 사용하여 유러피안 감성이 묻어난다. <그림80>은 결이 살아있는 수직실크 소재를 사용하여 모던하면서 현대적인 느낌의 제품으로 실버와 민트의 세련된 조화로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표현하고 플라워 모티브를 자수로 표현

58) 한선주 「침장류 VMD의 매장 연출과 소비자 반응 연구」,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32

하여 동·서양의 느낌이 공존하는 제품이다. <그림81>은 화사한 핑크와 골드 컬러의 바탕에 아이보리 칼라를 매치하여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부귀와 영화를 나타내는 목단꽃을 현대적으로 패턴화하여 이불 몸판 전체에 자수로 표현함으로서 고급스러운 멋을 풍기고 있다. (출처:phghome.co.kr)

<그림79>박홍근-1
http://www.phghome.co.kr

<그림80>박홍근-2
http://www.phghome.co.kr

<그림81>박홍근-3
http://www.phghome.co.kr

2) 자미온 (Jamion)

자미온이란 이름은 "잠이 온다"를 연음화한 발음으로부터 나온 우리말 브랜드이다. 1974년에 시작된 자미온은 1984년 도일상사에서 지금의 자미온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침장류 시장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의 문화와 세월의 정서를 표현하고 찬란한 문화유산과 전통을 새롭고 현대적인 미감으로 재해석해 다양한 색감과 질감을 조화롭게 표현해 냄으로서 한실 즉 예단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그림82>는 이번 시즌에 친환경 소재로 주목 받고 있는 광목을 사용하여 내추럴함을 그대로 살리고 흩날리는듯한 플라워 모티브의 자수가 포인트가 되어 광목의 소재감을 살려준다. 머릿단과 하단에는 핀턱 바느질로 수공예적인 느낌을 살려 기존의 광목 침장류와 차별화를 둔 제품이다. <그림83>은 민트와 골드, 아이보리로 배열된 예단용 제품으로 흔히 이불, 요에서 사용하는 양단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은은한 꽃 모티브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폴리 자카드 원단을 사용하여 차별화를 주었고 요 몸판과 이불 머릿단에 일자 줄누비로 포인트를 줌과 동시에 실용성을 강조한 제품이다. <그림84>는 골드계열의 이국적인 패턴이 전체적으로 디자인 된

폴리 자카드 원단을 사용하여 앤틱함과 엘레강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제품으로 화려하면서도 은은한 광택감이 든다. 날개부분을 주름으로 마무리 해 웅장함을 가진 제품이다. (출처: www.jamion.co.kr)

<그림82>자미온-1
http://www.jamion.co.kr

<그림83>자미온-2
http://www.jamion.co.kr

<그림84>자미온-3
http://www.jamion.co.kr

3) 이브자리 (Evezary)

1976년 창업한 이브자리는 상품군이 다른 침장류 브랜드에 비해 매우 다양하다. 전국 550여개의 대리점과 백화점 브랜드인 미단, 라이센스 브랜드인 에스프리, 수면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지닌 로프티가 있고 이브자리 안에서도 친환경 소재만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이브웰, 럭셔리함을 바탕으로 한 루이홈, 웨딩 전문 브랜드로 개발된 메리데이, 아동과 주니어를 위한 스토리타임 등 다양한 브랜드들을 런칭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브자리에서 운영하는 멀티샵인 코디센은 침장류 뿐만 아니라 한복, 홈패션, 인테리어 전시장 등을 한 곳에서 둘러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침장류 제품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수면 환경 연구소와 디자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디자인 개발은 물론 차별화된 품질과 기능성으로 침실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그림85>는 귀족적이며 클래식 느낌의 자수퀼팅이 포인트인 실크느낌의 혼방실크를 사용한 제품으로 이불, 베개, 침대부분의 테두리부분이 고급 다이아 자수퀼팅으로 처리하여 화려함과 섬세함을 강조하였다. 부와 명예를 부르는 좋은 의미로 상

징하는 럭셔리한 골드칼라를 선정하여 혼수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이다.<그림86>은 여성스러운 스트라이프가 특징인 제품으로 잔잔한 패턴들과 부드러운 파스텔컬러가 고급스러우면서 편안한 스타일을 보여준다. 은은한 민트컬러와 베이지 컬러부분에 섬세한 나비자수가 포인트가 되어 내츄럴한 스타일을 강조한다. <그림87>은 골드와 아이보리의 컬러매치가 감각적인 제품으로 고축 자카드를 소재로 하여 모서리 부분은 손주름 처리로 풍성함과 광택감을 강조하였고 몸에 닿는 이불커버 뒷지와 베개커버 뒷지는 모달 소재를 사용하여 뛰어난 부드러움과 흡수성으로 쾌적한 수면을 도와준다. 모달은 너도밤나무에서 원료로 한 완전 무공해 공법으로 제조되는 환경친화성 섬유이다. (출처www.evezary.co.kr)

<그림85>이브자리-1
http://www.evezary.co.kr

<그림86>이브자리-2
http://www.evezary.co.kr

<그림87>이브자리-3
http://www.evezary.co.kr

4) 메종 드 이영희 (Maison de Lee young hee)

1997년 메종 드 이영희를 설립하였다. 이영희가 의상으로 제시해 온 한국적인 모티브를 침장류 브랜드로 런칭한 것이 메종 드 이영희 이다. 각양각색의 칼라감과 전통미를 지닌 쿠션, 식탁커버, 침대커버, 마와 실크, 모시를 혼합하여 만든 넵킨, 실크누비 이불, 한국전통 치마를 응용한 나이트가운까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아름다움을 공감하게 하며 한국의 규방공예의 독창적인 멋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펼쳐 나가고 있다. 또한 1994년 한국 최초로 파리에 부띠끄를 오픈함으로써 디자이너로서의 존재감과 한국을 알리는데 기여했다.(출처:www.leeyounghee.co.kr)

<그림88>은 가운데 부분을 색동조각으로 연결한 후 서로 반대방향으로 배치하

여 재미를 주었다. 핑크가 전체적으로 주조색이 되어 색동 부분에 블루, 골드, 브라운등을 포인트 칼라로 사용함으로써 세련된 감각을 유지하면서 전통적인 한실의 느낌을 충분히 살린 제품이다. <그림89>는 이불의 중앙 부분을 조각보로 제작하여 한국적인 느낌을 살리고 각 조각을 연결한 후 이음선에 맞추어 퀼팅처리 해줌으로써 볼륨감을 주었다. 베이지, 연핑크, 골드, 바이올렛 등 채도가 낮은 칼라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차분한 느낌이 들게 하며 이영희의 감각이 살아있는 제품이다. <그림90>은 십장생의 거북, 학, 사슴, 돌 등을 모티브로 하여 패턴화 했다. 자수누비기계를 이용해 자수와 퀼팅을 함께 함으로써 실용성과 더불어 미적인 감각도 살리고 칼라 또한 은은한 그레이, 피취 칼라를 매치하여 고급스러운 누비이불의 컨셉을 가짐으로써 한국적인 모티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이다.

<그림88>메종 드 이영희-1
http://www.leeyounghee.co.kr

<그림89>메종 드 이영희-2
http://www.leeyounghee.co.kr

<그림90>메종 드 이영희-3
http://www.leeyounghee.co.kr

5) 겐조 (Kenzo)

일본의 패션 디자이너로서 이국적인 문화를 표현하고 다채로운 색과 정교한 무늬를 클래식한 룩에 적용하는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즐거운 유머와 젊음이 넘치는 것이 특색이다. 그의 디자인 특색은 유럽, 아프리카, 중국 등 이국적 문화를 표현한 것이다. 대담한 색상과 꽃무늬를 모티프로 사용하여 자신만의 감각을 표현한다.[59] 동서양의 조화가 돋보이는 겐조 홈 컬렉션은 패션과 마찬가지로 대담한 색상이 인상적이며 모던한 디자인도 출시되고 있다. 특히 오리엔탈리즘을 전형적으로 보여주

59) 네이버 백과, http://100.naver.com

며 동양을 연상시키는 금빛과 환상적 녹색, 적색, 자색 등이 주요 색상으로 사용된다.

<그림91>은 화려한 레드 색상이 인상적인 침장류로서 머릿단에 플라워 모티브와 페이즐리 문양이 조화롭게 프린트되어 화려함을 더해준다. 머릿단 프린트 된 제일 윗부분을 블랙 색상을 테두리로 하여 포인트를 줌으로서 정돈된 느낌이 들게함과 동시에 세련된 감각을 느끼게 한다. <그림92>는 전면 프린트 된 제품으로 플라워 모티브를 도안화하여 감각적이다. 이불 뒷지의 패턴은 작은 크기의 꽃이 일정하게 모아졌다가 퍼지는 형태의 앞면과 다른 프린트 원단으로 섬세한 작가의 의도가 돋보인다. <그림93>은 마치 우리나라의 색동을 보는듯한 느낌이 드는 침장류로 플라워 프린트 원단과 아이보리, 레드, 골드 칼라의 무지원단을 같은 간격으로 적절히 배치하였고 하단 부분은 바늘땀을 포인트로 하여 퀼팅처리 함으로써 동·서양의 느낌이 공존하는 이미지를 적절히 잘 담아내고 있다.

<그림91>겐조-1
http://www.kenzo.com

<그림92>겐조-2
http://www.kenzo.com

<그림93>겐조-3
http://www.kenzo.com

6) 랄프로렌 홈 (Ralphlauren home)

1967년 랄프 로렌(Ralph Lauren)은 'Polo fashions'라는 브랜드명의 넥타이 사업으로 시작하였다. 대중들에게 새로운 생활양식을 제시했다. 직장에서 입는 옷과 넥타이는 물론 파자마와 침대시트까지 같은 이미지를 연출한 토털 패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세계시장의 확장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남·여성복 액세서리 외에 홈 퍼니싱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라인을 선보이게 된

다. 랄프 로렌의 다양한 브랜드들과 공통적으로 랄프 로렌 홈도 정통 영국 스타일에 아메리칸 트레디셔널이 가미되어 영국의 전통성을 평범과 보편성의 미국적인 감성으로 승화시켜 전통과 실용이 조화되어 가장 미국적인 디자인이 되었으며 특히 컬러의 세련된 코디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명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출처:http://www.fashionin.com)

<그림94>랄프로렌홈-1
http://www.ralphlauren.com

<그림95>랄프로렌홈-2
http://www.ralphlauren.com

<그림96> 랄프로렌홈-3
http://www.ralphlauren.com

<그림94>는 18세기 중국의 도자기 문양을 모티브로 하였고 기하학적인 형태와 섬세한 자수를 넣어 우아한 느낌을 주는 제품으로 화이트와 블루의 린넨 소재를 사용하여 시원한 느낌을 강조함은 물론 스트라이프 패턴을 매치함으로써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느낌을 경쾌하게 표현하였다. <그림95>는 화이트와 블랙 칼라를 사용하였다. 이불, 베개의 날개부분을 블랙으로 대담하게 대조적으로 표현하여 깔끔하고 단정한 제품이다. 올이 가는 이집트면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고 심플하나 고급스러움을 지닌 제품이다. <그림96>은 짧게 꼬아 만든 전통적인 격자무늬 모직물, 넓게 보아 버팔로 체크무늬의 구색을 갖춘 레드와 블랙의 체크무늬를 사용하였다. 광택있는 실크의 촉감과 부드러운 알파카 울, 캐쉬미어 소재를 사용하고 전원생활의 소박한 정서와 함께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출처:www.ralphlauren.com)

Ⅵ. 작품 제작 및 분석

1. 작품 제작 배경 및 방법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함께 웰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주거생활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게 되었고 과거 보온성의 역할을 하던 침장류에서 벗어나 장식적인 측면에 기능적인 측면이 더해져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침장류 제품들이 각광받고 있다.

침장류 시장에 있어서도 다품종 소량생산의 개념이 점차 자리잡게 되면서 제품에 독창성을 표현하고 한국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전통의 현대화 과정을 통해 새롭게 재해석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침장류 시장에서 혼수, 예단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인 조각보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제작 기법에 자수나 누비 등을 응용하였다. 또한 장식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을 최대한 살려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침장류를 제안함으로써 침장류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롭게 조명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디자인 면에서도 면 구성의 비율이나 선택에 있어 전통 조각보의 구성들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재해석하여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조각보의 자유형으로 구성된 것을 기본으로 하여 전통적 느낌을 지닌 현대적인 조각보의 형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자수 패턴들을 가미함으로써 전통에 바탕을 둔 현대적인 감각의 침장류를 추구해 보고자 하였다.

소재로는 주로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세탁이 용이하게 양단. 폴리실크, 칠색단, 린넨 등을 사용하였고 예외적으로 수직 실크를 사용해 장식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도 하였으며 몸에 닿는 부분은 순면 즉 40수 트윌이나 60수 샤틴 등을 사용하여 기능적인 측면도 강조하였다.

구성은 누비 이불 커버 1개, 베개 커버 2개, 침대 커버 1개로 구성된 침대 커버 세트와 이불 커버 1개와 요 커버 1개로 구성된 이불·요세트에 침 베개 2개를 추가하여 기본 세트구성으로 제작하였으며 사이즈는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본 사이즈 즉 침대 커버 세트는 Q사이즈, 이불·요세트는 한실 이불·

요의 기본 사이즈를 바탕으로 하였다. 침대 커버 세트 구성 중 누비 이불 커버는 200cm×230cm, 베개 커버는 50cm×70cm, 침대 커버는 155cm×210cm을 기본으로 하여 제작하고 이불·요세트 구성 중 이불 커버는 180cm×220cm, 요 커버는 140cm×210cm를 기준으로 제작하였다.

칼라는 대부분 차분한 중간 톤의 색조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골드, 핑크, 아이보리, 그린, 그레이, 브라운, 오렌지 등을 사용하였다. 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칼라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여기에 액센트 칼라를 추가함으로써 색의 배색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작한 침장류 작품은 조각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작품에 나타나 있는 독창적이며 주관적인 조각보의 패턴화를 통해 디자인의 자율성을 추구하기에 적합하며 구성의 세련미, 색상의 조화, 제작자의 조형의지를 증대시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품으로 제작되어졌다.

이렇게 제작된 작품은 전통미가 세계화 되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써 새롭게 재평가되어지는 계기를 마련하여 또 하나의 다른 세계를 열어가는 가능성을 갖게 하고자 하였다.

2. 작품 및 분석

[작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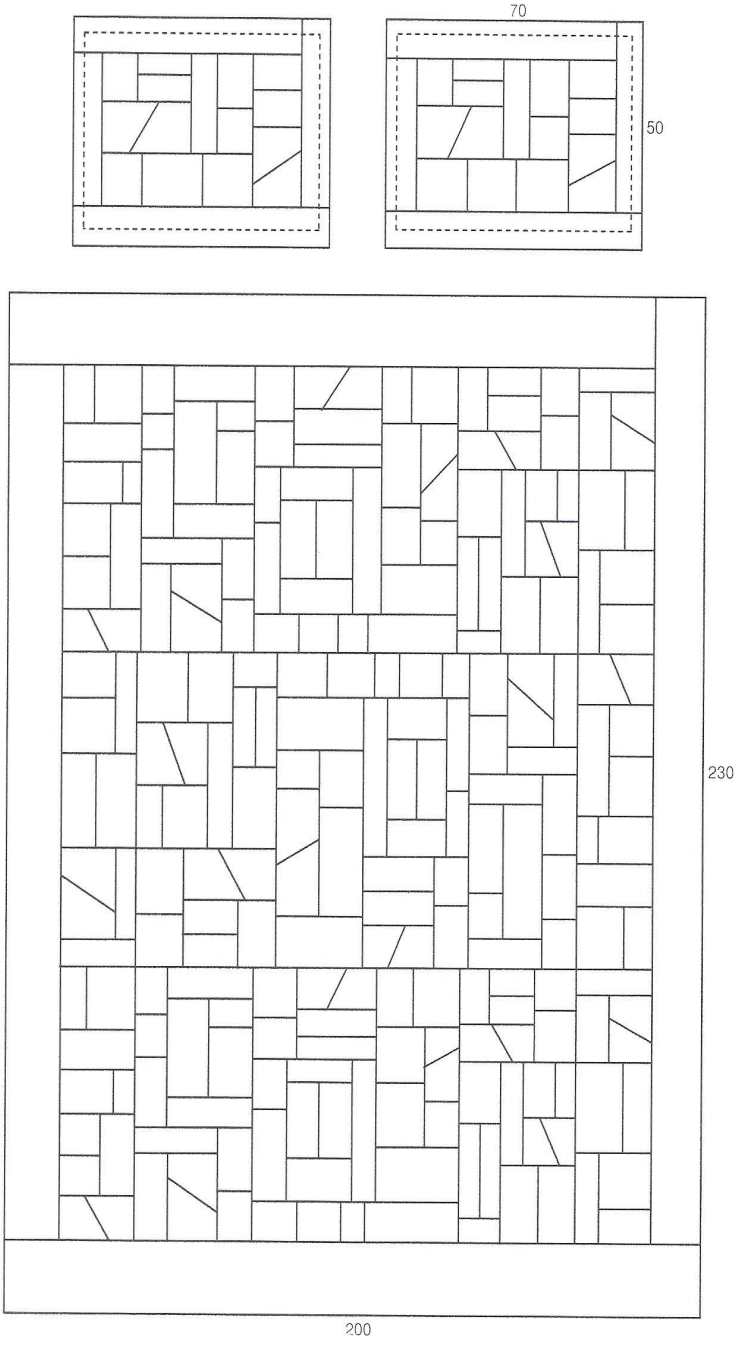
구성 : 침대 커버 세트
소재 : 수직실크, 60수 샤틴
색상 : 그린, 연그린, 카키, 골드, 베이지, 연브라운
크기 : 누비 이불 커버 200cm×230cm
베개 커버 50cm×70cm
침대 커버 155cm×210cm
기법 : 조각보

광택과 소재의 질감이 살아있는 수직실크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자유분방한 조각보의 구성을 이불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조각조각 연결하였지만 마치 한 패턴을 보는듯하게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일관적인 느낌을 추구하였다.

부드러운 촉감과 원단의 결이 살아있는 수직실크를 기본으로 하여 침대 커버 몸판과 이불 뒷면은 몸에 닿는 부분이므로 촉감이 부드러운 60수 샤틴 면으로 처리해 주었다.

2009 S/S 트렌드인 자연과 인공의 조합처럼 소프트한 느낌이 드는 그린, 연그린, 카키, 골드, 베이지, 갈색을 선택해 배색하였으며 테두리를 골드로 마무리하여 감각적이면서 차분함을 돋보이게 제작하였다. 조각이 많아 보여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같은 계열의 색상톤을 사용하여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고전적이지만 모던한 이미지를 주려고 하였다. 코디용인 쿠션에는 난색계열의 칼라를 조각에 넣어 전체 침구 코디에 액센트를 주었다.

침구 사이즈는 가장 일반적인 퀸 사이즈로 제작하였으며 30~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적합하게 제작하였다.



[작품 1]의 도식화

[작품 1]

[작품 1] 의 세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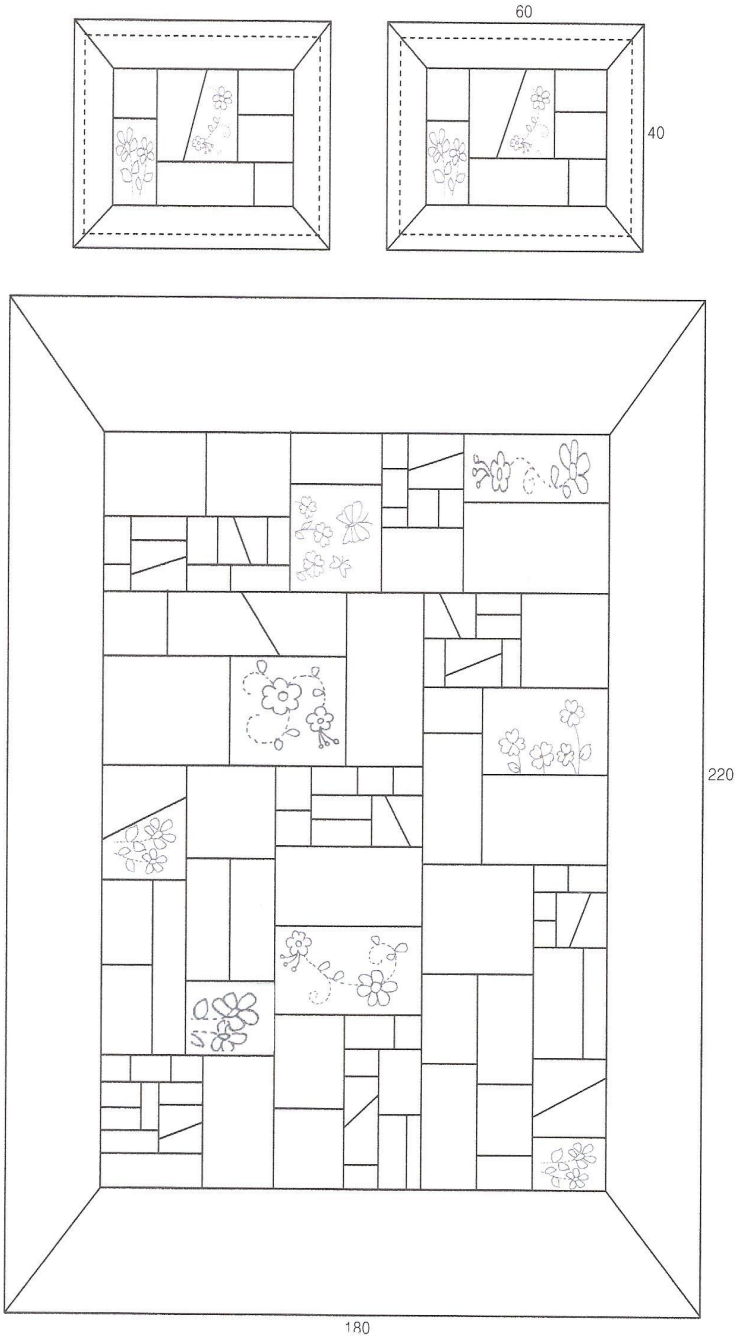
[작품 2]

구성 : 이불 · 요 세트
소재 : 양단, 60수 샤틴
색상 : 아이보리, 블루, 오렌지, 골드, 그린, 자주
크기 : 이불 커버 180cm×220cm
베개 커버 40cm×60cm
요 커버 140cm×210cm
기법 : 조각보, 자수

실용적이면서 실크의 느낌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양단을 사용해 이불 · 요 세트를 제작하였다. 면 구성에서 크기에 변화를 주어 자연스러운 리듬감을 표현하였다. 큰 면에서 작은 면으로 분할하여 형태의 반복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피했으며 전통적인 조각보를 모티브로 하여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해 작품을 제작하였다. 큰 면으로 구성된 조각 부분은 자수를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장식적 디테일을 살리고 또 각기 다른 자수 패턴을 사용하여 화려함을 추구하였다. 또한 아이보리, 블루, 오렌지, 골드, 그린, 자주 칼라를 사용하여 단아하면서도 화려한 칼라감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하였고 아이보리를 난지 부분으로 사용하여 깨끗한 마무리감을 강조하였다.

이불 몸판은 물세탁이 용이하고 함성섬유와 섞어 직조한 양단 소재를 사용하여 실용적이며 실크보다 가격이 저렴해 가격 경쟁력도 가지고 있다. 이불 뒷면은 역시 순면을 사용하여 쾌적한 느낌을 추구하였다.

사이즈는 이불 · 요 세트의 가장 기본 사이즈로 제작하였고 베개 커버는 1인용 베개 커버 사이즈로 제작하였으며 이불 · 요 세트의 구성 상 주로 50~60대의 혼수, 예단고객에게 적합하게 제작되었다.



[작품 2]의 도식화

[작품 2]

[작품 2] 의 세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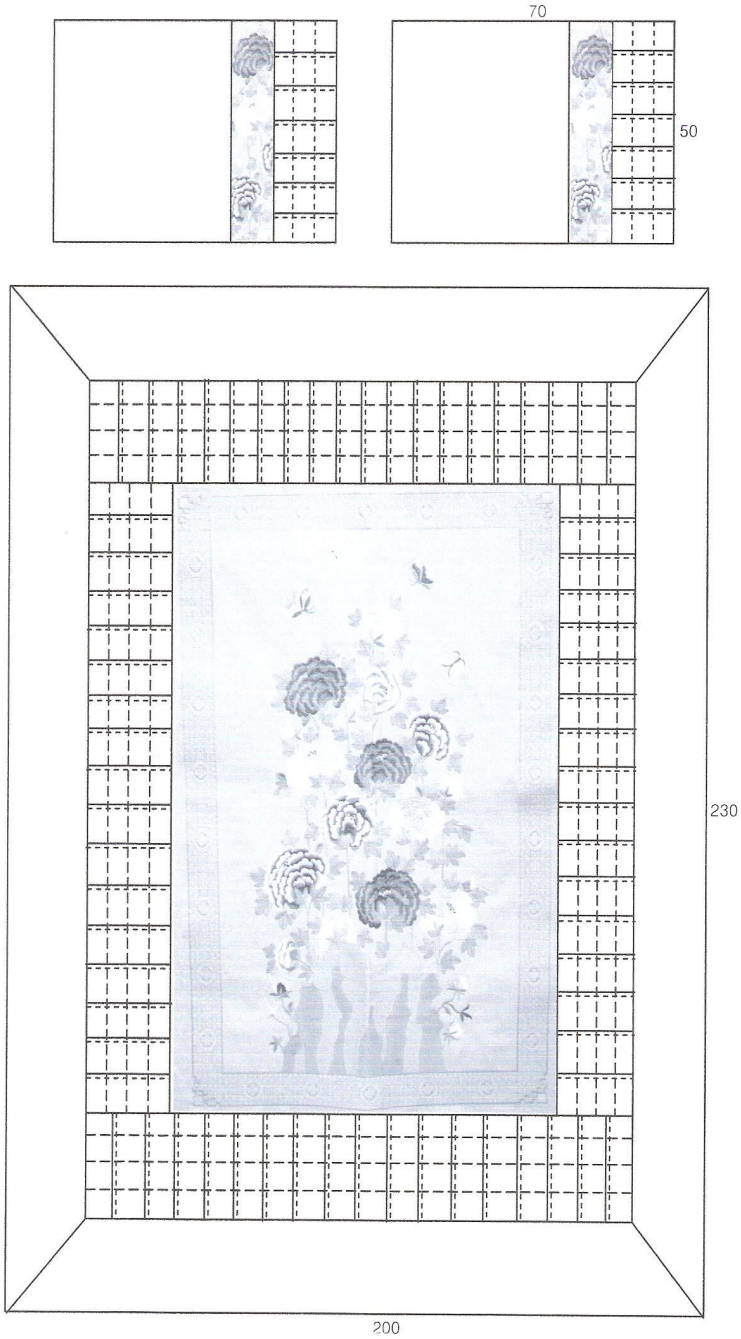
[작품 3]

구성 : 침대 커버 세트
소재 : 린넨
색상 : 아이보리, 그레이
크기 : 이불 커버 200cm×230cm
베개 커버 50cm×70cm
침대 커버 155cm×210cm
기법 : 핀턱, 자수

시원한 촉감을 가지고 있는 린넨 소재를 사용해 침대 커버 세트를 제작하였다. 중앙 부분을 크고 화려한 자수로 포인트를 주고 자수 테두리 부분에 핀턱기법으로 바느질하여 물결무늬가 되도록 엇갈려 박음으로 기존 핀턱과는 차별화를 주면서 독창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2009 S/S트렌드의 웰빙과 로하스의 감성이 어우러진 차분한 그레이 컬러에 아이보리를 매치시킴으로써 중성적인 느낌을 강조하면서 세련된 칼라감을 느낄 수 있게 배치하였고 기존 계절상품이 인견이나 리플 등으로 제작되는 것과 달리 자연스러우면서 고급스러운 린넨 소재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불몸판을 포함하여 침대 커버 세트 전 구성을 마섬유의 일종으로 거친듯 부드러운 촉감이 좋은 린넨을 사용하였으며 기능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현대식 생활 패턴에 맞게 침대 커버 세트로 구성하였고 다양한 연령층에 어필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작품 3]의 도식화

[작품 3]

[작품 3] 의 세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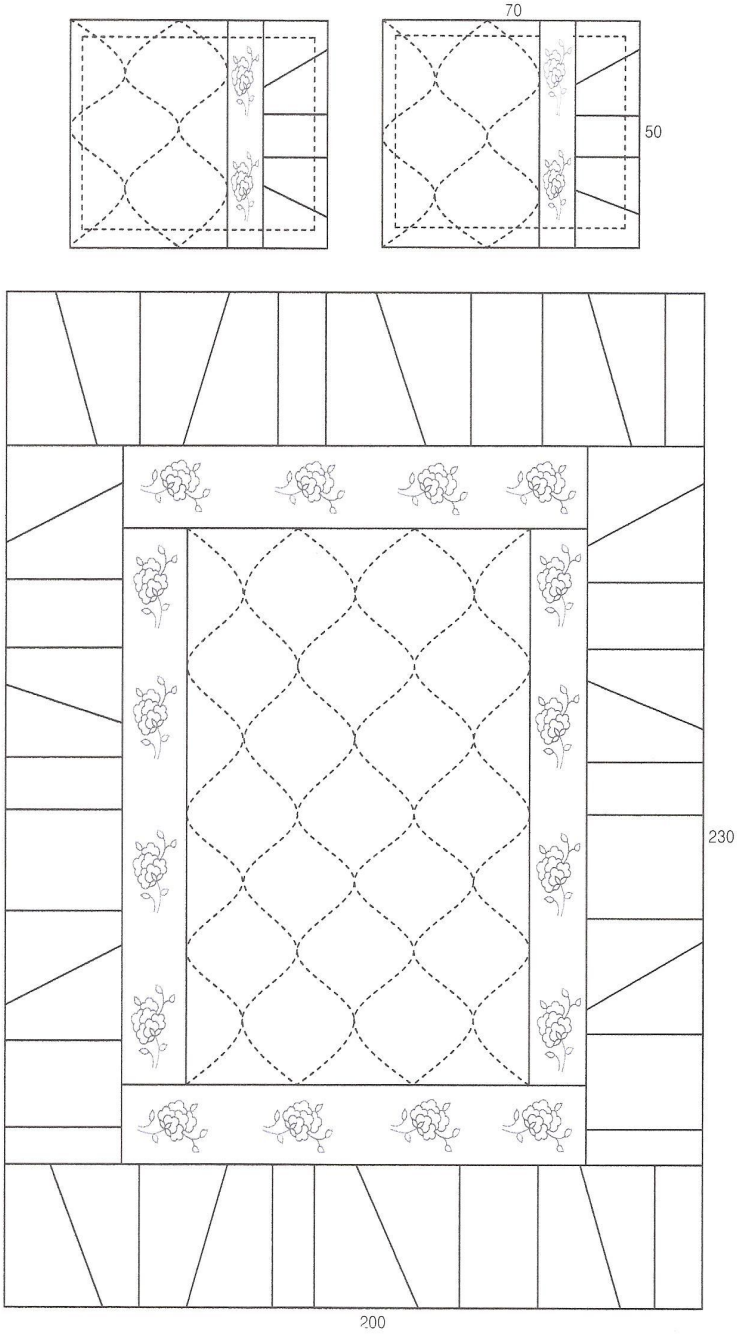
[작품 4]

구성 : 침대 커버 세트
소재 : 칠색단
색상 : 화이트, 그레이, 골드, 그린, 브라운
크기 : 이불 커버 200cm×230cm
베개 커버 50cm×70cm
침대 커버 155cm×210cm
기법 : 조각, 누비, 자수

양단의 일종인 칠색단은 뒷면에서 보면 원사의 색이 일곱 개로 되어있어 앞면의 문양의 색이 다양하게 나타나 앞면의 문양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장점이 있다. 가운데 몸판은 이런 다채로운 원단의 느낌을 살려 따뜻한 느낌이 들게 누비로 표현하였고 난지 부분은 크기의 변화가 많지 않게 일정한 모양의 조각을 연결하여 통일된 느낌이 들게 배치하여 마무리 하였다. 누비와 자수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꽃 모티브를 놓은 띠자수를 포인트로 배치하였다.

중후한 느낌이 드는 그레이, 골드. 그린,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여 동양적인 고급스러움을 표현하였고 띠 자수 부분은 화이트 컬러를 사용하여 감각적인 느낌을 강조하였다.

기본적인 퀸 사이즈 침대 커버 세트로 구성하였으며 침대 커버 바란스는 삼면을 누비로 처리하고 앞 바란스에는 자수도 추가하여 제작함으로써 기본적인 한실 침구의 경향을 반영하여 혼수, 예단 고객을 위한 침장류 세트로 제작하였다.



[작품 4]의 도식화

[작품 4]

[작품 4] 의 세부사진

[작품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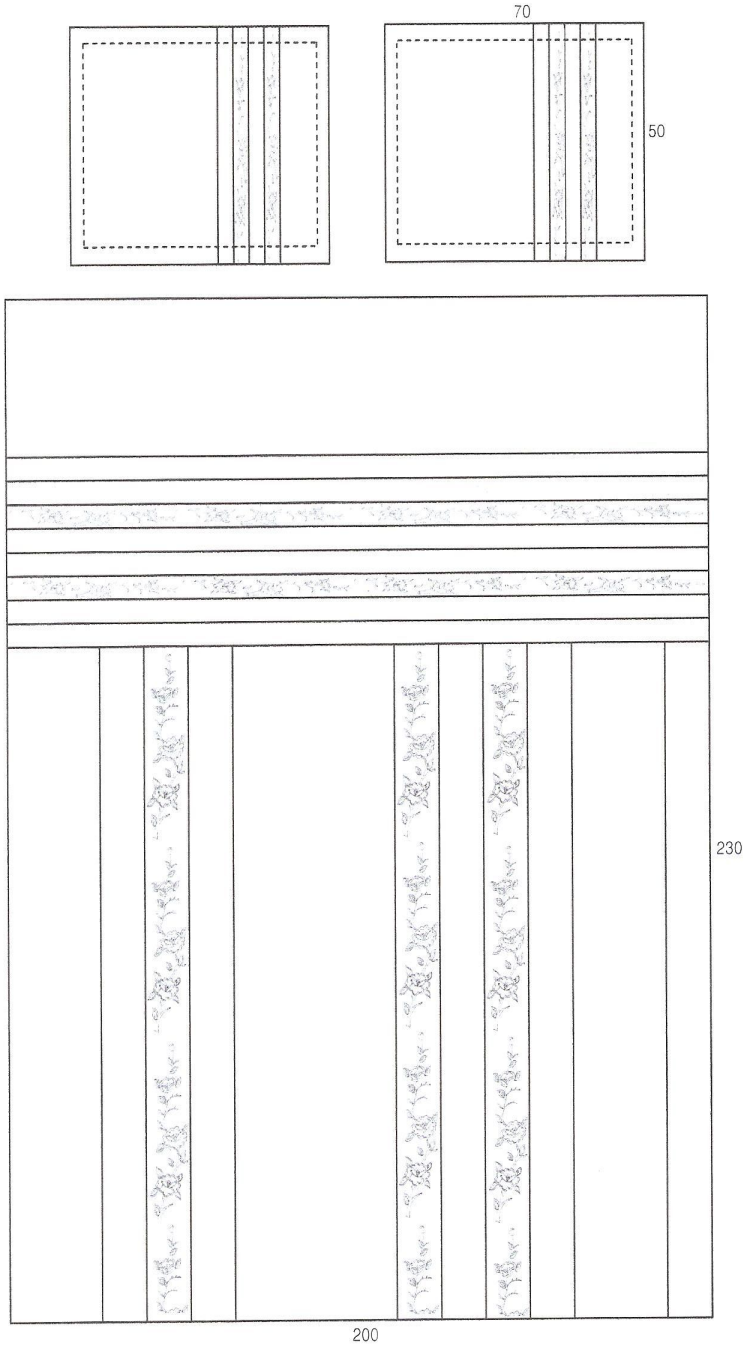
구성 : 침대 커버 세트
소재 : 양단, 40수 트윌
색상 : 화이트, 그레이, 엘로우, 보라, 오렌지
크기 : 이불 커버 200cm×230cm
베개 커버 50cm×70cm
침대 커버 155cm×210cm
기법 : 조각, 자수

봄, 가을에 입는 한복의 소재인 양단을 사용하여 옛스러운 느낌을 살려 현대적인 생활 패턴에 맞는 침대 커버 세트로 구성하였다.

전통적인 색동을 모티브로 하여 면 구성 하였고 색동의 기본칼라에서 변형하여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칼라를 배치함으로써 모던한 느낌을 강조하였다. 색동으로 연결된 중간 중간에 전통적인 꽃을 단순화 한 꽃 자수 모티브를 넣어주어 한국적인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 색동에서 오는 단조로움도 피할 수 있게 표현하였다.

화이트를 기본으로 그레이, 엘로우, 보라, 오렌지 칼라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색동 조각의 느낌과 차별화를 두었다. 색동과 포인트가 되는 자수가 어우러져 모던하면서도 산뜻한 컬러감을 볼 수 있게 제작하였다.

앞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침대 커버 세트로 제작하였으며 이불커버도 솜을 넣고 빼기 용이하도록 지퍼로 처리하였으며 침대 커버 몸판과 이불뒷면 역시 순면으로 처리하여 기능성을 강조하였다.



[작품 5]의 도식화

[작품 5]

[작품 5] 의 세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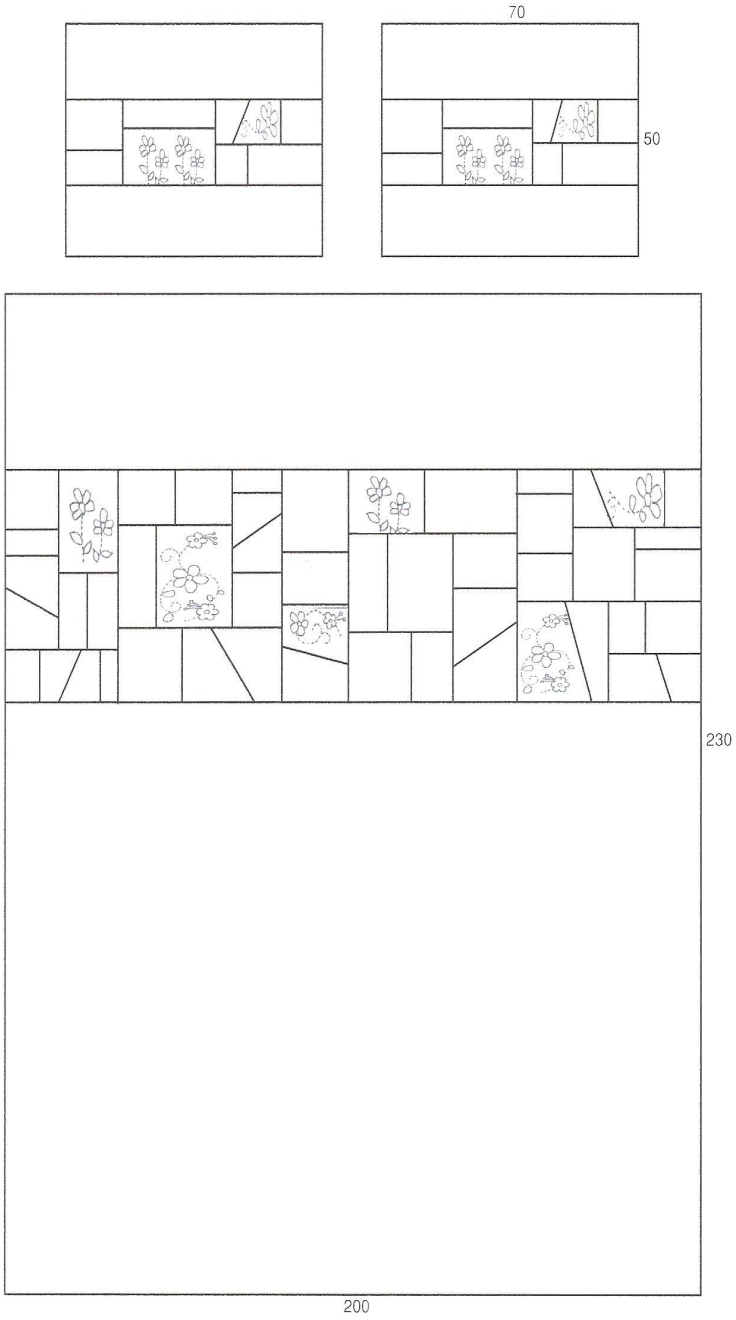
[작품6]

구성 : 침대 커버 세트
소재 : 양단, 60수 샤틴
색상 : 아이보리, 골드, 그린, 자주, 오렌지, 블루
크기 : 이불 커버 200cm×230cm
베개 커버 50cm×70cm
침대 커버 155cm×210cm
기법 : 조각, 자수

다양한 종류의 문양이 있는 양단 중 모양단이라고 하여 문양이 대체적으로 촘촘히 배치되어 있는 양단을 사용하였다. 머릿단을 기준으로 하여 가로로 조각을 배치하여 심플한 느낌을 강조하고 몸판 부분과 머릿단을 2009/10 F/W트렌드의 칼라 중 하나인 아이보리로 선택하여 조각의 산뜻한 칼라를 마무리 해주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었다. 몸판부분은 원단에 있는 문양의 특징으로 인해 면의 분할을 더 조화롭게 보이게 하고 균일하게 배치된 조각면의 각 부분을 겹수로 자수를 해줌으로써 조각 부분이 더 돋보이게 하여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골드, 그린, 자주, 오렌지, 블루 칼라를 사용하여 활동적이며 산뜻한 느낌을 추구하였고 가운데 조각을 연결한 부분은 바탕색인 아이보리를 배치하지 않아 조각이 더욱 강조되어 보이도록 제작하였다.

몸에 닿는 이불커버 뒷면과 베개커버 뒷면, 침대커버 몸판은 촉감이 부드러운 60수 샤틴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광택감과 기능성을 강조하였다. 이불·요를 사용하지 않고 침대를 사용하는 50~60대 혼수 예단 고객을 위한 제품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6]의 도식화

[작품 6]

[작품 6] 의 세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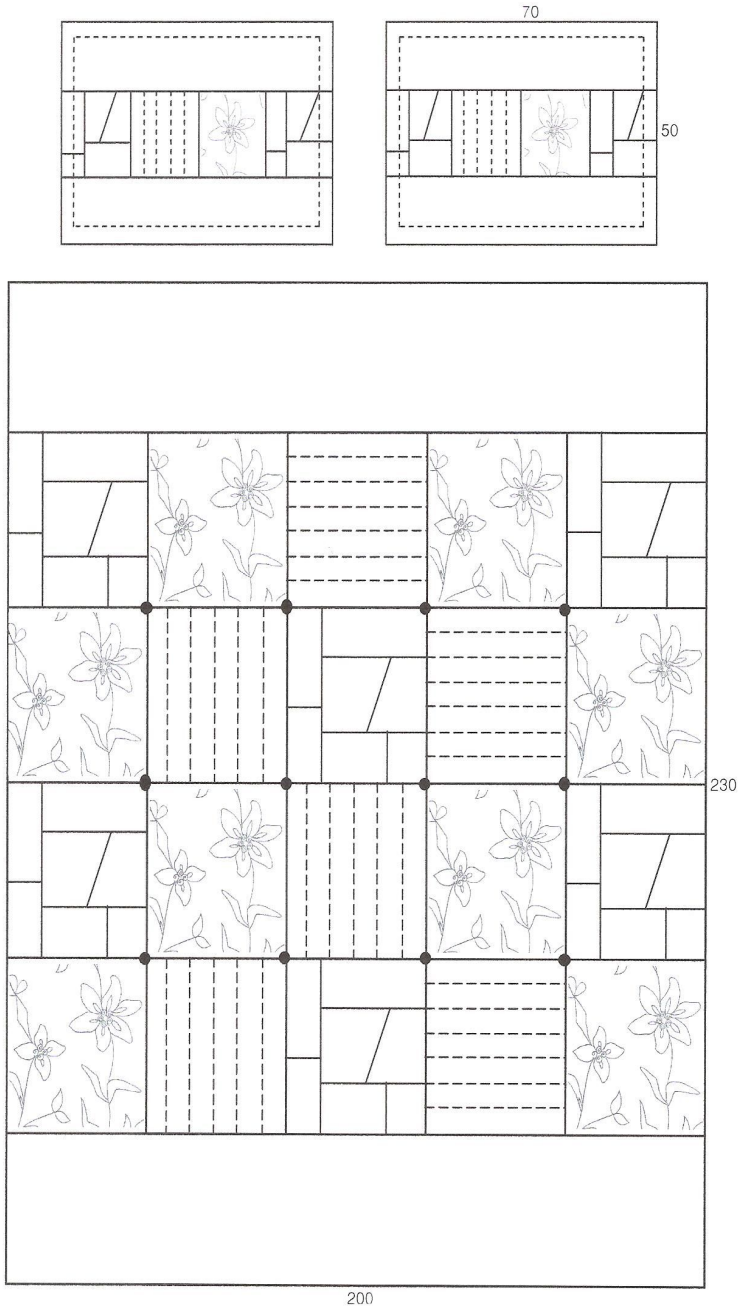
[작품7]

구성 : 침대 커버 세트
소재 : 수직실크, 60수 샤틴
색상 : 그레이, 진핑크, 연핑크, 엘로우, 스카이블루, 브라운
크기 : 이불 커버 200cm×230cm
베개 커버 50cm×70cm
침대 커버 155cm×210cm
기법 : 조각, 자수, 스티치

수직실크를 소재로 하여 실키한 광택감 위에 표현한 다양한 기법들의 조화가 고상한 칼라와 매치되어 신선한 느낌과 고급스러운 멋이 동시에 느껴지도록 제작하였다. 일정한 면의 사각안에 꽃 모티브의 자수, 조각, 가로와 세로로 방향에 변화를 주어 지루하지 않은 느낌으로 표현된 스티치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감각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사각과 사각이 만나는 부분에는 마무리할 때 진주 비즈를 달아 포인트가 되게 표현하였고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칼라는 진핑크, 연핑크, 엘로우, 스카이블루, 브라운 등 비슷한 채도의 칼라들을 선택하여 차분하게 표현하였고 전통적인 고급스러움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시켜 새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위·아래 난지부분을 그레이 칼라로 마무리하여 세련된 느낌을 강조하였다.

침대 커버 형태로 30대 중반~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번 작품 역시 몸에 닿는 부분은 60수 샤틴을 사용하여 기능성 또한 강조하여 제작하였다.



[작품 7]의 도식화

[작품 7]

[작품 8] 의 세부사진

[작품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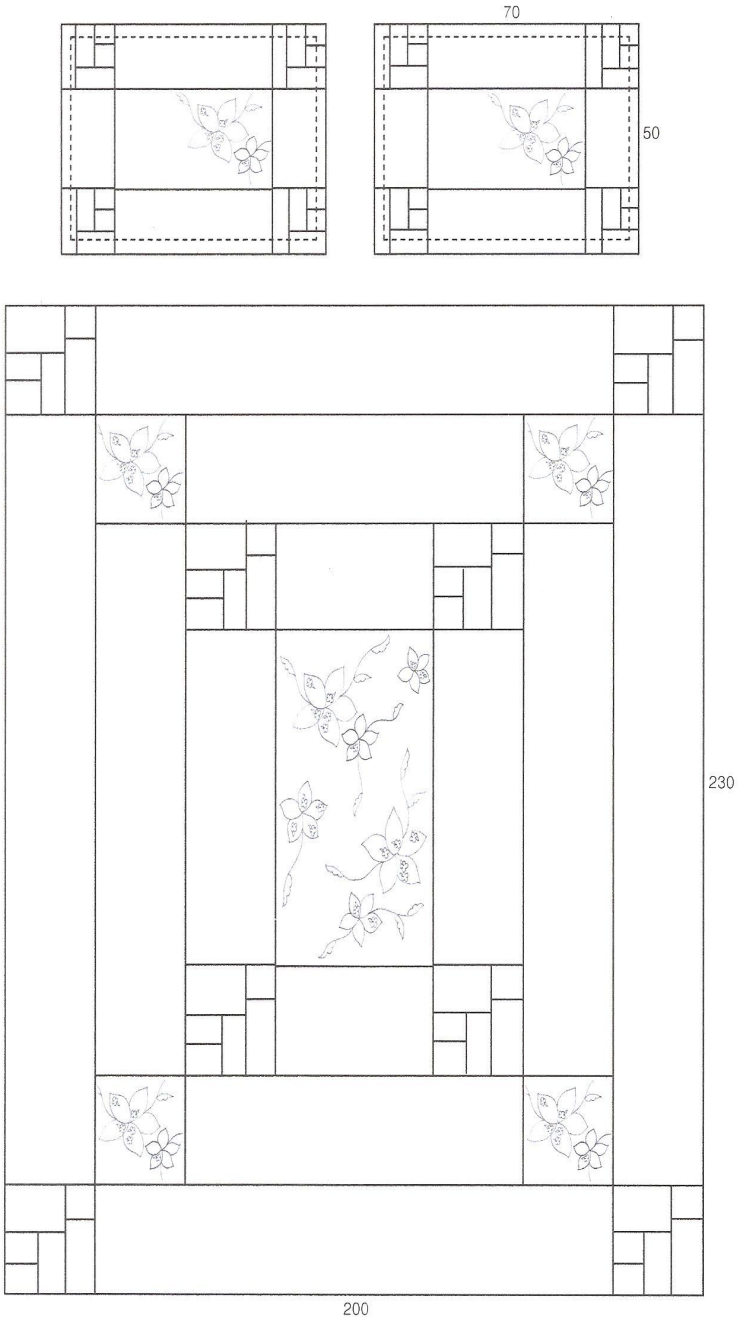
구성 : 침대 커버 세트
소재 : 양단, 40수 트윌
색상 : 아이보리, 핑크, 골드, 옐로우, 보라
크기 : 이불 커버 200cm×230cm
베개 커버 50cm×70cm
침대 커버 155cm×210cm
기법 : 조각, 자수

물세탁이 가능해 실용적인 양단을 소재로 하였고 전체적으로 대칭이 되게 면적을 분할하여 정돈된 느낌의 침장류를 제작하였다. 전체적으로 사이즈와 디자인이 같은 조각과 자수를 일정한 면적에 규칙성 있게 배치하여 정적인 느낌을 표현하였고 정적인 느낌 가운데 몸판의 중앙 부분은 꽃 모티브의 자수를 일정하게 배치하지 않아 동적인 느낌을 표현하여 포인트가 되게 하였다.

자수는 기존의 자수패턴과 달리 겹수가 아닌 라인수 즉 테두리를 중심으로 모티브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자수를 사용하여 자수부분만 튀어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화되어 보이도록 표현하였다.

자수로 표현된 부분은 아이보리를 사용하고 핑크, 골드, 옐로우 등 비슷한 계열의 칼라를 사용하여 단아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하였으며 보라를 포인트 칼라로 사용하였다.

전형적인 혼수, 예단 고객을 대상으로 디자인 하고 제작된 작품으로 조각 패턴과 자수의 조화로 기존 제품과 차별화를 두고자 하였다.



[작품 8]의 도식화

[작품 8]

[작품 8] 의 세부사진

[작품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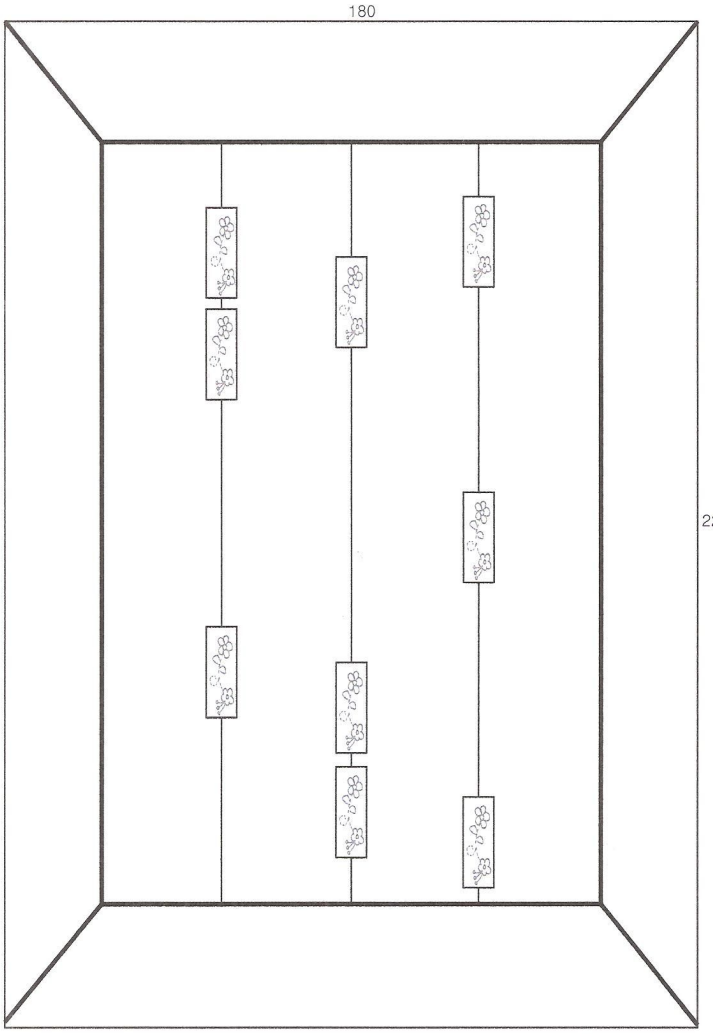
구성 : 이불·요 세트
소재 : 금색단, 40수 트윌
색상 : 아이보리, 엘로우, 브라운, 핑크, 블루, 민트
크기 : 이불 커버 180cm×220cm
요 커버 140cm×210cm
칩베개
기법 : 조각보, 자수, 파이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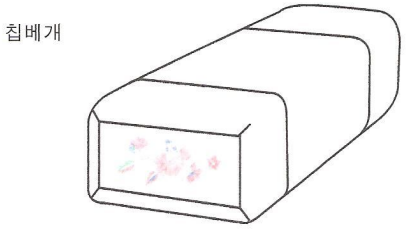
뒷면이 금수로 되어있어 앞면의 구름 문양 부분이 금수로 나타나는 양단원단을 사용하여 화려한 전통 이불·요를 바탕으로 현대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이불·요 세트를 제작하였다.

소재 자체가 화려하여 칼라를 제한적으로 몸판에 아이보리와 난지 부분에 엘로우를 사용하였고 몸판과 난지 사이에 브라운 칼라의 파이핑으로 포인트를 주어 정리된 느낌을 가지게 한다. 몸판 부분은 핑크, 블루, 민트 등의 바탕칼라에 해바라기 모티브의 와펜 자수를 놓아 덧대어 붙여 제작하고 중후한 분위기로 표현된 이미지에 산뜻함을 더해주어 차별화된 이미지를 전달해 준다.

이불·요 세트의 베개는 40cm×60cm사이즈의 1인용베개도 사용되지만 주로 칩베개가 많이 사용되는데 베개 안에 항균 칩을 넣어 쓰며 매실 씨나 메밀 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준다.

주로 50~60대의 혼수, 예단 고객을 대상으로 한 침장류로 제안해 보았다.





[작품 9]의 도식화

[작품 9]

[작품 9] 의 세부사진

Ⅶ. 결론

우리나라는 현대에 와서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재조명 되어 가고 있다.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요구에 따라 획일적이고 단순 기능만을 추구하던 침장류 디자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창조, 개발의 과정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미적 감각의 효과가 증대되고 심리적 부가가치는 상승하여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어 가면서 국제적 감각들의 새로운 침장류 제품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들은 침장류 시장의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침장류의 개발과 창조의 과정에는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변화들이 존재한다. 침장류에 사용되는 소재는 실크, 면, 모시 등 단편적인 실용성이 강조되어진 소재가 사용되어 왔지만 섬유 가공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롭고 다양한 소재들의 개발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킴은 물론 침장류 시장의 다양해지고 고급화 되고 있는 소비성향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침장류의 제작기법 측면에서도 자수, 누비, 바느질 기법 등이 현대에 와서 생활 패턴에 맞게 대량화, 기계화 되어 변해가는 과정에서 개성과 실용성의 조화를 이루고 있고 주로 손으로 제작되어져 오던 수공예 표현기법들의 조형성과 수공예 기법들이 기계화 되고 정형화 되어 가는 과정의 장점들이 합쳐져 디자인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게 하고 있다.

현대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브랜드와 용도별로 살펴본 침장류 제품들은 전통적인 형태와 디자인의 개념에서 확장되어 디자인력의 강화라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개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침장류 시장을 발전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일부분이 되고 있다. 이런 침장류의 개발 과정에서 독창성을 얻기 위해 동·서양의 전통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전통의 재해석으로 인한 현대화의 과정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이 남긴 문화의 우수성은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생활공간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오랜 경험의 축적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전통 조각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롭게 조명해 보았고 대부분 혼수, 예단이 차지하고 있는 침장류 시장을 기본으로 하여 조각보의 조

형성을 바탕으로 침장류 디자인에 응용하고 혼수, 예단에 적합한 상품군을 선정하였으며 실용성과 예술성을 갖춘 소재들을 이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표현기법들을 사용함은 물론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침장류 분석을 통하여 작품제작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의 연구 작품은 조각보를 모티브로 하여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아닌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표현해 내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침장류 디자인 개념의 확장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조각보만이 아닌 자수, 스티치, 바느질 기법 등을 포함시켜 다양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기존 침장류에서 보여 지는 이미지들은 서로 차별화 되지 못하여 단조롭게 표현되고 있으나 연구 작품에서는 창조의 영역을 확장하여 디자인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다양한 칼라들을 사용함으로써 예술성과 실용성을 갖출 수 있게 응용하였다. 또한 바느질 기법을 응용하여 물결무늬가 되도록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수 모티브들을 이용하여 작품에 맞는 느낌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조각보의 조형성을 연구자만의 디자인으로 전개시킴으로써 진보적인 침장류 제품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다양한 디자인, 자수, 바느질기법들을 통해 침장류의 표현 영역의 확대를 가져 왔다.

둘째, 전통 조각보를 디자인의 모티브로 채택하여 디자인에 전개시킴으로써 침장류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생활공간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창조적이며 확장된 의미로서의 침장류를 탐구하여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침장류를 재조명 하였다.

위와 같이 전반적인 내용의 결론과 함께 제작 시 나타나는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첫째, 조각보를 모티브로 디자인하고 도식화하여 치수를 정할 때는 제작 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전개시켜 나가야 한다. 많은 선들이 만나 바느질할 때 시접부분이 두꺼워 지지 않도록 디자인 과정에서부터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소재에 따라 다림질 했을 때 줄어드는 비율이 조금씩 다르므로 시접 부분은 약간씩 차이를 두고 재단해야 하며 직물의 짜임에 따라 바느질할 때 늘어나는 비율이 다르므로 원단이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 바느질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리 하여야 한다.

둘째, 전통 조각보에서는 일정하고 계산된 규칙이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자투

리를 모아 이어 갔기 때문에 질서있게 배열되는 구성형태를 많이 볼 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조각보를 패턴화 하여 계산된 규칙을 적용시키고 불규칙한 조각보를 배치하더라도 디자인 할 때 미리 정해진 치수와 형태를 바탕으로 칼라와 소재를 선정하여 제작한다. 침장류는 대부분 사각틀 안에서 모든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조각보의 면이 적당한 비율로 이루어져야 보다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면을 나누고 치수를 정할 때 칼라가 되도록 겹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면을 분할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침장류는 주로 작품보다는 제품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타 제품과의 가격경쟁력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디자인하고 도식화 할 때 미리 사용할 소재를 선정하여 원단의 폭에 맞게 즉 자투리가 남지 않도록 치수를 조정하여야 로스가 나지 않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각보를 디자인 하는 것은 물론 자수나 누비도 미리 계획하여 치수나 요축률을 정하고 제작방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인지해야만 가격 경쟁력이 되는 완성도 높은 제품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렇게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표현된 침장류를 통해 다양한 기법과 창조적 이미지 표현의 무한한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침장류 개발로 제시되어 침장류 시장의 관심과 변화, 발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확장된 의미로서의 침장류가 다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경쟁력을 증대시키며 계속 발전되어 나아갈 것이며 침장류에서 독창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창조의 영역 안에 포함된 새로운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선화 『텍스타일 디자인』,(서울:미진사, 1991)
이브자리 『Retail University』, (서울:이브자리 디자인 연구소, 2009)
숙명여자대학교『중국직물의 태동과 역동』,(숙명여자대학교 정영양 자수 박물관, 2009)
허동화 『옛 보자기』, (서울:한국자수박물관 출판부, 1988)
허동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규방문화』, (서울:현암사, 1997)
까사 『꼭 알아야 할 품격있는 결혼예절 예단』, (서울:시공사, 2007)

[학위논문]

권은순 「침구류 디자인 선호도와 구매동기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권혁재 「인테리어 제품을 위한 텍스타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김미강 「조선시대 자수문양을 응용한 침장 패턴 디자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김선영 「조각보를 중심으로 본 전통 보자기 미의 현대 재해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김혜란 「천연염료와 전통 보자기법의 재해석으로 전개시킨 DTA(Digital textile Art)」, 청주대학교 공예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박지연 「조선시대 침구(寢具)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백은영 「홈 인테리어 직물 디자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서영성 「침장 제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심로사 「섬유 꼴라쥬기법을 이용한 회화적 표현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이선희 「현대패션에 표현된 일본 전통 이미지 텍스타일의 조형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이세희 「한국 전통 조각보를 응용한 침구 디자인 연구」,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유보리 「서양 전통 패치워크 문양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조주희「20-50대 여성의 침구사용 현황, 구매 행동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한선주 「침장류 VMD의 매장연출과 소비자 반응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학술지논문]

김민경, 김은정, 이정순「현대 패션 트렌드와 신섬유」,충남대학교 논문집, 2006
김옥광 「조선시대 보자기에 나타난 문양 연구」, 한국공예학회 논문집, 1999
박장희 「조선 조각보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창원대학교 디자인 연구소 Vol.4 논문집,1999
이수철 「명품 침장류의 최근 동향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 논문집, 2007
이정수, 송명견「바느질 기법에 연구」, 디자인 포럼21 Vol.4 논문집, 2001
이화영, 최인려, 남윤자「일본직물의 문양에 관한 고찰」,경희대학교 논문집, 1998

[웹사이트]

http://.museum.jeju.go.kr 제주민속박물관
http://www.onyangmuseum.or.kr 온양민속박물관
http://www.evezary.co.kr 이브자리
http://blog.daum.net 쌈지사랑 규방공예 연구소
http://www.gmarket,co.kr 지마켓
http://www.orvis.com 오르비스
http://www.ralphlauren.com 랄프로렌
http://www.ebedding.co.kr 동진침장
http://www.jamion.co.kr 자미온
http://www.phghome.co.kr 박홍근
http://www.design.co.kr 디자인 하우스
http://www.akmall.com AK몰
http://www.kenzo,com 겐조
http://www.leeyounghee.co.kr 메종 드 이영희
http://www.100.naver.com 네이버백과사전
http://www.pagoda.encyber.com 두산백과사전
http://www.dgtia.or.kr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http://www.ifp.co.kr 국제트렌드센터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디자인학과	학 번	20088802	과 정	(석사), 박사
성 명	한글: 나 인 승	한문 : 羅 寅 升		영문 : Na In Seung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용두주공아파트 103동 1002호				
연락처	062-574-5427		E-MAIL : forars0802@naver.com		
논문제목	한글 : 현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침장류 디자인 개발 연구 영어 : **A study for the Application of Modern life style Bedding Design Development**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

2010년 2월

저작자: **나 인 승**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